

2021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

# 가야 선주민의 바닷길과 대외교류

# 對外交流

2021. 8. 20.(금)  
13:00~17:50

 YouTube

국립김해박물관 공식 유튜브 생중계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튜브 생중계로만 진행합니다.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2021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

# 가야 선주민의 바닷길과 대외교류

2021. 8. 20. (금)  
13:00~17:50

# 對外交流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2021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

# 가야 선주민의 바닷길과 대외교류

# 對 外 交 流

## 주제발표 및 일정

시간	발표주제	발표자	토론자
사회 : 이정근(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13:05~13:10	개회사 : 오세연(국립김해박물관장)		
13:10~13:40	남해안 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	김미영(경남연구원)	최현섭(두류문화연구원)
13:40~14:10	선사시대 동남해안 지역 해양교류 양상 변화 - 어로구의 양상을 중심으로 -	이상규(가야문화연구원)	최종혁(경남문화재연구원)
14:10~14:30	휴식		
14:30~15:00	선사시대 낙동강 중하류 고지형 변화	김정윤(한국사회과학연구원)	이동주(동아대학교)
15:00~15:30	선사시대 해로를 통한 영남지역의 대외 교류	천선행(전라문화유산연구원)	양성혁(국립중앙박물관) 이제현(국립김해박물관)
15:30~15:50	휴식 및 장내정리		
15:50~17:50	종합토론(좌장 : 임학중(前국립김해박물관장) /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 Contents

---

경남 남해안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와 양상 | 05  
김미영(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토론문 | 29  
최헌섭(두류문화연구원)

---

신석기시대 동남해안지역 해양교류양상 변화 | 45  
- 어로구의 양상을 중심으로 -  
이상규(가야문화연구원)

토론문 | 61  
최종혁(경남문화재단연구원)

---

선사시대의 낙동강 중하류부 고지형 변화 | 65  
김정윤(한국사회과학연구원)

토론문 | 85  
이동주(동아대학교)

---

선사시대 해로를 통한 영남지역의 대외 교류 | 91  
천선행(전라문화유산연구원)

토론문 | 115  
양성혁(국립중앙박물관) | 115  
이제현(국립김해박물관) | 117

---



2021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

# 가야 선주민의 바닷길과 대외교류

對  
外  
交  
流

주제발표

## 경남 남해안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와 양상

김 미 영(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경남 남해안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와 양상

김미영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경남 남해안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 특징 |
| II. 경남 남해안 지역의 유적 분포 현황 | IV. 맺음말                     |
- 

## I. 머리말

본고는 학술대회 주제인 가야 선주민의 바닷길과 대외교류를 논의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경남 남해안 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에 대한 분포와 양상을 살펴보고자 작성한 것이다. 고대사에서 인식하고 있는 가야의 영역은 남강 유역 및 낙동강 상류역까지의 내륙을 포함하나 본고에서는 해양에 접한 경남 남해안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안지역을 바다에 접하는 지역으로 정의하였으나 다소 지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구분하지 못한 점도 있다. 고김해만과 같이 해안선 복원 연구를 통하여 통상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해안지역은 경남 남해안 유적에 포함시켰다. 마산만의 안쪽인 창원분지는 남쪽 일부는 남해안과, 북서쪽은 고대산만과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적과 해안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다소 주관적인 해석이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경남 남해안은 수계를 기준으로 하면 서쪽의 섬진강과 동쪽의 낙동강 사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행정지역으로는 서쪽의 하동부터 동쪽의 김해까지 포함된다. 즉 서쪽부터 하



동-남해-사천-고성-통영-거제-마산만(창원, 진해)-부산(강서)-김해까지이다. 이를 다시 소지역으로 하동-남해-사천, 고성-마산(진동) 해안, 마산 시가지-창원-진해, 김해지역, 통영과 거제 등으로 묶을 수 있다. 만을 기준으로 보면 남해-하동-사천이 사천만을 공유하고 있고, 고성-마산-창원-진해-부산(강서)-거제-통영(북부)이 내해를 넓게 감싸고 있다. 남해·구 삼천포·통영 서안·거제 동남쪽은 해양에 접해 있다. 경남 일대는 조류가 약하고 기항지가 될 만한 섬이 많아 예로부터 해상교통로로 활용되었음이 여러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섬진강의 동안인 하동에서 낙동강 서안까지를 지리적 범위로 하여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와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Ⅱ. 경남 남해안 지역의 유적 분포 현황

발굴조사와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남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약 1000여개에 이른다. 이중 도서를 포함한 남해안 지역인 하동(33), 남해(32), 사천(52), 고성(86), 통영(22), 거제(99), 마산(34), 창원(51), 진해(10), 김해(71)에 경남 유적의 절반인 490여개소가 분포한다.<sup>1)</sup>

### 1. 하동·남해·사천 지역

#### 1) 하동

하동은 경남의 서쪽 행정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섬진강의 동쪽 내륙지역이자 섬진강 하류와 남해 노랑을 만으로 지니고 있는 해안 지역이기도 하다. 하동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30여 개소로 섬진강 지류인 악양천·횡천강·주교천 유역과 남강 지류인 덕천강 유역에 주로 분포한다. 해안지역인 금남면 금오산 말단부에도 최근에 발굴조사를 통하여 유적이 확인되었다. 수습품으로 횡천리 유경식 석검이 알려져 있다.

---

1) 2010년 기준에 의하면 998개소로 확인되었으며 지표조사로 확인된 것이 대다수이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0, 『경남의 청동기시대 문화』)

## 2) 남해

남해군은 도서지역으로서 30여 개소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알려져 있다. 남해군은 지족 해협을 사이에 두고 남해도와 창선도로 나뉘어져 있다. 남해도에는 충적지가 발달된 고현면, 남해읍, 남면 양지천 일대에 지석묘가 분포하고 창선도에는 창선면사무소 일대 해안가에 유적이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 창선도 당항리에서 묘역식 지석묘가 조사되었다. 장방형의 기단시설, 다중 개석의 석관묘가 조사되어 남해안의 송국리문화 무덤 양식임이 확인되었다. 2호 묘에서 마산진동리·김해신문리 3호묘와 같은 형식의 동검이 출토되었는데 조사자는 석검형동검으로 명명하였다.(삼강문 2021:88)

## 3) 사천

사천시는 사천만을 가운데 두고 동서로 양분되어 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이중 충적지가 발달한 동쪽 해안의 구릉 말단부를 따라 열을 지어 분포한다. 서쪽은 지리산의 여맥이 뻗어 해안으로 연결되면서 동부에 비해 비교적 험준하고 평야가 적다. 때문에 남강의 지류인 완사천 일대 곤명면에만 몇 개소의 유적이 있을 뿐이다. 사천만 동쪽 지역은 북쪽의 진주 지역과 평탄지로 연결되어 있어 육로를 통해 이동이 용이하다. 때문에 사천의 청동기시대 문화는 남강의 문화상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 반면 구 삼천포 지역인 남쪽 해안 지역은 남강 뿐 아니라 도서지역과 연관성을 보인다.

사천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국도 3호선을 따라 분포하는 해안 유적군, 내륙 교통로를 따라 분포하는 내륙 유적으로 나눌 수 있다. 해안 유적군은 다시 북쪽의 구 사천 지역과 구 삼천포 지역으로 구분된다. 구 사천 지역의 중심 유적으로 사천 덕곡리유적이 있으며 구 삼천포지역에는 사천 이금동 유적과 향촌동 유적이 있다. 내륙 유적은 사천과 고성을 오가는 교통로인 사천강 주변에 위치하는 소곡리 유적군으로 확인된 유적 수는 적지만 진주의 남강문물과 동쪽 해안 지역인 고성을 연결하는 루트에 해당하므로 위치상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사천 덕곡리 유적은 해안으로 뻗어내린 구릉의 말단부와 평탄지에 조성되어 있다. 사천 용현유적으로 보고된 구릉지 사면에서는 석관묘군이 확인되었는데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정확한 축조시기를 비정할 수 없지만 구릉을 묘지로 선택하고 관대로 추정되는 깔린 돌과 벽에 기대어 세운 보강석 등이 고성 교사리 유적과 유사한 점이 있어 전기 무덤으로 추정된다. 덕곡리 유적 평지 구간에는 묘역식 지석묘와 묘역 주변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원형의 묘역을 가진 지석묘는 매장주체부 깊이가 얇고 묘역식 무덤 주변의 석곽묘는 매장주체부가 깊은 차이가 있는데 유물은 석곽묘에서만 출토되고 묘역식 무덤에서는 부장품이

출토되지 않았다. 부장유물은 적색마연호, 관옥, 일단병식 석검, 유경식 석촉 등이며 C자 구연의 적색마연단경호를 통해서 남강 유역과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천 이금동 유적은 사천만 외곽의 남해 창선도와 마주보는 구 삼천포 지역이다. 북쪽의 덕곡리 유적과 지형적 단절은 없으나 육지로 깊숙이 들어간 사천만에 비해 해양에 개방되어 있다. 이금동 유적은 해발 50m~60m 사이에 위치하여 해양 조망권이 확보되며 유적과

<표 1> 하동·남해·사천 해안지역 청동기시대 주요유적 발굴조사현황

지역	유적	해발 및 입지	주요유구	주요 유물	조사기관(발간년도)
하동	횡천리 639-2	26.4~29.6m 하천 충적지	방형주거지1	공열토기	한반도문화재연구원(2018)
	금오산	64m 구릉	의례유구2	무문토기, 석기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20)
	횡천리 산 24-1	구릉	석관	유경식석검1, 이단 경석촉1	국립진주박물관(1984-1985)
남해	심천리지석묘	해안 구릉	지석묘3	-	성림문화재연구원(2016)
	당항리지석묘	13m 해안 구릉	묘역 지석묘2 구1, 집석2	석검형동검1	삼강문화재연구원(2021)
사천	덕곡리	30~32m(지석묘) 구릉지, 충적지	묘역식지석묘10	석검, 석촉 외	경남발전연구원(2010)
	이금동	50~60m 구릉	묘역지석묘 주거지 외	비파형동검, 관옥 등 다수	경남고고학연구소(2003)
	소곡리 신월	하천변	묘역지석묘12	무문토기 저부	단국대학교박물관(1988)
	향촌동	10~20m 해안 구릉	석관묘 16	무경식석검, 석제검 파두식	우리문화재연구원(2011)
	월성리	43m 구릉	석개토광묘1	무문토기	우리문화재연구원(2010)
	예수리 산 64	72~88 구릉 정부와 사면	주거지2	석부, 돌칼 등	삼도문화재연구원(2019)

해안 사이에 넓은 충적지가 펼쳐져 있어 취락이 조성되기에 천혜의 입지이다. 대규모 무덤군, 대형의 지상 건물지, 청동유물과 다량의 관옥 부장 등을 통해 이금동 유적이 이 일대의 중심취락임을 상정할 수 있다.

내륙에 위치한 사천 소곡리는 사천 북부지역과 고성을 연결하는 33번 국도 인근에 위치한다. 원형과 방향의 묘역이 조합된 묘역식 지석묘가 확인되어 남강유역과 고성·진동만의 묘역식 무덤과의 연관성을 상정할 수 있게 한다.

## 2. 고성·통영지역

### 1) 고성

고성은 서쪽의 진주와 사천 사이에 곡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동쪽은 해안의 낮은 구릉을 따라 마산 방면으로도 쉽게 오갈 수 있다. 유적은 고성 시가지 주변을 에워싼 구릉 말단부와 당항포를 에워싼 구릉지에 조성되어 있다.

고성지역의 전기 유적은 울대리를 제외하면 모두 무덤유적이다. 무덤은 고성 배둔리·두호리·교사리에서 확인되었다. 무덤은 모두 해안이 조망되는 산록의 마지막 구릉 정상부와 사면부에 입지하는 공통점이 있다. 고성 봉동리 동촌 석관묘에서는 평저호와 원저호 각1점을 별도 부장간에 셋트로 부장하였고 바다를 조망한 구릉부에 단독으로 조성되어 전기 무덤에 포함시켜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들 전기 무덤은 기본적으로 토광묘이다. 벽의 재료로 판석이나 괴석을 사용하나 묘광 벽에 기대어 세우거나 벽석이 서로 이어지지 않아 목관이나 주검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추정된다. 무덤은 일정 간격을 띄우고 설치하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는 것과 나란한 것 모두 확인된다. 부장품은 채문호 2점을 단벽에 부장하는데 부장대를 놓거나 별도의 부장공간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채문호 2점 셋트 부장과 부장공간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영남지방 전기 무덤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중에서도 진주 옥방리 유적 등 남강댐 중류역에서 많이 확인되고, 고성 지역에서는 배둔리·두호리·교사리 등에서 확인된다.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구릉 말단부나 평탄지에 취락이 조성되며, 취락 내에는 송국리형 주거지, 석관묘, 묘역식 지석묘 등이 설치된다. 이 시기의 고성 지역 주요 취락으로 고성 삼덕리 유적과 울대리 산 55번지 유적이 있다. 고성 삼덕리에서는 방형과 원형이 조합된 묘역식 지석묘와 석관묘 등의 무덤이 19기 조사되었다. 인근에 주거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발굴구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원형+방형 묘역의 지석묘는 산청 매촌리·진주 평거동·진주 가호동 등 남강유역과 사천 소곡리 신월유적 등에서 확인된다. 삼덕리 유적 묘역식 무덤에서는 경남 서부지역에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단면 ‘C’자 구연의 단경호가 출토되었는데 매장주체부 내부가 아닌 벽석 사이나 묘광과 벽사이 공간에 매납한 것이 특징이다. 적색마연호를 관내 부장이 아닌 석관 축조 과정이나 관 밀폐 후 공헌하는 풍습은 남강 유역 후기 매장 의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김미영 2016) 또한 고성 삼덕리는 행정구역상으로 고성군에 속하나 동쪽의 낮은 고개를 넘으면 진주 방면과 진동유적으로 갈 수 있는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어 남강 유역의 문물이 쉽게 유입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리적 이유로 삼덕리에서 남강 중상류의 표지적인 적색마연호인 단면 C’자 구연의 단경호가 출토되고 취급 방법 또한 남강 유역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성군의 북쪽에 삼덕리 유적이 있다면 남쪽에는 고성 울대리 산 55번지 유적이 있다. 울대리 산 55번지 유적은 주거지 21동, 무덤 21기, 환호가 확인되어 비교적 규모가 있는 취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거지는 송국리형 주거지 중에서도 평면 방형의 대평리식과 원형의 옹기리식, 중앙 작업공과 중심 기둥을 보조 기둥이 둘러싸는 이금동식 주거지가 모

두 나타난다. 석관묘가 대부분이며 적색마연호, 마제석검, 관옥과 천하석 옥이 한두 점 부장되기는 하나 대부분 부장품이 빈약한 편이며 고성 삼덕리 유적과 같은 매장 의례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두 유적이 고성군 내에서 주요 거점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나 유구·유물 양상이 달라서 취락의 형성과정에 미친 물자의 이동과 교류 양상이 같지 않았던 것 같다.

## 2) 통영

통영은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부 지역은 고성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20여개소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며 대체로 북부지역과 미륵도에 집중해 있다. 대표적으로 통영 법송리와 남평리 유적이 있다. 통영 법송리 유적은 행정적으로 통영시에 속하나 고성만 연안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으로는 고성에 가깝다. 법송리 유적은 고성만 남쪽 연안의 독립된 작은 구릉에 위치한다. 구릉 사면에 송국리형 주거지 1동, 석관묘 2기, 고상 건물지 1동, 함정 1기가 조사되었다. 통영 남평리유적은 미륵도 서안 중앙부 곡간지에 위치한다. 대규모 묘역식 무덤군과 함께 다량의 관옥이 출토되어 주목되는데, 관옥을 이용한 매장 의례와 다량의 관옥 부장은 사천 이금동과 유사하다.

# 3. 창원지역

## 1) 마산지역

마산 도심지는 창원 방면으로 깊숙이 형성된 내만의 서쪽에 형성되어 있으며 산지와 해안선 사이에 충적지가 거의 없어 현재까지 지식묘를 비롯한 청동기시대 유적이 분포하지 않는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만 외곽의 해안 지역인 마산 현동 유적군, 마산 진동리와 망곡리 유적군, 마산 오서리와 곡안리 유적군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3개의 유적군은 모두 만을 끼고 있는 충적지에 위치하고 내륙인 함안과 진주를 오가는 교통로에 입지하는 지리적 특징이 있다. 진동리와 망곡리 일대는 대규모 묘역식 지식묘 및 석관묘군, 주거지가 확인되어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취락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동리 일대의 석관묘군은 망곡리 배후의 함안 봉성리 석관묘군과의 연관성이 간취된다.

진전 오서리와 곡안리 일대는 석관묘 몇 기가 확인되었지만 고성-마산(진동)-진주 세 지역을 연결하는 분기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지리적 의미가 있다. 현동유적은 동쪽에 마산 도심과 인접해 있으나 마산시가지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이 확인되지 않아 교류의 동쪽 귀착지였을 것이다. 현동에서 쌀재를 넘어 광려천 유역(창녕 방면)으로 넘어갈 수는 있으

<표 2> 고성·통영 해안지역 청동기시대 주요유적 발굴조사현황

지역	유적	해발 및 입지	주요유구	중요유물	조사기관(발간년도)
고성	봉동리 동촌	24m/구릉 사면	석관1	적색마연호	부경문화연구원(2016)
	두호리	45m/구릉 사면	토광1,석관2	채문토기	경남고고학연구소(2000)
	교사리	34~36m 구릉 사면	석관2	채문토기	경남문화재연구원(2003)
	배둔리	25~38m 구릉 정상부,사면	석관8	채문토기, 이단 병식석검석촉	서울문화유산연구원(2020)
	삼덕리	30m 평탄지	묘역식지석묘 등 무덤 19	적색마연호	한울문화재연구원(2018)
	무선리	97m 평탄지	송국리형주거지4	무문토기	경남문화재연구원(2005)
	울대리 산 55	21~38m 구릉 사면	주거지21, 무덤19, 묘역 식지석묘2, 환호1	적색마연호 마제석검, 관옥 천하석옥	경상문화재연구원(2017)
	신용리	36~48m 구릉 말단부	원형주거지2, 석관4	석검, 석촉	동서문화연구원(2009)
	덕호리	9m 하안 총적대지	주거지1, 석곽묘10, 토 광묘1	석검병부	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 (2016)
통영	법송리	15~35m 구릉 사면부	석관묘2, 주거지1	무문토기	한국문화연구원(2019)
	남평리	31~33m 구릉 말단부	묘역지석묘 및 석곽묘 15	적색마연호 석 검, 관옥	동서문화연구원(2009)

나 광려천 상류 곡이 깊고 무학산의 지맥을 넘어야 하므로 크게 선호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 2) 창원지역

구 창원시는 창원분지와 북쪽의 주남저수지 일대를 포함하나 해안지역은 창원분지가 해당된다. 창원 봉림동 유적, 상남동 지석묘군, 가음정동 유적 일원은 창원 분지를 에워싼 산록 말단부나 분지 내 저평한 구릉에 입지해 있으나 고 마산만이 내륙으로 깊게 들어가 있어 청동기시대에는 바다와 멀지 않은 지역이다. 창원 봉림동에서 묘역식 지석묘와 원형의 송국리식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상남지석묘의 하부구조는 동읍 일대의 덕천리나 봉산리와 흡사하여 상호간에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가음정동 유적에서는 석관묘 2기가 조사되었다.

### 3) 진해지역

진해는 청동기시대 유적이 10개소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진해지역 배후에 800m 내외의 고봉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남쪽은 바다와 접해 있어 육로를 통한 교류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진해 시가지인 석동·자은동 일대에서 평면 장방형의 전기 취락과 송국리형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진해 동부지역인 진해 마천과 두동 일대에서는 장

<표 3> 마산·창원·진해 해안지역 청동기시대 주요유적 발굴조사현황

지역	유적	해발 및 입지	주요유구	중요유물	조사기관(발간년도)
마산	진동	4~6m 강변 충적지	묘역지석묘4 석관묘45	석검, 석촉, 적색 마연호	경남발전연구원(2008)
	망곡	20~32 곡간 평탄지	주구묘, 묘역지석묘, 석관묘, 주거지	석검, 적색마연호	경남발전연구원(2009) 우리문화재연구원(2010)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8)
	현동	18~34m 구릉 사면 및 말단부	묘역지석묘, 석관묘, 주거지	석검, 적색마연호	동서문물연구원(2012)
	오서리	22~26m 구릉 말단부 및 평탄 지	석관묘	적색마연호	서울문화유산연구원(2020)
창원	봉림동	14~30m 구릉 말단부	묘역지석묘3 주거지2	마제석검, 석촉, 적색마연호	한국문물연구원(2011)
진해	석동 산10-24 (귀곡-행암 간)	95~100m 구릉 사면부	장방형주거지3 송국리주거지2	어망추	홍익문화재연구원(2020)
	자은동	35~50m 구릉 사면부	세장방형주거지 등 22기 석관묘1	흔암리식토기 채문호	극동문화재연구원(2020)
	두동	45~50m 구릉 사면부	주거지(방형, 송국리 형)12	석도 무문토기	삼강문화재연구원(2019)

방형 주거지, 송국리형 주거지, 석관묘 등이 조사되었으나 조사된 범위에 비해서 유구밀도가 낮아 소취락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은동 유적에서 전기의 세장방형 주거지 14동이 조사되어 청동기시대 전기의 중심취락은 자은동 일대로 추정된다. 자은동 서쪽의 창원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인 석동 산10-24번지에서도 송국리형 주거지와 장방형 주거지가 조사되어 석동에서 자은동 사이에 청동기시대 전기와 후기의 취락이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4. 거제지역

거제도는 섬이지만 개체수로만 보면 경남 해안 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거제도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100여 개소에 이르며 해안선을 따라 끊임없이 연결되어 분포하고 있다. 이중 북쪽의 농소<sup>2)</sup>, 대금리<sup>3)</sup>, 하청리<sup>4)</sup> 일대와 서쪽 해안인 오비리 일원, 동쪽 해안지역인 덕포동, 아주동, 지세포리 유적 등이 발굴조사를 통해 그 성격이 밝혀졌다.

주거지는 대금리와 덕포동, 지세포리에서 확인되었는데 원형의 송국리형 주거지가 주를 이룬다. 송국리식 주거지 중에서도 중앙의 작업공과 중심 주혈 주위로 소주혈이 원형으로 배치된 이금동식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무덤은 석축형 석관의 지석묘와 석관묘가 많으며 농소리, 대금리, 오비리에서 묘역식 지석묘가 확인되었다. 석축형 석관의 경우 깊은 토광과 다중개석 구조를 가진 것이 많으며 적색마연호를 관 내부가 아닌 벽석과 묘광 혹은 벽석과 벽석 사이에 매납하는 특징이 있다.

부장된 적색마연호는 함안-의령 등 남강하류 지역에서 출현한 경부내경호가 많으며 덕포에서 외반구연호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아주동유적 출토품처럼 전형을 벗어난 형식이 많은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배진성 2008:276-277) 하청리 유적이나 농소 출토품처럼 전형에 가까운 것도 있어 거제도 안에서도 문물이 유입되는 경로가 단편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목리에서는 거제도 내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는 유절식 석검이

<표 4> 거제지역 청동기시대 주요유적 발굴조사현황

권역	유적	해발 및 입지	주요유구	중요유물	조사기관(발간년도)
거제	농소	5m 평탄지	묘역지석묘1	경부내경호	경남고고학연구소(2007)
	대금리	4~50m 구릉사면	지석묘10 송국리주거지7	경부내경호	경남고고학연구소(2009)
	하청리	9~11m 구릉사면	석관13	유절병 석검, 경부내경호	우리문화재연구원(2019)
	오비리	9.5~11m 구릉 사면	묘역지석묘1, 지석묘3, 석관6	경부내경호	우리문화재연구원(2013)
	덕포	29~30m 구릉 말단부	송국리주거지4	외반구연호	동아문화재연구원(2008)
	아주동	13~17m 구릉 사면	지석묘16	관옥, 유경식석검, 경부내경호	동아대학교박물관(1998)
	지세포리	17~18m 해안 평탄지	송국리주거지3 방형주거지2 고상건물지1	석부, 방추차	한반도문화재연구원(2017)

- 2) 경남고고학연구소, 2007, 『巨濟 農所 遺蹟』
- 3) 경남고고학연구소, 2009, 『巨濟 大錦里 遺蹟』
- 4) 우리문화재연구원, 2018, 『거제 하청리 유적』



출토되었는데 이 또한 거제도와 주변 지역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 5. 김해지역

발굴조사와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김해시 관내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2010년 기준<sup>5)</sup>으로 약 70여 개소였으며 새로 조사된 유적을 합치면 최소 80여개소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해시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1)김해 시내, 2)주촌면, 3)구 장유면 일대, 4)진례면, 5)진영읍·한림면, 6)대동면의 6개 권역에 나누어 분포하며 고 김해만을 해안선으로 설정하면 구 장유면-주촌면-김해시내-대동면이 해안 지역이 된다.

김해시내 유적은 대체로 해반천의 양안으로 뺨어 내린 구릉 사면부에 조성되어 있다. 해발 263m 이상인 어방동 무문시대 취락부터 과거 고김해만 연안에 해당하는 부원동이나 회현리패총 유적까지 입지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주촌면 지역은 조만강을 따라 북쪽 산지로 올라가면 조만강과 원지천이 ‘Y’자로 갈라지는데 이 두 하천의 양안에 층적지가 발달해 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조만강으로 뺨어 내려오는 구릉의 말단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석묘와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구 장유지역에는 김해시 관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청동기시대 마을 유적인 율하리 유적이 있다. 율하 1지구에서는 저지대에 대규모의 묘역식 지석묘군이 구릉 사면부에 송국리

<표 5> 김해 해안지역 주요 유적 발굴조사현황

권역	유적	해발 및 입지	주요유구	중요유물	조사기관(발간년도)
구 장 유 면	율하리	18m 구릉 사면	토광묘 1 석관묘 4 지석묘 1	적색마연호	두류문화연구원(2015)
	삼문리 능동	43~45m	주거지	유구석부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8)
	대청	51~54m 구릉 사면	주거지	원형점토대토기	부산대박물관(2002)
	무계리 지석묘	약 8m 저지	지석묘 1	석검·석촉 동촉	가야고고학논총(1992)
	율하리1	8~44m 저지~구릉사면	무덤 106 주거지 51	적색마연호·석촉석검	경남발전연구원(2009)
	장유리	31~35m 구릉 사면	석관묘 5 토광 묘 1	적색마연호 석촉	경남발전연구원(2011)

5)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0, 『경남의 청동기시대문화』

주촌면	주촌 덕암리	18~19m	지석묘 3	적색마연호	두류문화연구원(2017)
	연지 지석묘	11.8m 구릉 말단	지석묘 1	마제형청동기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2)
	선지리	20~23.5m 구릉 사면	주거지 3	구순각목토기	경남문화재연구원(2017)
김해시내	여방동 취락	263~278m 산정	주거지 28	무문토기, 석검	삼강문화재연구원(2006)
	여방동 분산	269m 산정	주거지 1	석촉	한국문물연구원(2009)
	화정	29.5~30.5m	집석유구 1	무문토기	북천박물관(2004)
	외동 779	60.5m 구릉사면	석관묘 2	적색마연호	해동문화재연구원(2012)
	내동지석묘	20m 구릉 말단	지석묘 3	적색마연호 세형동검	부산대·동아대·동의대(1976)
	내동 산 4-14번지	38~40m 구릉 사면	지석묘 1	적색마연호 석검·석촉	강산문화재연구원(2017)
	구산동 96번지	13~14m 구릉 말단	논·배수로		경상문화재연구원(2015)
	구산동	10~45m 저지~구릉 사면	주거지 91, 무덤 12	야요이토기	삼강문화재연구원(2010)
	구산동	46~60m 구릉 사면	주거지 18	송국리식 토기 원형점 토대토기	동의대학교박물관(2003)
	대성동 지석묘	20m 구릉 정부	지석묘 1 석관 묘 1	적색마연호·석촉	대성동고분박물관(2016)
	대성동 402-1	7.5~8m	구( )	무문토기	동서문물연구원(2018)
	대성동 91-8	8~10m	주거지 환호 외	무문토기	동양문물연구원(2015)
	대성동 85-8	8~9m	환호	무문토기	경남문화재연구원(2017)
	부원동	8m	토광묘 1	적색마연호·석촉	동아대학교박물관(1981)
	회현리 패총	9.6~10.3m	토광묘 1	적색마연호·석촉	부산대학교박물관(2002)
대동면	대감리 감내	45~65m 구릉사면	주거지11 석관묘12	적색마연호 석촉	한겨레문화재연구원(2012)
	대감리 산 24번지	48~56m 구릉사면	석관묘4	적색마연호·석검 석촉	세종문화재연구원(2017)

형 주거지가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전체 취락의 경관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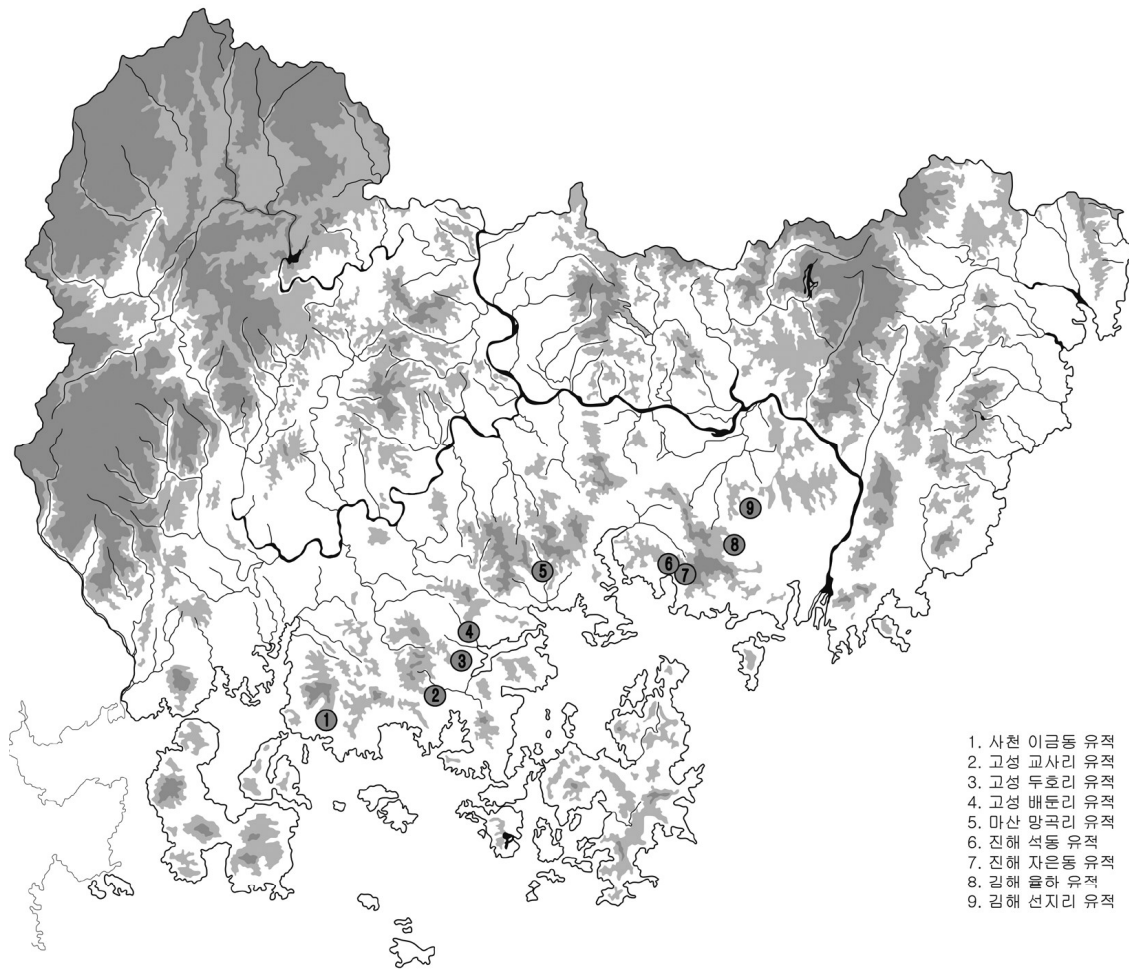
대동면은 낙동강의 서안 지역으로 산지와 강 사이의 충적지가 넓지 않아 김해 서남부 지역에 비해 유적의 수가 적다. 지금은 낙동강 제방으로 인해 제내지가 많이 확보되어 평야가 넓어졌지만 그 이전에는 바닷물의 영향으로 인해 대동면 일대의 평야부가 매우 협소했을 것이다. 실제로 대동면에서 발굴조사된 유적들은 모두 해발 45m 이상의 산사면에 집중되어 있다.

### Ⅲ. 경남 남해안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 특징

#### 1. 전기 무덤과 채문토기의 분포

경남 남해안 지역의 전기 유적은 사천 이금동부터 김해 지역까지 확인되나 무덤 유적이 많고 진해 자은동과 김해 율하 유적 등에서는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경남 해안 지역의 전기 무덤의 입지적 특징은 구릉 정상부나 사면에 위치하며 평지에 조성되더라도 바다가 전망되는 위치를 선호(망곡리 경문10호, 우리 31-31호 토광묘)한 것을 알 수 있다. 남해안 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 유구와 유물은 채문토기, 혼암리식 토기와 장방형 주거지 등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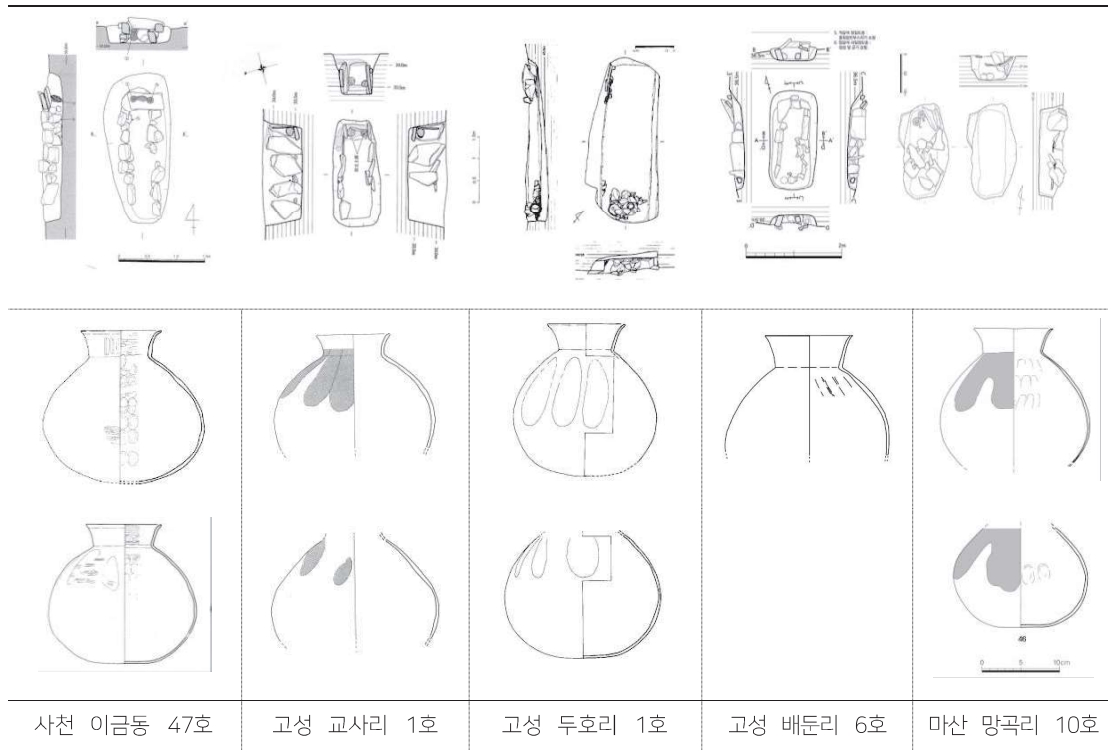
남부지방 초현기의 채문토기는 적색마연이 되지 않은 갈색 바탕에 가지문이 시문된 것



<도 1> 남해안 지역 전기 유적 분포도 \* 경남 내륙지역은 표시되지 않음

이고 형태적으로는 경부가 사선으로 직립하고 동체와의 경계가 뚜렷하여 경부를 별도로 부착한 느낌을 준다. 기벽의 두께도 적색마연호에 비해서 대체로 얇고 가볍다. 고성 두호리 1호묘 출토품은 두께가 2.5~3mm로 매우 얇고 가볍다고 보고서에 특별히 기술되어 있다. 무덤에서는 2점이 셋트로 부장되며 격벽 시설을 하거나 단벽 쪽에 안정되게 놓아 매장이 끝나도 넘어지거나 파손되지 않게 한 의도가 보인다. 공반유물은 담청색의 천하석 옥이 1~2점 부장되는 것 외에 다른 유물은 없다. 무덤의 구조는 토광묘가 많으며 석재는 개석과 주검 혹은 목관을 고정하거나 보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초현기 채문토기 부장 무덤은 바다가 조망되는 해안 구릉상에 입지하고 10기 이내로 수가 적으며 무덤 간에 간격을 두고 조성되는 특징이 있다.

남강유역 등 경남 내륙의 청동기시대 무덤에서도 많은 채문토기가 출토되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양단에 부장(울하A-14호)하거나 석검과 공반(진주 옥방 8-3,5호)하거나 1점만 부장되는(이곡리 33호) 등 초현기와 양상이 다르며 시기도 조금 늦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송국리문화가 본격화하기 이전에 많이 나타나며 남강유역에서는 하촌리식 주거지(김병섭 2011)와 대평리식(유병록 2010) 주거지 단계에 해당한다. 송국리문화가 본격화하는 단계에는 적색마연호에 채문 시문기법만 선택되어 채문토기 전통이 유지되는데 그 양상은 지역과 기종별로 차이가 있다.(송영진 2015:23-25)



<도 2> 채문토기 초현기의 묘제와 부장

이처럼 고성지역에서 전형적인 셋트부장을 고수하고 토광묘 형식이 많은 것을 볼 때 경남지방의 채문토기는 고성 해안에서 먼저 출현하여 남강유역으로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남강유역에서 채문토기의 초현기 속성인 얇은 기벽과 사선의 경부를 가진 호가 적고 셋트 부장이 일반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성 해안에서 남강유역으로 확산된 이후 형식이 변화되거나 적색마연호와 융합된 형태로 정착된 후 다시 해안지역으로 역확산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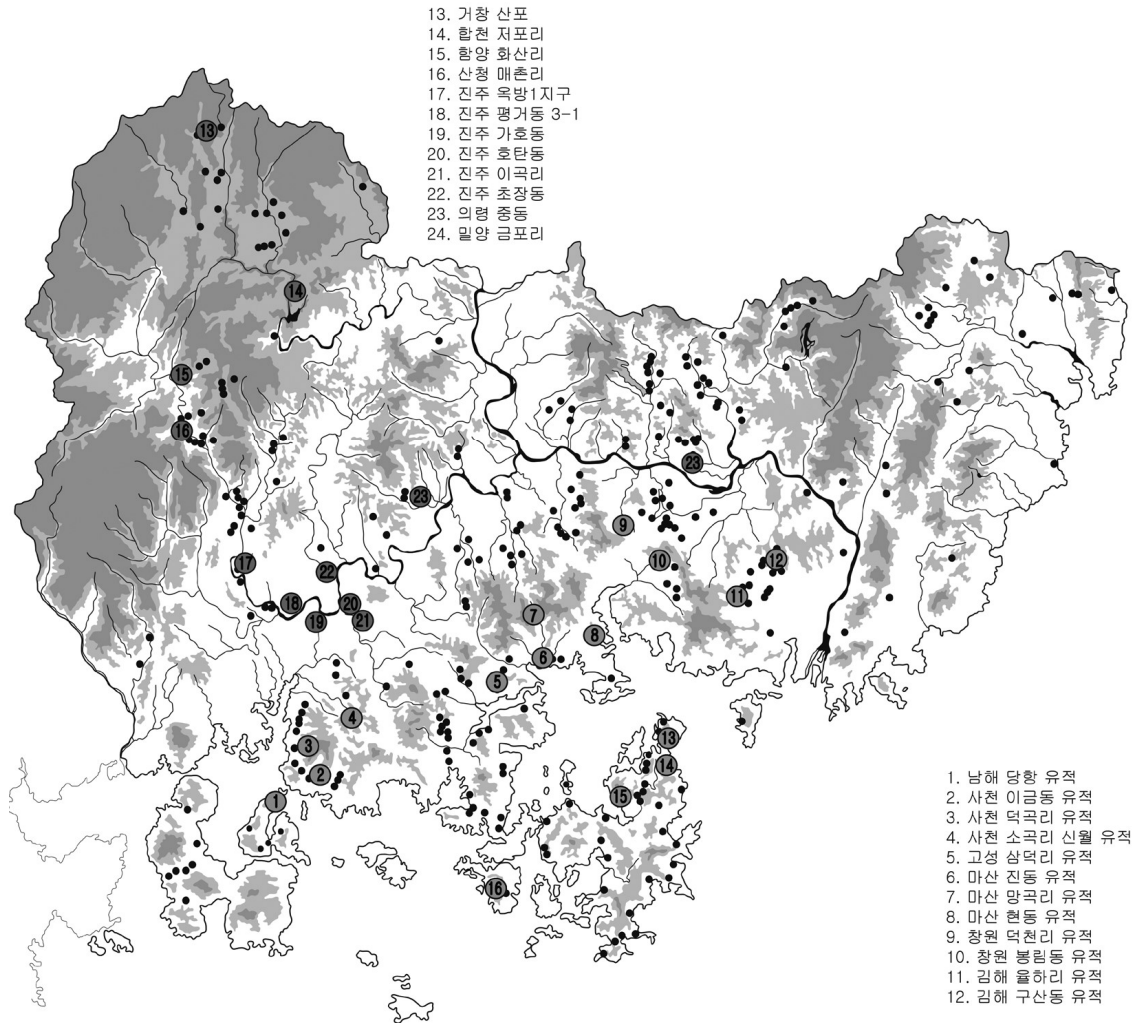
## 2. 묘역 지식묘와 송국리형 주거지의 확산

경남 남해안 지역의 후기 유구는 송국리형 주거지와 묘역 지식묘로 대표된다. 평탄한 구릉지나 충적지에 취락이 조성되고 묘역과 주거구역이 구분된다. 대규모 해안 유적으로 추정되는 마산 진동 유적처럼 주거지와 무덤이 한 영역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구릉지 취락-평탄지 무덤군 배치가 확인된 김해 울하 유적을 통해서 전체 취락의 규모를 유추할 수 있다. 유물에서는 토기의 구연부 문양이 사라지고 무문화되며 삼각형석도와 유구석부가 출현하는 등 남한지방 송국리문화 물질문화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아래에서는 묘역 지식묘군의 분포와 송국리식 주거지 분포를 통해 경남 남해안 지역 후기 청동기 시대 문화의 일면을 살펴보겠다.

### 1) 묘역 지식묘의 분포와 확산

경남 지역의 묘역지식묘는 크게 남강유역과 남해안 지역에 집중해서 분포한다. 남강유역은 진주시가 가장 많고 상류인 경호강 유역과 하류인 의령 지역까지 확인된다. 남해안은 사천만, 도서지역인 거제와 남해, 고성-마산 연안, 김해 지역까지 해안을 따라 분포한다. 다호리 고분군이 있는 주남저수지 일대에는 창원 덕천리 유적과 봉산리 유적 등 대규모의 지식묘가 분포하고 있다. 묘역 지식묘는 남해군을 경계로 서쪽 해안지역에는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비파형동검과 같은 희귀재 대신 지식묘의 규모를 거대화하여 집단의 우위를 표출하는 성향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윤호필 2000:75)

경남지역의 묘역 지식묘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방형의 묘역에 이단병식 석검과 이단병석촉·삼각형 석촉, 채문토기, 전기 속성을 가진 구경부 직립의 적색마연호 등을 부장하여 유물상에서 전기의 요소가 많이 나타난다. 2단계는 경남 전역에서 원형과 방형의 묘역이 함께 조성된다. 이단 굴광의 깊은 매장주체부가 많으며 일단병석검, 일단 경석촉, 구경부 직립의 적색마연호가 출토되어 1단계와 차이를 보인다. 3단계는 창원 덕



<도 3> 경남지역의 지식묘(이성주 1999; 경남발전연구원 2010) 및 남해안 지역 묘역지식묘 분포(우명하 2012:23; 윤성현 2013:10) 수정 인용

천리, 사천 이금동 등 2단계까지 간헐적으로 보이던 지상식의 매장주체부가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며 다단의 깊은 지하식 묘곽이 유행한다.(윤성현 2013:41-51) 이 단계의 적색마연호는 경부내경호와 경부외반호<sup>6)</sup>로 대별되며 뚜렷한 지역성을 발현한다.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출현하는 경부내경호는 부장전용으로 관내나 관외에 안정된 자세로 부장하나, 경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출토하는 경부외반호는 부장보다는 벽석 축조 과정이나 완료 후에 의례용으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김미영 2011) 이러한 동서의 구분은 해안지역에서도 나타난다. 즉, 진주에 인접한 이금동 유적에서는 서부지역(남강)의 경부외반호만 출토되며 부장용으로는 거의 출토하지 않는다. 반면 경남 동부지역인 김해와 거제 지역은

6) 경부 단면이 'C'자에 가까워 목이 없이 몸체에서 바로 구연으로 연결되는 소용에 가깝다.

경부내경호 부장이 우세하다.

3단계의 지식묘는 대규모 노동력의 동원 없이는 축조할 수 없는 독보적인 크기의 묘역이나 상석 등이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김해 구산동 고인돌은 묘역 뿐 아니라 상석의 크기에서 다른 묘역지석묘보다 탁월한데 특히 상석은 당시의 기술로는 옮기기 어려운 크기여서 축조과정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의 발굴조사에서 2010년 당시 조사단의 판단대로 지식묘 상석 아래 매장주체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sup>7)</sup> 매장시설은 토광묘이며 내부에 삼각형 점토대토기 단계의 옹과 연질의 고배가 출토되어 창원 덕천리나 김해 구산동 같은 대형의 묘역지석묘가 점토대토기단계까지 내려올 것이라는(이상길 2006; 최종규:2010) 견해가 사실로 증명하였다. 이상의 경남지역 묘역 지식묘는 남강유역에서 시작해서 동쪽의 낙동강하류와 남해 도서지역(통영, 거제)으로 확산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윤성현 2013:62)

## 2) 이금동식 주거지의 분포

경남의 송국리식 주거지는 원형의 오곡리식, 방형의 대평리식으로 대별되며 이중 오곡리식의 변형된 형태로서 이금동식(이종철 2015) 주거지가 있다. 이금동식 주거지는 중앙수혈과 주주혈 주변에 보조주혈이 원형으로 배치되는 형식인데 이금동에서 먼저 확인되어 이금동식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 형식의 주거지는 사천 이금동, 고성 무선리, 통영 법송리, 마산 망곡리, 거제 대금리, 거제 덕포동, 거제 지세포리, 김해 울하리 등 경남 남해안을 따라 분포하는 특징이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검출되는 예가 드물고 남해 연안과 경남 도서지역에서만 확인되어 해안을 따라 분포 벨트가 형성된다. 해안 취락 간의 교류가 긴밀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 3. 관옥 부장으로 본 해양 취락의 상징

최근 남해 창선도 당항리에서 남해군 최초로 묘역지석묘가 발굴되어 주목된다. 지식묘는 방형의 묘역을 가진 판석조립 석관묘이며 벽석과 보강석 틈에서 석검형동검<sup>8)</sup>이 3개로 분리된 채로 출토되었다. 석관 안에서는 적색마연소호와 보습으로 보이는 석기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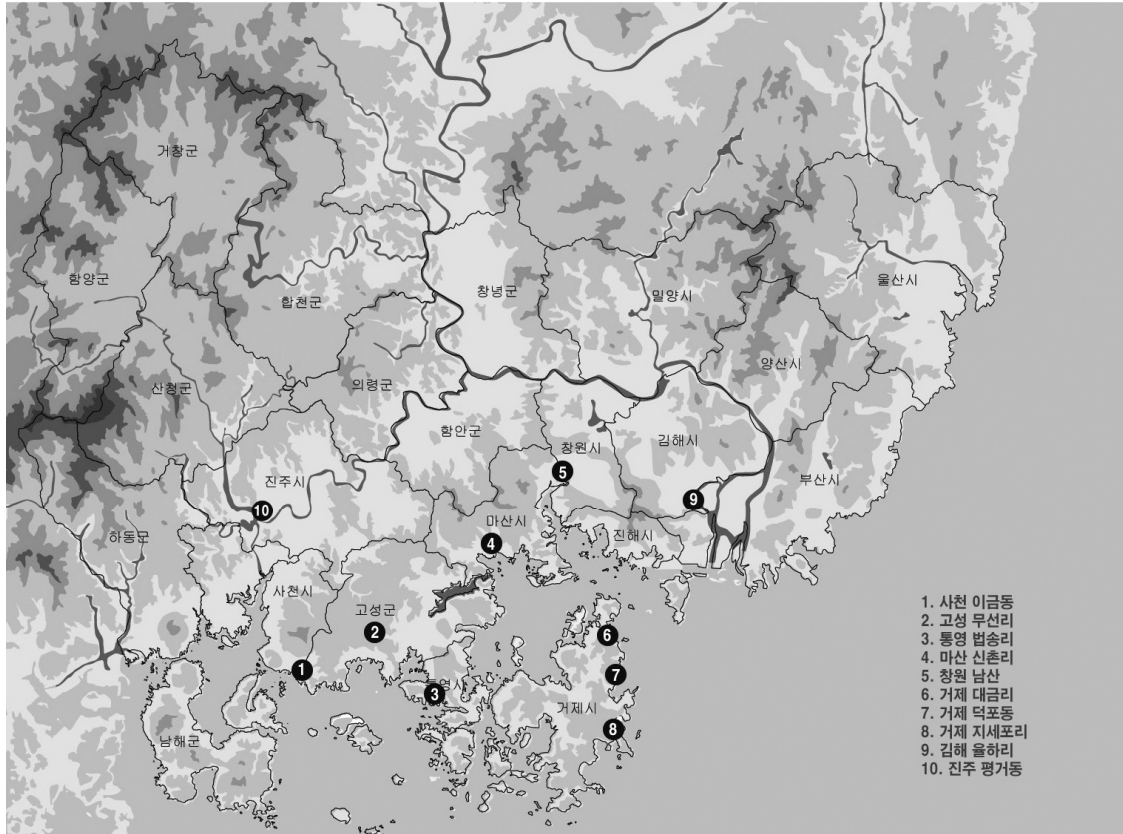
---

7) 삼강문화재연구원, 2021, 「김해 구산동 지식묘(도기념물 제280호) 정비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8) 조사자는 마산 진동리 동검과 같은 형식의 이 동검을 석검형동검으로 명명하였다.

창선도 당항리 조사를 계기로 남해 연안지역과 도서지역의 묘역식 지석묘 축조 집단의 해양네트워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당항리 유적 조사자는 당항리 유적 동검을 석검형동검으로 명명하고 같은 형식의 동검이 출토된 남해 당항리-사천 이금동-마산 진동리-김해 신문리 간의 네트워크에 의미를 부여하였다.(최종규 2021:91). 해안-도서군으로 네트워크가 확장될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해상 네트워크에 착안해서 볼 때 남해안과 도서지역 유적 중 사천 이금동과 통영 남평리



<도 4> 경남 해안지역 송국리형-이금동식 주거지 분포도

가 주변의 해안 유적과 차별적이어서 주목된다. 사천 이금동과 통영 남평리는 관옥이 다량으로 출토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진주 대평리, 여수반도 일원, 거제 아주동 등 남해안 일대에서도 관옥이 출토되기는 하나 모두 10점 이내로 적다. 사천 이금동에서는 한 무덤(C-9호)에서만 200점이 넘는 관옥이 출토되었으며 적게는 20점에서 50점이 넘는 무덤도 있다. 통영 남평리 8호묘에서는 관옥 64점이 목걸이 형태로 출토되었고 2호묘에서는 20점의 관옥이 시상 위에 흩뿌려져 있었다. 관옥을 목걸이로 꿰어서 부장한 것은 창원 덕천리 2호와 유사하고 시상 위에 흩뿌린 의례행위는 이금동과 같다. 이 두 지역은 사천, 고성-마산, 거제의 서안 등이 내만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외해에 가깝다. 이러



한 지리적 조건은 이 두 유적이 해양교류와 관련이 깊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금동과 마주하고 있는 사천 늑도에서 확인된 한중일 해양교류의 흔적은 사천 이금동과 통영 남평리의 해양적 성격을 유추하는데 비교 자료가 된다. 관옥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남강 상류의 천하석제 옥 생산과 소비 네트워크와는 다른 생산과 유통체계가 이금동 유적을 중심으로 존재했을 것이라는 견해(고민정 2016:20)는 이들 성격을 규정하는데 참고가 된다. 또한 초기철기시대 유적인 고성 송천리 솔섬 석관묘와 사천 늑도 등에서 한반도에서 유래가 드문 崖墓<sup>9)</sup>가 확인되는 현상은 경남 남해안 도서와 연안지역이 해양 교류와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 4. 경남 남해안 해안 취락과 주변 취락과의 관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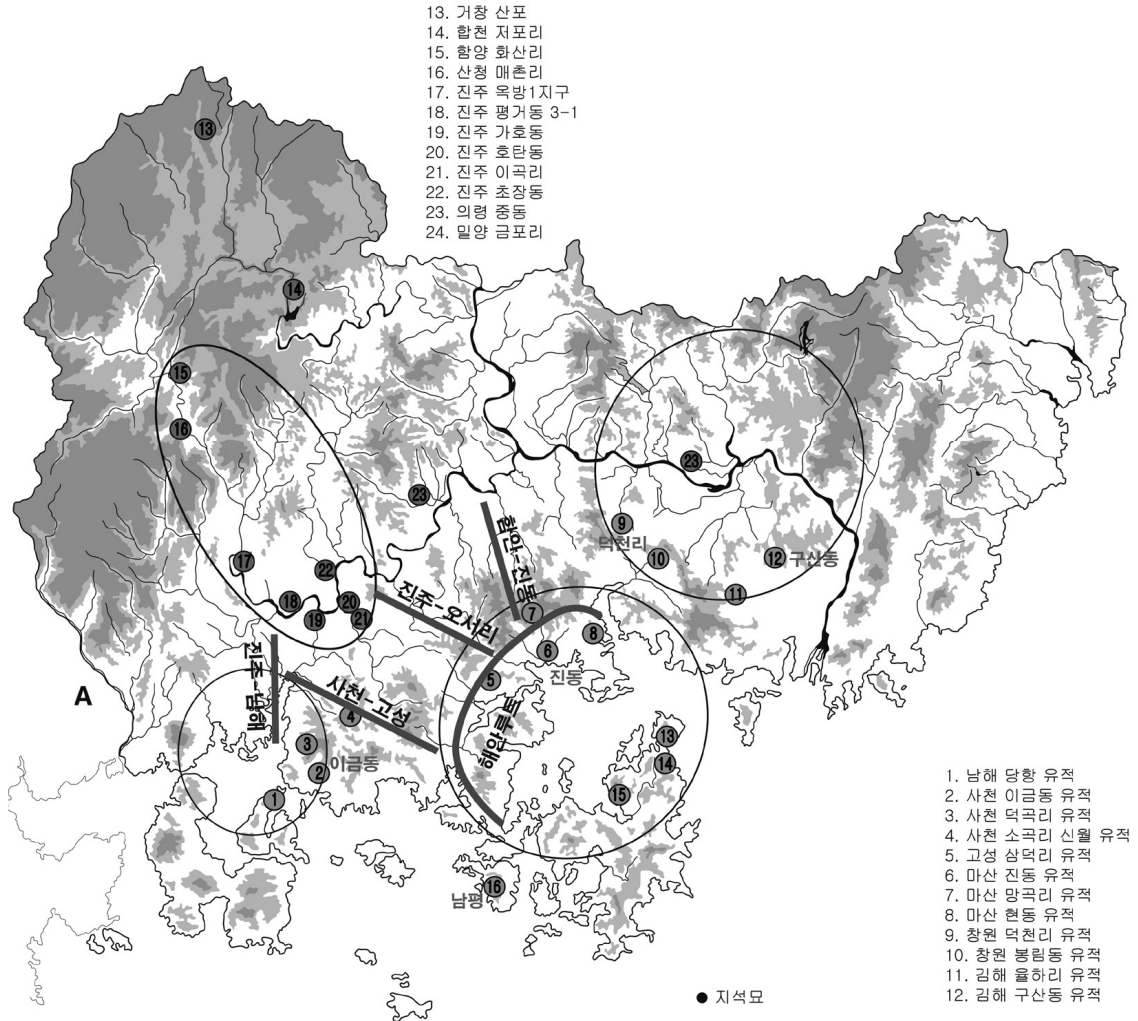
경남 남해안 지역과 내륙과의 관계망은 고대 교통로를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지식묘가 고대 교통로를 따라 배치되는 특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김춘영 2005) 지금의 국도가 대체로 고대 교통로와 일치한다.

남강유역과 사천·남해지역은 지금의 3번 국도를 따라 교류했을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실제로 3번 국도를 따라 지식묘가 열지어 있다. 이 교통로는 사천 이금동 유적에 이르면 높은 산에 의해 단절되는데 동쪽의 고성 지역으로 가려면 비교적 험한 산을 넘어야 하므로 귀착지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주와 고성지역의 교류는 소곡리 신월유적이 있는 사천강을 통하는 방법, 문산에서 영오천을 따라 배둔으로 가는 방법, 2번 국도를 따라 오서리로 넘어가는 루트를 통했을 것이다.

진동 유적에서는 망곡리를 넘어 함안 지역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다. 봉성리 유적에서는 외반구연호와 경부내경호가 함께 출토되어 함안 지역이 동서 문화의 결절지임을 보여준다. 진동 유적의 석관묘에 부장된 토기는 대부분 경부내경호인데 함안 봉성리 유적을 경유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성과 마산 간에는 14번 국도가 해안선을 따라 비교적 평탄하게 나 있으므로 청동기시대에도 어렵지 않게 오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교통로는 마산 현동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보이는데 이는 마산 시가지에 더 이상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원의 봉림동과 상남동 지식묘군은 마산 현동과의 교류가 아니라 창원 덕천리 유적군과 관계망이 더 긴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남동 지식묘의 하부구조가 창원 덕천리 및 봉산리와 매우 흡사한 것을 통해서도 이러한 추정은 설득력이 있다. 창원 덕천리·봉산리 유적은 고대산만에 속하는 지

9) 崔鍾圭. 2006. 「勒島遺跡의 橋造」, 『勒島貝塚V-考慕編-』, 경남고고학연구소. pp 109-112.

역으로 습지환경이었던 서쪽의 함안보다는 낙동강 수로를 이용하여 김해나 해양으로 진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동희 2021) 즉, 덕천리 일대와 창원분지는 서쪽의 마산과 함안보다는 동쪽의 김해지역과 더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 5> 경남 해안지역과 주변지역과의 관계망

## IV. 맺음말

이상으로 경남 남해안 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와 몇 가지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남 해안지역에서 조기 취락이 확인되지 않아 전기 유적부터 대상에 넣었으며 무덤에서 전기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 무덤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경남 해안과 도서 지역의 청동기시대 후기의 특징이 묘역식 지식묘와 송국리형 주거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이 유구를 중심으로 분포상황을 살폈다. 다른 지역과 차별적으로 관옥이 다량으로 출토되는 사천 이금동 유적과 통영 남평리 유적은 외해에 입지하는 관계로 해양 교류를 통해 성장한 집단으로 상정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유적의 지리적 입지와 유적 분포상황으로 유적군을 설정하였으며 고대 교통로와 지형 지리를 통해 유적군들의 관계망을 설정해 보았다.

경남 남부지역은 북쪽에 남강과 낙동강이 합류하여 넓은 습지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동쪽과 서쪽이 지리적으로 단절된다. 사천-함안-마산은 해안을 따라 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산맥 사이의 협곡이나 하천을 통해 내륙지역과 해양지역을 연결한다.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청동기시대의 내륙과 해안간 교류는 고대 교통로를 이용했을 것이며 외해에 접한 이금동이나 통영 남평리는 내륙보다 해양 세력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0, 『경남의 청동기시대문화』.
- 고민정, 2016, 「청동기시대 남강유역 옥 장신구의 생산과 소비체계」, 『경남연구』11, 경남연구원.
- 김미영, 2016, 「남강유역 청동기시대후기 적색마연토기의 사용형태 분석」, 『경남연구』 11, 경남연구원.
- 김병섭, 2011, 「남강유역 하촌리형 주거지에 대한 일고찰」, 『경남연구』4, 경남연구원.
- 김춘영, 2005, 「지석묘 분포를 통해 본 고대의 교통로-함안지역을 중심으로-」, 『함안 봉성리 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배진성, 2008, 「함안식적색마연호의 분석」, 『한국민족문화』3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송영진, 2015, 「경남 해안지역 마연토기의 전개」, 『중앙고고연구』16, 중앙문화재연구원.
- 우명하, 2012, 「영남지역 묘역지석묘의 전개」,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병록, 2010, 「경상 남해안 송국리문화의 특징과 교류」, 『한국청동기학보』6, 한국청동기학회.
- 윤성현, 2013, 「경남지역 묘역식 지석묘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호필, 2000, 동검묘와 그 피장자의 성격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희, 2021, 「고 대산만 지석묘 사회와 다호리 집단」, 호남고고학보67, 호남고고학회.
- 이상길, 2006, 「구획묘와 그 사회」, 『금강: 송국리형 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남고고학회 · 호서고고학회.
- 이종철, 2015, 「송국리형문화의 취락체제와 발전」,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종규, 2010, 「구산동유적A2-1호 지석묘에서의 聯想」, 『김해 구산동 유적X-고찰편』, 경남고고학연구소.
- 삼강문화재연구원, 2021, 『남해 당항유적』.
- 삼강문화재연구원, 2021, 「김해 구산동 지석묘(도기념물 제280호) 정비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 「경남 남해안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와 양상」에 대한 토론문

최헌섭

두류문화연구원

김미영 선생의 「경남 남해안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와 양상」을 읽고 새로운 정보를 적잖이 얻을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토론자는 평소 유구와 유물보다는 유적의 입지와 각 유적들을 잇는 경로에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점을 중심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먼저 발표자가 설정한 경남 남해안의 지리적 범위는 우리 전통지리의 山經 개념을 이용하면 보다 명료하게 정의할 수 있다. 바로 이 글에서도 경남 남해안지역을 洛南正幹 이남의 육지와 도서로 제한하였는데, 이 산경은 경남을 내륙과 해안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地境이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사천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모두 해안 유적군으로 설정해야 한다.

경남 남해안지역의 소지역권을 구분하면서, 각각 남해~사천은 사천만을 공유하고, 고성~부산 강서구는 내해가 감싸며, 남해~거제 동남쪽은 해양에 접해 있다고 하였다. 지리적 위치에 따라 灣, 內海, 海洋으로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듯한 구분을 행하였지만, 그렇게 명료하게 구분될 것 같지는 않다.

2쪽에서 사천강 상류로 깊숙이 들어간 충적지에 입지한 소곡리 유적이 사천과 고성을 잇는 線構造에 위치한 바를 바탕으로, 내륙의 남강과 고성을 잇는 경로를 상정하였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남강과 사천 고성을 선으로 잇기에는 그 사이에 분포하는 점들의

간격이 지나치게 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선형을 따라 고려시대 이래로 山南道가 열렸었고, 조선시대 후기에는 統營別(一)路로 기능하기도 했지만 말이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 전기의 무덤은 산지에 입지하고, 후기에는 산지 사면 말단이나 평지에 입지한다고 하는데, 그런 입지 방식의 차이로 작용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 5쪽에서 쌀재(146m)를 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남해 창선도의 동대리 지석묘군이 한재(산도곡 고개, 125.7m)에 입지한 것과 14쪽에서 함안 진동 사이의 大峴(약 153m)을 쉽게 넘어 갈 수 있다고 한 바를 고려하면, 그 정도의 고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 5쪽에서 상남지석묘의 하부 구조는 동읍 일대의 덕천리나 봉산리와 흡사하여 상호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는데, 이는 소목고개[牛項峙]를 통한 교통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고갯길을 이용했다는 견지라면, 14쪽에서 인용한 이동희 교수의 견해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 12쪽에 주거지의 형식과 지역상을 반영하는 분묘 부장토기와의 사이에 상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런지 궁금하다.

- 발표자는 이금동식 주거지의 분포권이 경남 남해 연안과 도서지역에서만 확인되는 현상을 해안 취락 간 교류의 예로 제시하고, 남해 당항리 유적을 서계로 하는 모역식 지석묘에서 출토된 석검형 동검 출토 유적 간의 네트워크를 인용 제시하였다. 나아가 해상 네트워크에 착안하여, 관옥이 다량 출토된 사천 이금동과 통영 남평리 유적이 입지와 출토품에서 차별적이라 하였다. 유물에서는 그런 점이 인정되지만, 두 유적의 입지가 다른 유적에 비해 차별적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남평리 8호 관옥 출토상이 창원 덕천리 2호와 비슷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답변하시기 바란다.

- 13쪽에서 사천 늑도와 고성 송천리 솔섬 유적의 崖墓라고 한 무덤의 실체가 무엇을 이르는지 매우 궁금하다. 중국 사천성 일대에 분포하는 그런 애묘와 유사한 구조인가.

- 경남 남해안과 내륙과의 관계망에 대하여 “경남 남해안 지역과 내륙과의 관계는 고대 교통로를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지석묘가 고대 교통로를 따라 배치되는 특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지금의 국도가 대체로 고대 교통로와 일치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런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일전에 토론자가 동읍 주남저수지 서쪽 기슭의 지석묘 분포 지점들을 바탕으로 지석묘의 입지가 교통로를 지시하는 것으로 추정하긴 하였지만, 그런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 발표자가 말하는 고대 교통로의 실체는 무엇인가. 14쪽의 <도 5> 해안지역과 주변 지역과의 관계망에서 표현한 육로는 선구조가 발달한 곳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지형대를 교통

로로 이용한 것을 고대 교통로라고 한 것인가.

- 봉성리 유적에서 외반구연호와 경부내경호가 출토된 현상을 통해 이 유적을 동서 문화의 결절지라 하고, 진동유적 석관묘에 부장된 경부내경호가 봉성리 유적을 거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앞서 해양 네트워크를 설정해 놓고, 김해 등지에서 많이 출토되는 경부내경호의 유입 경로를 내륙인 함안 봉성리 유적에서 구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논의와도 맞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한 답변 바란다.

#### [참고문헌]

慶南文化財研究院, 2003, 『文化遺蹟分布地圖 -泗川市-』.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 -南海郡-』.

최헌섭, 2015, 「支石墓의 立地가 指示하는 것」, 『牛行 李相吉 教授 追慕論文集』, 이상길교수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진인진.





2021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

# 가야 선주민의 바닷길과 대외교류

對  
外  
交  
流

주제발표

신석기시대 동남해안지역  
해양교류양상 변화

- 어로구의 양상을 중심으로 -

이 상 규(가야문화연구원)



# 신석기시대 동남해안지역 해양교류양상 변화

- 어로구의 양상을 중심으로 -

이상규  
가야문화연구원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II. 신석기시대 동남해안지역 교류변화<br>와 요인 |
| II. 한반도 동남해안과 주변지역의<br>어로구 양상 | IV. 맺음말                        |
- 

## I. 머리말

신석기시대 한반도의 동남해안지역은 신석기시대 성립단계부터 해양 적응 수렵채집민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구축했던 곳이다. 이들은 해안 또는 해안과 인접한 곳을 주로 점유했으며, 생업도구 조성에서도 작살·낚시·화살촉 등 수렵 및 어로와 관련된 도구가 중심을 이룬다. 해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생업은 서남해안 및 동해안과 서북큐슈해안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동남해안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들은 모두 해양 적응 수렵채집민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도 많지만 토기문화나 세부적인 도구의 형태, 주거양상 등에서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지기도 한다. 또한 각 지역의 신석기시대 문화는 주변 지역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접촉에 의해 서로 변동하거나, 뚜렷한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문화의 변동 측면에서 해양적응 수렵채집민들에게 바다는 중요한 경관적 위치를 가졌을 것이며, 다른 지역 사람들과의 문화적 경계를 짓기도 하고, 해양교류로써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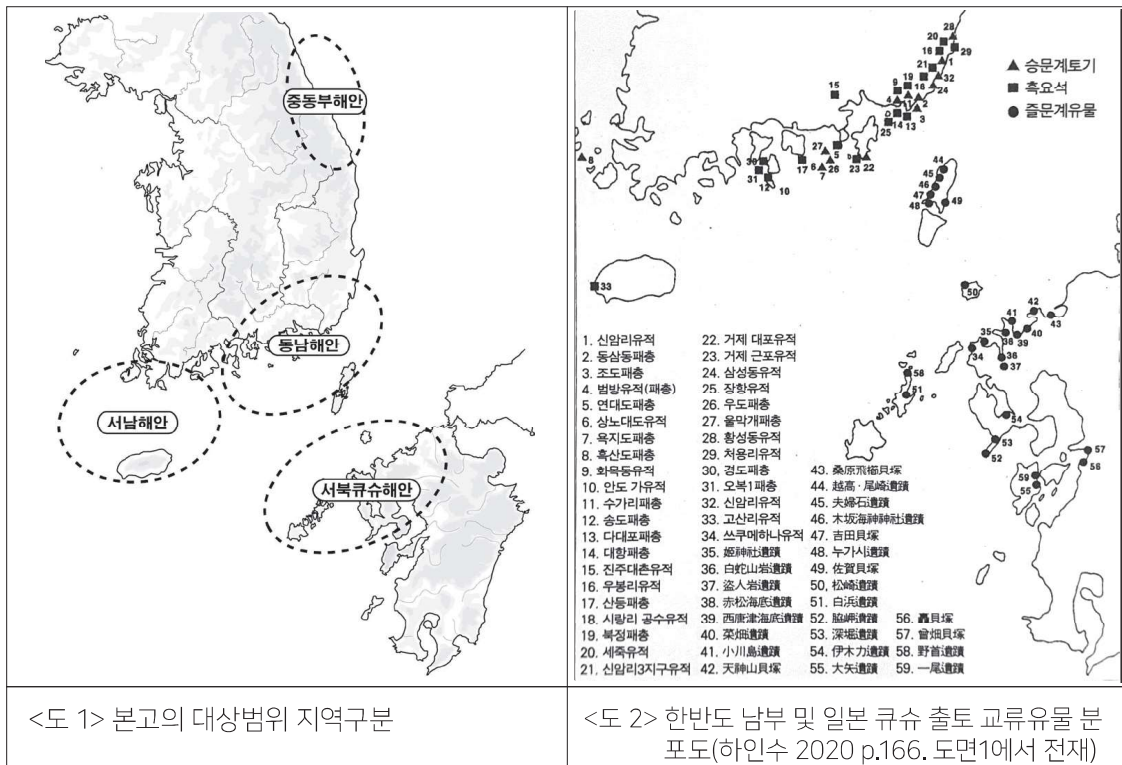
본고는 생업도구, 특히 어로구의 양상을 중심으로 해양교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로구는 앞서 언급했듯이 해양 적응 수렵채집민들의 생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었다. 따라서 시기에 따른 동남해안지역과 주변지역 어로구의 형태 및 조성변화를 통해 교류양상의 변화, 그리고 이와 연동하는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II. 한반도 동남해안과 주변지역의 어로구양상

교류란 사전적으로 서로 다른 나라나 지역의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일반적 의미에서 집단 또는 개인 간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한 관계설정 또는 영향관계를 의미한다(임상택 2008). 따라서 동남해안의 교류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남해안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양상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동남해안지역과 더불어 동해안, 서남해안, 서북큐슈지역의 양상에 대해서도 언급하도록 하겠다. 동남해안지역의 주변지역 중 서북큐슈지역의 경우는 동남해안지역과의 해양교류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이며, 기존 신석기시대 한·일 교류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므로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도구의 범위는 어로구를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어로구외의 유물도 언급하기로 한다. 어로구 중에서는 각 지역별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살과 낚시류에 관해 살펴보고, 형태상 큰 특징이 없는 어망추류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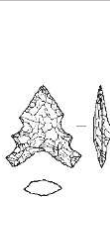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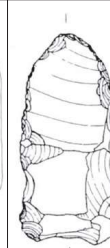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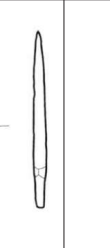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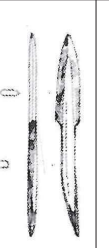


# 1. 동남해안 및 주변지역 어로구의 종류와 형태

현재 알려진 어로구의 종류와 형태는 상당히 다양하다. 어로구의 종류는 작살류, 낚시류, 어망추류, 이외 찢개살, 빗창 등이 있으며, 이들 각각의 세부적인 형태에 따른 여러 형식들이 존재한다(張明洙 1991; 金建洙 1995, 1999; 金忠培 2002; 木村幾多郎 2002; 河仁秀 2006; 이상규 2020 등 참조). 본고의 내용전개는 어로구 자체의 분류와 제양상 보다는 해양교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각종 어로구들의 세부적인 분류와 설명은 지양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간략화 하여 해양교류와 관련된 의미 있는 부분만 나타내도록 한다<sup>1)</sup>.

## 1) 작살류

본고에서 작살은 크게 재질에 따라 석제와 골제로 구분한다(도 3). 석제작살에는 결합식 작살과 타제의 석촉형 및 석창형, 마제의 석창형 작살로 나눌 수 있다. 결합식작살은 흑요석 또는 사누카이트로 제작되며 작살의 침두부와 측면날이 결합되는 모듈형도구이다. 일본의 서북큐슈지역에서 많은 수가 보고된 바 있으며, 석거조합섬(石鋸組合銚) 등으로 불린다. 타제석촉형 또한 흑요석제가 많으며, 일반 화살촉에 비해 큰 것은 작살촉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하인수 2006; 鄭澈 2017; 배형곤 2019)에 따라 작살로 보고자 한다. 타제석창형은 일본에서는 석섬(石銚)으로 불리는 작살에 해당한다. 마제석창형은 주로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출토되는 기종으로, 석창형 작살들은 그 자체로 작살로 사용되기 보다는 미늘 역할을 하는 보조도구와 조합하여 분리식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이상규 2020 참조).

석제				골제		
결합식	타제석촉형	타제석창형	마제석창형	유기(有鐵)형	여서도형	회전식
						
1	2	3	4	5	6	7

<도 3> 본고 작살의 분류안 (S=1/4)

1.문암리 2.신암리 3.욕지도 4.안도 5·7.동삼동 정화지역 6.여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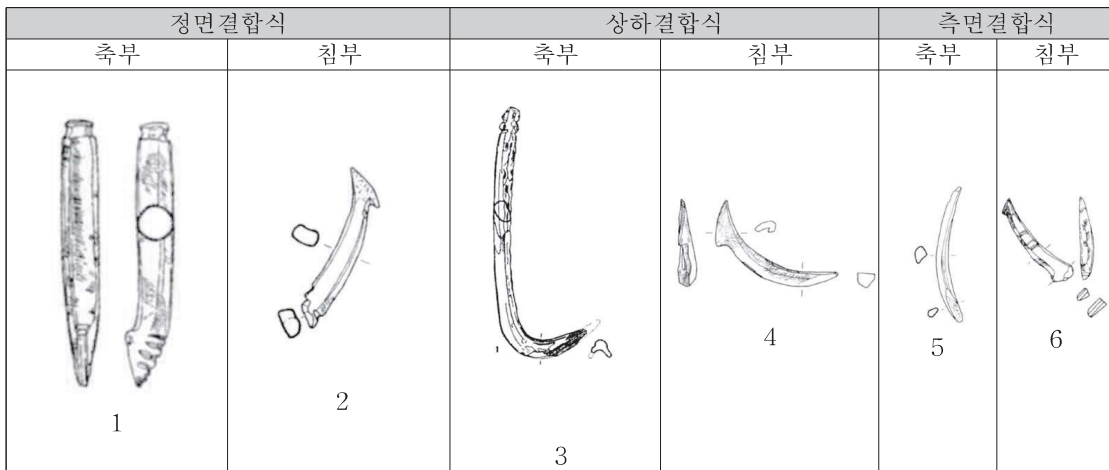
1) 어로구의 자세한 분류는 필자의 이전논고(이상규 2020) 참조.

골제작살은 유기형, 여서도형, 회전식 작살로 나뉘어진다. 유기형은 작살의 신부 일부에 역자(逆刺)의 미늘이 있는 구조로 가장 일반적인 골제작살의 형태이다. 여서도형은 작살 축의 꼬리부분이 좌·우 한 쪽으로 휘는 형태이며, 휘는 부분이 미늘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전식은 여서도형과 달리 작살축의 꼬리 부분이 위쪽으로 치켜 올려지는 형태이다. 사용 시 작살축이 자루에서 떨어지며 포획대상물의 체내에서 직각회전을 하는 형태이다.

## 2) 낚시류

낚시류는 축부와 침부의 결합여부에 따라 축부와 침부가 결합하는 형태의 결합식(도 4)과 축부와 침부가 일체형인 단식(도 5)으로 분류된다. 세부적으로 결합식은 결합하는 방식차이에 의해 정면결합식, 상하결합식, 측면결합식으로 구분되고 있다. 정면결합식은 재질에 따라 석제와 골제가 있으며, 축부와 침부의 한 면에 각각 세장방향의 결합면을 만든 형태이다. 결합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축부와 침부 결합면의 후면에 홈이나 단을 마련하기도 한다. 정면결합식 낚시의 축부는 골제도 있지만 석제축부가 주를 이루며, 한반도 동·남해안에 주로 분포한다. 상하결합식은 녹각제나 골제의 축부를 J자형으로 만들고, 축부의 하단부에 홈을 내어 침부를 홈에 끼울 수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축부와 결합이 용이하도록 침부의 꼬리부분이 뾰족한 점이 특징적이다. 상하결합식은 서북큐슈해안지역에서 주로 확인된다. 측면결합식은 축부의 측면부에 비스듬한 면을 만들고, 한 면을 편평하게 가공한 침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남해안과 큐슈북부해안에서 일부 나타난다.

단식낚시(도 5)에는 J자형과 역T자형의 낚시바늘이 있다. J자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낚시바늘의 형태와 동일하며,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는 낚시바늘에 미늘이 있지



<도 4> 결합식낚시 축부와 침부(S=1/4, 1·2는 1/2)

1.범방패총 2·5.동삼동 정확지역 3.下本山岩陰 4.官下 6.동삼동 정확지역 6.佐賀

만 서북큐슈지역에서는 미늘이 없는 것이 많다. 역T자형 낚시바늘은 一자형의 바늘에 허리부분이 잘록한 것이 기본이며, 잘록하지 않은 형태의 것도 존재한다.



<도 5> 단식낚시바늘의 종류(S=1/4)  
1.脇岬(일본) 2.욕지도

## 2. 동남해안 및 주변지역 어로구의 전개양상

### 1) 동남해안지역 신석기시대 단계설정

동남해안지역 신석기시대의 편년은 대체로 조기·전기·중기·후기·말기의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河仁秀 2006a). 이러한 5기 편년에서 가장 큰 변화양상을 보이는 것은 중기단계이다. 중기 이전 한반도 신석기시대에는 수렵·어로 및 채집이 생업에서 주요한 요소이며 도구조성에서도 작살류와 조침류 처럼 수렵·어로구에 해당하는 도구들이 중심을 이룬다. 토기 상에서도 조·전기는 각각 용기문토기와 자돌·압인문처럼 비침선계토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중기가 되면 토기문양이 침선계로 바뀌며, 생업 면에서도 기존의 수렵·어로 중심의 생계방식이 유지되지만 굴지구류의 수량증가 및 정형화(박성근 2013)와 더불어 새롭게 지탑리형 갈돌·갈판 등과 같은 초기농경과 관련된 도구들이 추가된다(河仁秀 2006a). 또한 한반도 남부지역은 이 시기에 들어 내륙지역으로 유적이 확산되며 김천 송죽리와 진주 상촌리에서 비교적 대규모 취락이 들어서서 양상도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후기까지 이어져 봉계리유적에서도 대규모 취락의 양상이 확인되며 도구조성에서도 굴지구류가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말기는 중·후기와 다르게, 한반도 남부전체에 유적의 소규모화·도구의 간략화, 동일형식의 이중구연토기가 나타나는 점 등, 중~후기에 걸쳐 잡곡농경에 기반 했던 정착이 와해되고 이동성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sup>2)</sup>(宋賢景 2012).

이상의 내용이 동남해안을 비롯한 영남지역 일대의 신석기시대에 대한 전체적인 양상으로, 대체로 조·전기와 중·후기, 그리고 말기로 큰 틀의 획기가 나누어진다. 따라서 한반도 신석기시대 사회상에 따라 조·전기를 1단계, 중·후기를 2단계, 말기를 3단계로 구분

2) 송현경은 이러한 말기의 양상에 대한 원인을 임상택(2006)이 제기한 기후의 한랭화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랭화라는 기후 환경 악화에 의한 자원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화, 소규모화 되었고 이를 통해 이동성이 증가 하게 되고 수혈주거지와 취락이 쇠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도록 하겠다. 교류의 관점에서는 이에 병행하는 서북큐슈지역의 시기구분도 필요하므로 기존에 한반도와 병행관계를 검토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한다. 한반도와 서북큐슈의 병행관계에 대해서는 田中聰一(2003), 宮本一夫(2004), 古澤義久(2018)의 연구가 대표적으로, 이를 종합한 것이 <표 1>과 같다.

<표 1> 동남해안 및 서북큐슈지역 신석기시대 분기와 병행관계

단계	동남해안 지역	서북큐슈지역
1단계	용기문	早期末~轟B式
	자돌·압인문(영선동식)	西唐津式
2단계	태선침선문(수가리I식)	曾畑式·轟C式·尾田式·船元式
	퇴화침선문(수가리II식)	春日式·並木式·阿高式
3단계	이중구연토기(수가리III식)	坂の下式·南福寺式·中津式 鐘崎式·北久根山式···

## 2) 단계별 어로구의 양상과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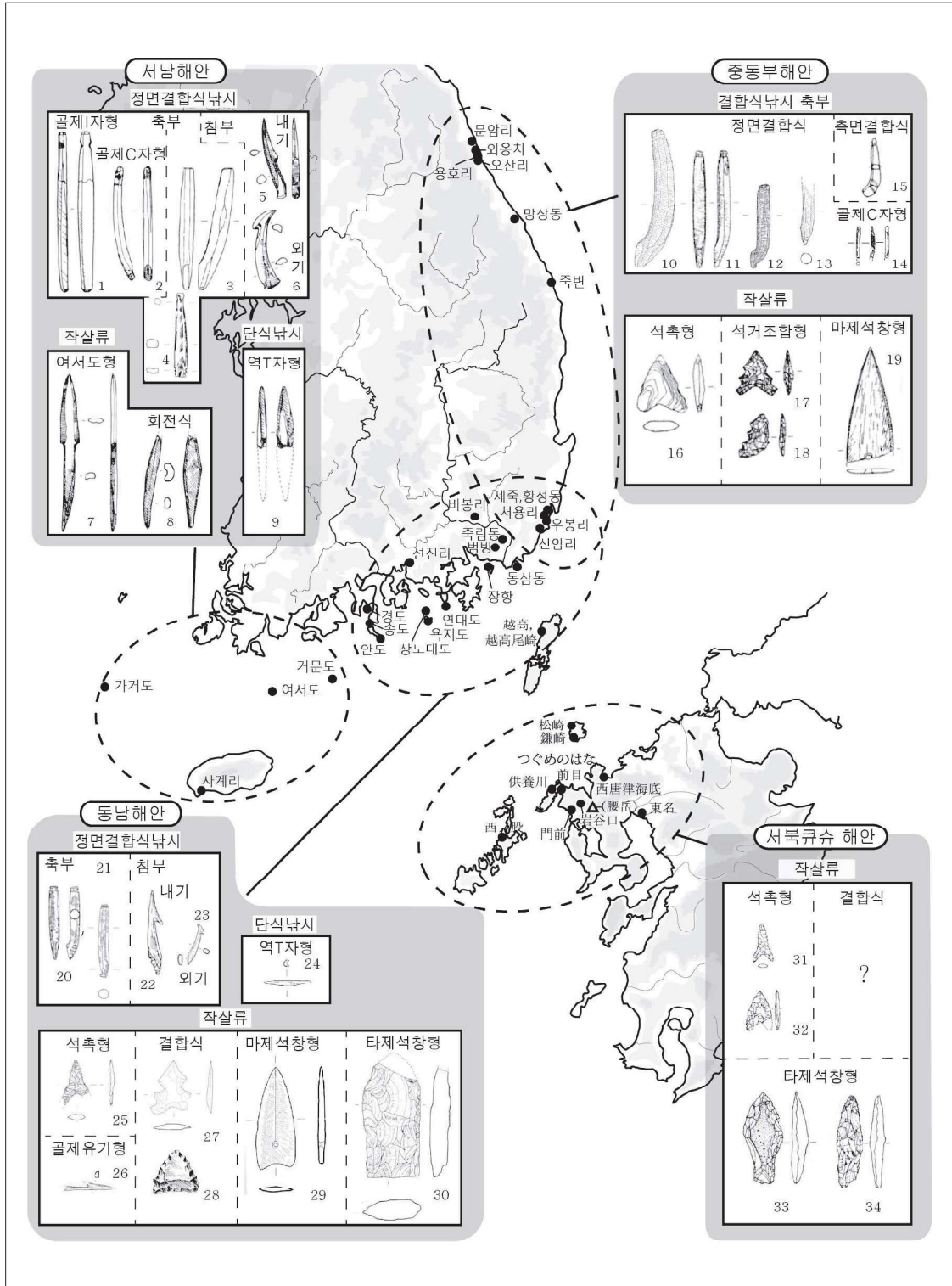
### (1) 1단계

1단계 동남해안 및 주변지역 어로구의 양상을 나타낸 것이 <도 6>과 같다. 1단계에는 한반도의 동남해안, 서남해안, 중동부 해안과 서북큐슈해안으로 구분된다.

본고의 가장 북부에 해당하는 중동부 해안지역은 강원도 고성에서 경북 울진까지 지역적 특징이 나타난다. 1단계 중동부 해안지역의 어로구는 작살류와 낚시류가 있다. 대부분 석제어로구만 확인되며, 골제 어로구는 잘 남아있지 않다. 작살류는 결합식, 타제석촉형, 마제석창형이 나타난다<sup>3)</sup>. 이 중 마제석창형 작살이 수량이나 출토유적이 가장 많기 때문에 중동부 해안지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작살로 볼 수 있다. 낚시류는 석제촉부의 정면결합식 낚시가 주로 확인된다. 측면결합식의 촉부와 골제의 촉부도 있지만, 각각 1점씩만 출토되어 명확한 사항을 알기는 어렵다.

동남해안지역은 동해안 남부의 울산지역에서 남해안 전라남도 여수지역, 그리고 1단계에 한정하여 일본의 쓰시마섬(對馬島) 일부를 포함한다. 1단계 동남해안지역의 작살은 석제에 결합식, 타제석촉형, 타제석창형, 마제석창형, 골제 유기형이 있다. 마제석창형 작살은 상술한 중동부 해안지역에서도 널리 사용되던 작살로 중동부지역과 동남해안지역 간

3) 이 외 해안지역은 아니지만, 공기 2굴에서 골제 유기형 작살이 출토된 바 있기 때문에 골제 유기형의 작살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 6> 동남해안 및 주변지역 1단계 어로구의 양상(S=1/6)

- 1·2·4~7·9.여서도 3·8.가거도 10·13.망상동 11·16~19.문암리 12.오산리C지구  
14.죽변 15.오산리 20·26·30범방패총 21.가덕도 장항 22.연대도 23.동삼동 정화지역  
24.비봉리 25.욕지도 27.신암리 28.상노대도 29.안도 31~34.つぐめのはな

의 교류관계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기원과 관련해서는 오산리C지구 최하층에서 14점의 가장 많은 수량이 확인된다는 점, 문암리 출토층위인 VII-1층과 죽변유적에서 가장 이른 층인 IV문화층에 용기문토기가 매우 적다는 점에서 남해안동부지역 보다는 한반도 중동부지역 혹은 그 이북지역에서 발생하여 남해안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타제석창형 작살의 존재여부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타제석창형 작살은 동남해안지역 고유의 작살로 생각된다. 골제 유기형작살은 앞서 언급한 중동부지역의 예, 그리고 한반도 동북해안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보이스만 문화의 골제 유기형 작살들을 볼 때 한반도 중부 이북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낚시류는 대부분 면결합식으로, 축부는 주로 석제가 사용되는데, 일부 골각제도 있다. 침부는 미늘이 안쪽에 위치한 내기식과 바깥에 위치한 외기식이 모두 확인되며, 무기식도 존재한다. 결합식낚시 역시 중동부 해안지역에서 다수가 출토되고 있어, 세부적인 형태는 다르지만 중동부 해안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서남해안지역의 어로구는 현재 가거도, 여서도, 거문도, 제주도과 같은 원도권의 도서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석제 어로구가 결합식낚시 축부만 존재하며, 대부분 골각제의 어로구가 사용된다. 작살류는 여서도형과 회전식이 확인된다. 여서도형의 작살은 주변지역을 통틀어도 서남해안지역에서만 확인되는 독특한 형태의 작살로 이 지역 내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북큐슈해안지역 1단계는 후쿠오카현(福岡縣), 사가현(佐賀縣), 나가사키현(長崎縣) 북부~오도열도(五島列島) 등 큐슈의 북부해안지역에 유적이 집중된다. 서북큐슈해안지역에서는 이 단계에 낚시류는 없고, 타제석촉형과 타제석창형 작살만 확인된다. 결합식작살은 확실히 이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어 명확하지 않은데, 석제의 주재료인 흑요석이나 사누카이트의 산지가 한반도 남부지역에는 없고 고시타케(腰岳) 등 큐슈지역에만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앞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북큐슈 해안지역의 석제작살은 타제석창형 작살에 수량이 집중되는데 쓰구메노하나(つぐめのはな)유적에서는 39점이나 되는 타제석창형 작살이 출토되었으며, 세부적으로 형식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 (2) 2단계

2단계 동남해안 및 주변지역 어로구의 양상을 나타낸 것이 <도 8>과 같다. 2단계에는 한반도의 동남해안, 중동부해안, 서북큐슈해안으로 크게 구분된다<sup>4)</sup>.

2단계 중동부해안지역에서는 이전 단계에 성행하던 마제석창형 작살과 결합식 작살의 출토양상이 불분명해져 석제작살류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이 단계에의 중동부해안지

4) 2단계 서남해안지역의 양상은 불명확하다.

역에는 결합식낚시만 일부 확인되는 정도이다. 대신 어망추류의 출토량이 급증하여 어망 어로가 활발해지게 되어, 이전 단계와는 어로의 양상이 상당히 달라진다. 또한 낚시류의 경우 기존 1단계에는 동해안지역의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2단계 들어 남해안지역의 형태적 특성을 가진 낚시류가 주로 사용된다<sup>5)</sup>.

동남해안지역은 1단계에 울산지역과 쓰시마(對馬島)에 까지 동일 어로문화권을 가지던 것과 달리 2단계에 들어서서는 동남해안 중 남해안지역에만 국한된다. 이는 남해안 서부의 양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과 더불어 전반적인 남해안지역 어로문화의 축소로 이해된다. 그러나 동삼동과 옥지도에서는 중기단계에 이르러 상당히 많은 어로구가 확인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단계 동남해안지역 대부분의 어로구는 동삼동과 옥지도에 집중되고 있어, 어로구의 분포범위가 감소하는 대신 특정 유적에서는 어로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상규 2020).

어로구의 양상도 이전 단계에 비해 변화가 나타나는데, 가장 큰 변화는 작살류에서 나타난다. 먼저, 마제석창형 작살이 사라지게 되며, 결합식도 보이지 않는 양상이다. 이들을 대신해 골제 유기형과 회전식 작살이 성행하고 있어 결합식과 마제석창형을 대체하는 양상이다. 한편, 마제석창형 작살은 사라지지만 타제석창형 작살의 전체적인 두께가 마제석창형처럼 얇아진다는 점(도 8-4·5)이나, <도 8-4>에서와 같이 기부의 홈 등 마제석창형 작살 제작방식의 흔적은 남아있다. 타제석창형의 두께가 얇아진다는 것은 기존에 마제석창형 작살이 해왔던 역할을 타제석창형이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부 두께가 두꺼운 것도 여전히 남아있어 타제석창형 작살 내 분화가 일어나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또한 타제석창형 작살의 양적 증가는 특정지역에 한해 기존의 석제 작살을 이용한 생업전통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2단계에 해당하는 신석기 중기에 동해안지역의 오산리, 문암리, 죽변과 같은 오산리양식 토기문화를 가진 유적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이 지역과 교류관계를 통해 나타난 특징적인 도구인 마제석창형 작살의 개념이 사라지고 기존의 타제전통이 부각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골제 유기형 역시 동해안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났지만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도구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낚시류는 1단계에 비해 전제적으로 낚싯바늘이 확인되는 유적의 수나 수량도 적어진다. 그러나 이전 단계에는 뚜렷하지 않던 골제 축부들의 존재가 확실해지고, 침부는 미늘이 바깥에 위치한 외기식이 주로 사용되며, 축부와 침부의 착장각이 넓어지는 특징(이상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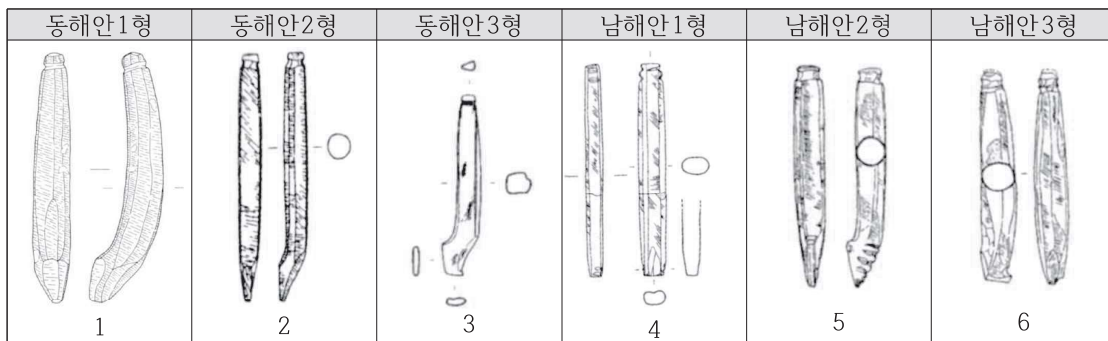
5) 필자는 이전 논고(이상규 2020)에서 결합식낚시의 축부의 변화과정을 동해안1형·남해안1형·3형 → 동해안2형 → 동해안3형·남해안2형으로 상정한 바 있다. 2단계 중동부해안지역에서는 남해안형의 결합식낚시 축부가 주로 확인되는데 이 중에서도 남해안 2형과 남해안 3형 중심이다.

2020)이 나타난다. 이 외 동삼동과 같은 유적에서는 측면결합식 낚시의 침부도 확인되고 있어, 정면결합식 외에도 다양한 결합형태가 사용된다. 단식낚시는 이전단계와 마찬가지로 역T자형만 나타나지만 이전 단계에 비해 수량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낚시류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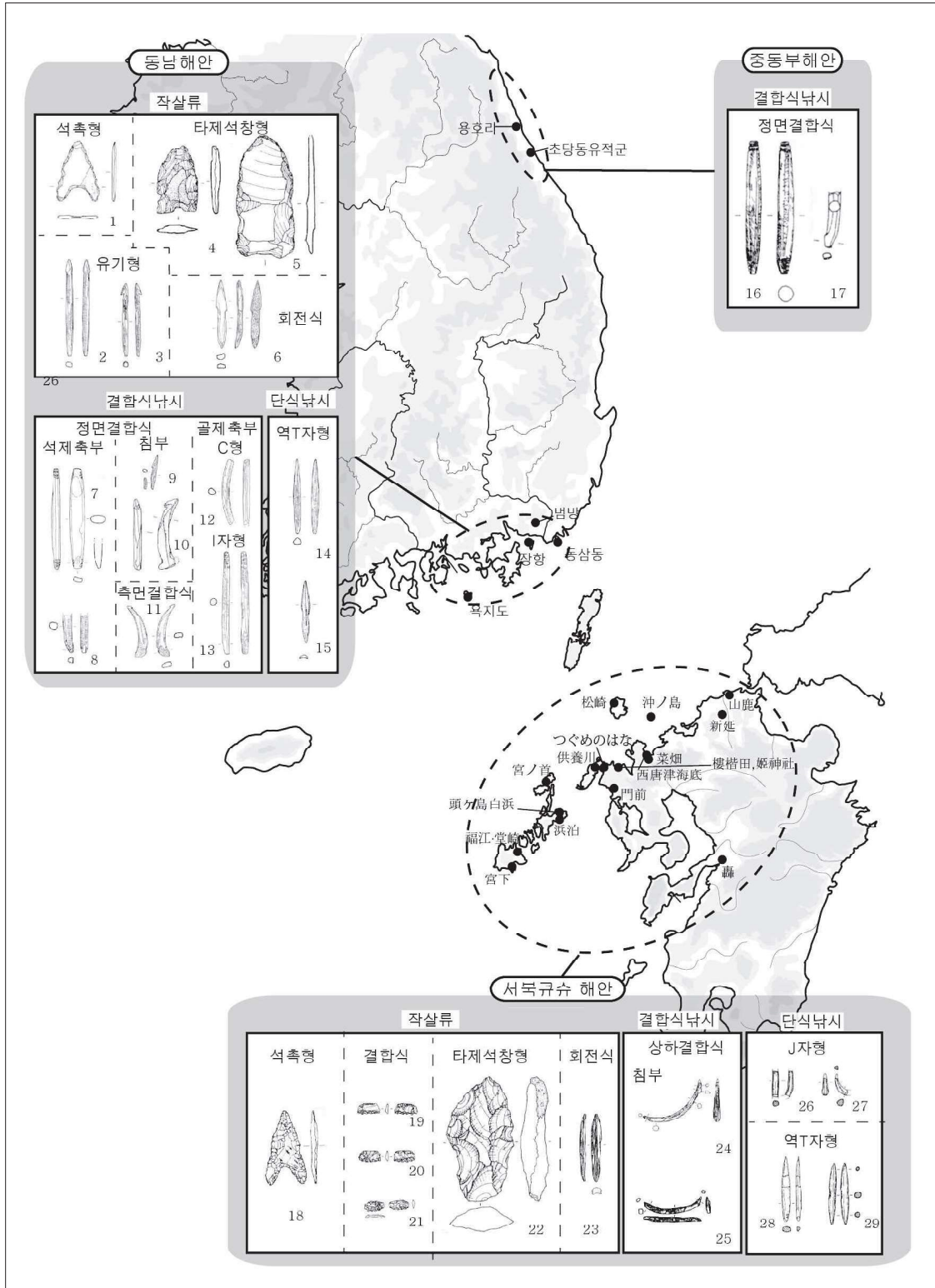
서북큐슈해안지역 2단계는 1단계의 범위에 더해 쿠마모토현(熊本縣) 해안지역까지 유적의 분포범위가 더욱 확산된다. 이는 남해안 동부지역과 비교할 때 정반대의 양상이다. 어로구의 내용에서도 기존의 석촉형 및 타제석창형 작살 함께 1단계에는 확실한 예가 없었던 결합식작살이 나타나고, 결합식 및 단식낚시라는 새로운 요소가 등장한다.

결합식작살이 확인되는 시라하마(白浜) 및 후쿠에·도우자키(福江·堂崎)유적, 그리고 결합식낚시가 출토되는 나바타케(菜畑)유적은 1단계에서부터 형성된 유적들로 1단계 남해안 동부지역과 어떻게든 서로에 대한 정보와 개념의 공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형태적인 면에서 남해안 동부지역과는 다른 점이 있다. 이 시기 서북큐슈지역의 결합식작살은 측면부만 확인되는데 대체로 장타원형상의 평면 형태와 거치가 작고 조밀한 간격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 자료가 대체로 삼각형 평면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확실한 계보관계를 따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결합식작살의 거치부분의 변화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이상규 2020), 1단계 늦은 시기 한반도로부터의 영향이 일정부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작살류는 결합식과 석촉형, 타제석창형이 확인되는 점이 1단계와 동일하며, 남해안 동부지역의 양상과도 같다. 이는 이전 단계부터 남해안 동부와 서북큐슈 해안지역에 공통적으로 존재해 왔던 요소들이다. 회전식작살 역시 이 단계에 처음으로 확인되기 시작하는데, 오오하마(大浜)유적의 예(도 8-23)에서처럼 형태적으로 남해안 동부의 것(도 8-6)과 유사하게 봉부의 폭이 넓고 기부가 좁다. 하지만 타제석창형의 두께가 전술한 바대로 남해안 동부에서는 얇아지는 반면, 서북큐슈 해안지역에서는 여전히 두꺼운 것들이 주를 이루



<도 7> 정면결합식낚시 석제촉부의 형식분류(이상규 2020 그림 19에서 전재) (촉척부동)  
1.망상동 2.문암리 3.세죽리 4.범방유적 5·6.범방패총



<도 8>. 동남해안 및 주변지역 2단계 어로구의 양상(S=1/6)  
 1·4·5·10·15.욕지도 2·3·6~9·11~14.동삼동 정화지역 16·17.초당동 18.つぐめ  
 のはな 19·20·22.頭ヶ島白浜 21.福江·堂崎 23.大浜 24·25.菜畑 26~29.新延

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점들도 존재한다.

결합식납시 역시 한반도지역은 정면결합식이 주체를 점하는데 비해, 이 시기 서북큐슈 해안지역에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는 결합식납시의 형태는 상하결합식과 측면결합식이라는 점에서 양 지역 간 직접적인 도구의 전파가 일어났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한반도 신석기인들의 결합식납시를 접한 서북큐슈인들이 ‘결합식납시’라는 개념을 수용하여 자신들의 방식으로 제작한 것(木村幾多郎 2002)으로 이해된다. 단식납시는 J자형과 역T자형이 이 시기 들어 함께 나타나는데, 역T자형은 동남해안지역에서도 있지만 J자형은 동남해안지역에서 확인된 예가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부분은 불명확하다.

### (3) 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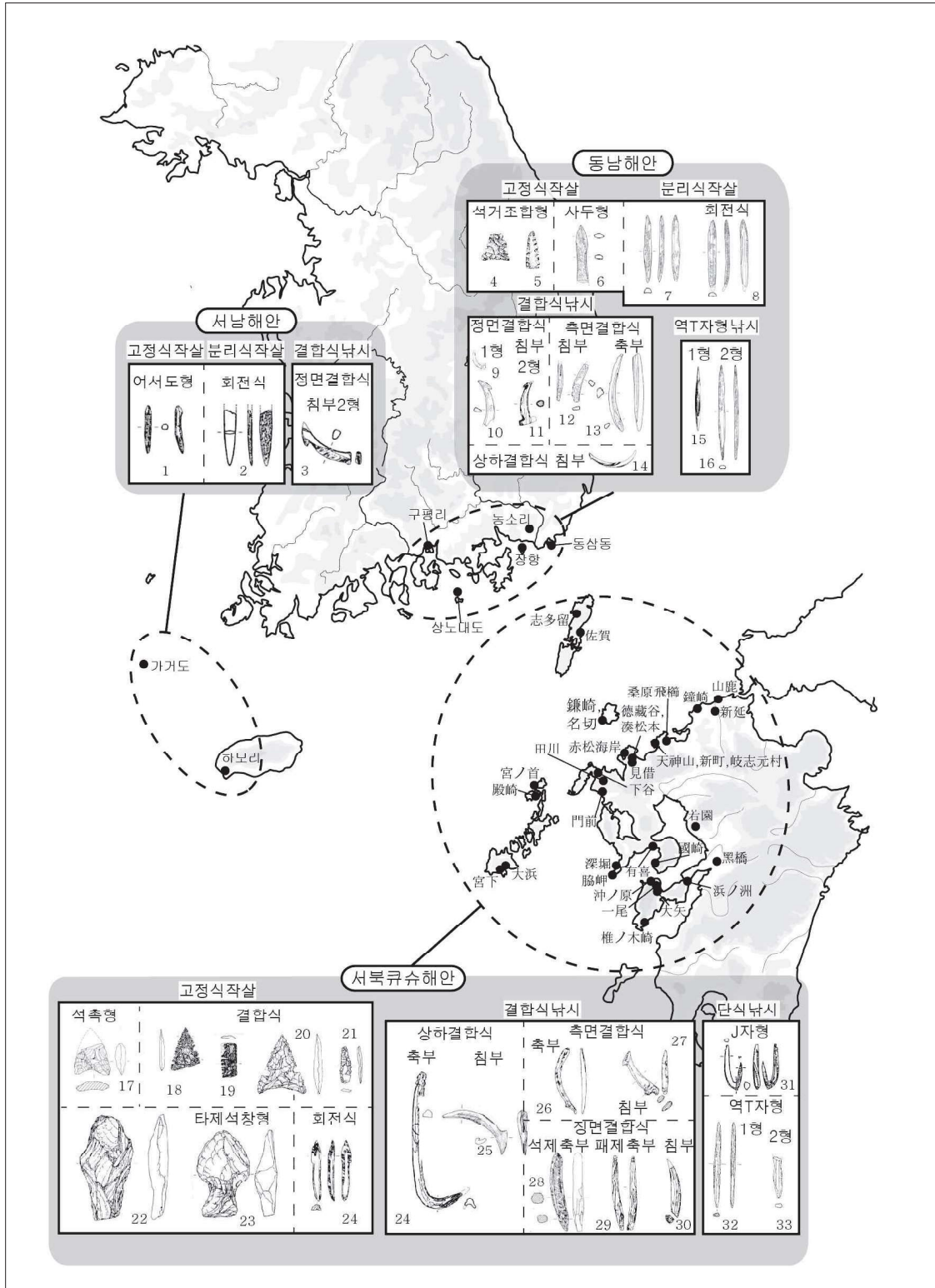
3단계의 양상은 <도 9>와 같다. 3단계는 지역적으로 동남해안과 서남해안, 그리고 서북큐슈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3단계 중동부 해안지역의 어로구 양상은 현재 자료상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

동남해안지역의 유적분포 범위는 이전 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어로구의 조성은 이전에 비해 간략해진다. 또한 2단계에서 보였던 특정지역에 대한 강화양상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전반적으로 어로가 쇠퇴하는 모습이다.

이 시기 작살류는 석제는 결합식만 확인되며, 골제는 유기형과 회전식이 있다. 결합식은 2단계에서는 보이지 않다가 3단계에 다시 나타난다. 결합식의 첩두부는 삼각상이며, 첩두부와 사이드블레이드의 거치날 형태도 끝부분이 뾰족하지 않고 편평하게 만들어진다. 또한 사이드블레이드의 형태도 앞선 1단계에서는 삼각형 모양인데 반해 3단계에는 세장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제작방법은 1단계 한반도에서는 없고, 3단계 서북큐슈 해안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방법이다. 필자는 이전논고에서 이러한 형태를 서북큐슈계로 분류한 바있다(이상규 2019). 제작방법의 차이는 시기적으로 서북큐슈계가 늦기 때문에 시간성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자료상 결합식작살이 한반도에서는 1단계, 서북큐슈에서는 3단계에 대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적 변화상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두 형태 간 시간에 따른 형식학적 변화과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역성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계와 서북큐슈계 결합식작살의 형태적 차이와 관련하여 시간성인지 지역성인지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이 후 자료증가에 따라 재고<sup>6)</sup>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6) 상노대도 출토 결합식작살이 시간성에 의한 것이라면, 한반도 1단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의 것인 <도 6-28> 이후에 해당하는 형식학적 연결고리가 나타날 것이다. 한편, 지역성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서북큐슈지역으로 부터의 반입품 혹은 서북큐슈지역의 영향으로 제작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도 9> 동남해안 및 주변지역 3단계 어로구의 양상 (S=1/6)  
 1~3.가거도 4·5·14·15.상노대도 6~8·10·12·13·16.동삼동 정화지역 9.농소리  
 11.구평리 17·24·26·27·32.佐賀18·19.德藏谷 20·21.門前 22.湊松本 23.殿崎  
 24.浜ノ洲 25.宮下28.大矢 29·30.一尾 31.脇岬 33.志多留



결합식납시는 석제축부가 출토된 예가 없는데, 침부의 존재로 보아 이후 조사에서 발견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인 결합식납시가 감소되는 한편, 소수이지만 여전히 측면결합식 납시가 확인되고 상하결합식납시도 보이는 등 기존 석제축부를 가진 정면결합식 중심의 납시제작 전통이 희미해지고 재질과 결합방식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쪽으로 변화한다.

서남해안지역은 2단계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3단계에는 다시 나타난다. 3단계 서남해안지역에서는 여서도형 작살과 회전식작살이 출토되며, 1단계에 비해 어로구 종류는 감소했지만 1단계 양상에서 보이던 것들과 동일종류에서는 같은 것들이다. 이를 볼 때, 2단계 서남해안지역의 양상이 불명확하지만 여서도형 작살과 같은 제작전통들이 2단계 내에서도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합식납시는 침부만 확인되는데, 결합부의 상하 면에 모두 단이 있는 형태이다. 하지만 동남해안지역과는 단의 형태에서 약간 다르다. 동남해안지역은 침부의 단이 상당히 강조되고 단의 형태가 장방형에 가깝지만 서남해안지역은 상대적으로 단이 작은 편이며, 형태가 거의 사다리꼴에 가깝다. 이처럼 서남해안지역은 동남해안지역과는 큰 틀의 개념은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른 제작전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북큐슈 해안지역은 상술한 한반도 동남해안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1단계부터 석촉형과 타제석창형작살이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2단계의 석제작살, 상하결합식 및 단식 납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어로구출토 유적분포 범위가 이전 단계보다 더 확장되고, 유적의 수도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어로구의 내용 또한 매우 풍부해져, 이전 단계에는 보이지 않던 측면결합식납시도 확인되며, 세부적으로 타제석창형에서 새로운 형태(도 9-23)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이 시기 서북큐슈지역의 가장 특징적인 어로구라 할 수 있는 결합식작살의 형태변화가 매우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 관찰된다. 서북큐슈 해안지역의 결합식작살 침두부는 3단계를 즈음해서야 비로소 그 형태가 확인되는데, 대부분 삼각형 혹은 이등변 삼각형의 평면 형태를 가진다. 평면 형태나 거치날을 조성하는 방법 등이 전술한 상노대도의 것과 대체로 유사하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1단계에 확인되던 결합식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다. 서북큐슈지역 내에서 2단계와 3단계 결합식작살의 침두부 형태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측면부에 장착되는 석거의 형태만 보더라도 2단계는 렌즈상의 평면 형태에 거치의 크기나 배치도 단순(도 7-19~21)하다. 그러나 3단계에는 평면형태가 렌즈형, 삼각형,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 등 다양하며 거치도 거치 간 간격이 넓고 홈이 깊은 것도 나타나고 거치자체의 모양도 끝이 뾰족한 것, 둥근 것, 직선적인 것 등 여러 가지로 제작 된다<sup>7)</sup> 서북큐슈 해안지역의 결합식납시도 2단계에는 나바타케

7) 이러한 서북큐슈 해안지역 결합식작살 형태의 다양함에 대해 연구자에 따라서는 시간의 흐름

(菜畑)와 니노부(新延) 등 큐슈 북부해안을 중심으로 한정된 유적에 분포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전체 수량이 증가하고 구마모토현에서도 다량 확인되어 결합식작살과 함께 ‘서북큐슈형 어로구’의 대표적인 유물로 자리 잡게 된다. 결합방식의 종류도 상하결합식을 중심으로 측면결합식과 정면결합식이 함께 나타난다. 상하결합식의 축부는 3단계에 해당하는 유적에서 확실한 형태가 드러나는데 대체로 녹각제로 만들어지며 크기가 큰 편이다. 침부는 모두 외기식이며, 착장각도 50~60° 로 넓은 편이다. 측면결합식은 대체로 큐슈북부 도서해안지역에 분포하며 축부와 침부가 상하결합식에 비해 얇고 작은 편이다. 침부는 모두 외기식으로, 상하결합식과 더불어 늦은 시기에 외기식 침부가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잘 나타낸다. 정면결합식은 아마쿠사제도(天草諸島)의 오오야(大矢)와 후토오(一尾)에서 출토되었는데, 지역적으로 측면결합식과 중복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오야의 것은 석제축부, 후토오는 권패류(卷貝類)의 중앙부로 만든 패제축부이다. 석제 축부는 한반도의 것과 흡사한데, 구체적으로는 동해안1형과 유사하다. 그러나 동해안1형은 한반도 내에서도 동해안의 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몽후기에 쿠마모토현 지역에서 나타난 이 축부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다. 이는 아마도 한반도로 부터의 직접적인 전파 보다는 한반도 남해안으로부터 인식된 석제축부의 개념을 조몽인이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패제축부와 침부도 재질이나 형태면에서 한반도와는 이질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역시 한반도 결합식낚시의 모방품으로 판단된다.

### Ⅲ. 신석기시대 동남해안지역 교류의 변화와 요인

본장에서는 동남해안지역 및 주변지역의 교류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단계별 양상을 바탕으로 당시 신석기시대 내 큰 틀의 변화양상과 교류의 양상이 어떻게 연동하여 변화해 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단계의 진행상황에서 나타나는 변화요인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

에 의해 결합식작살이 의기화(儀器化)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福田一志 1999). 또한 ‘조잡(粗雜)’과 ‘정제(精製)’로 구분 제작되어 정제품이 의기로 사용(川道寬 2013)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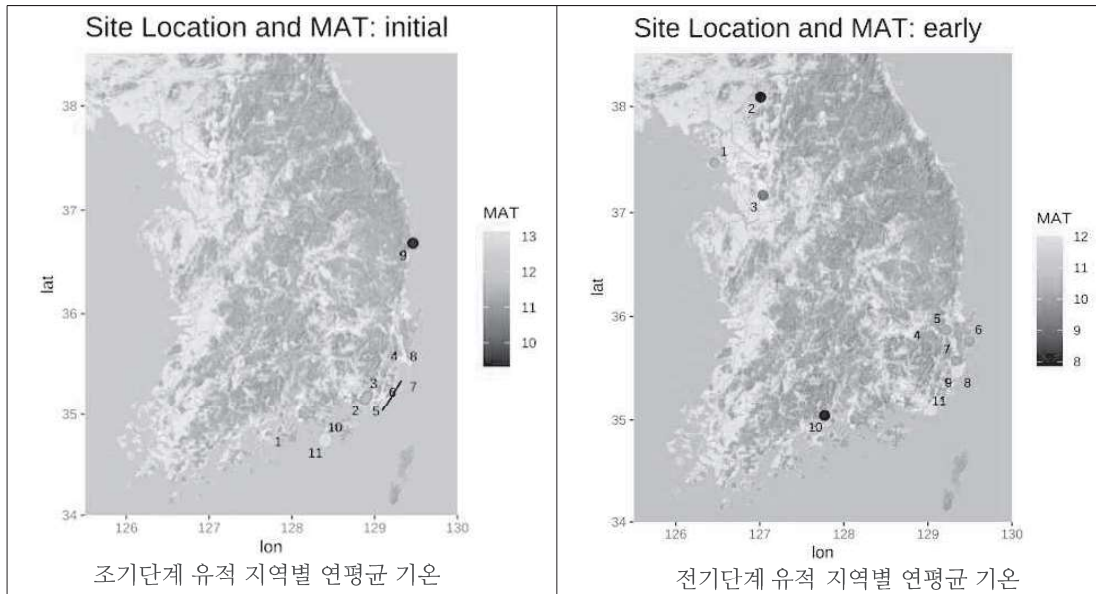
# 1. 신석기시대 기온변화와 문화변동

## 1) 신석기시대 환경변화와 어로구

한반도 남부지역의 각 시기별 기후양상에 관해서는 기후시물레에션을 통해 대략의 상황을 알 수 있다(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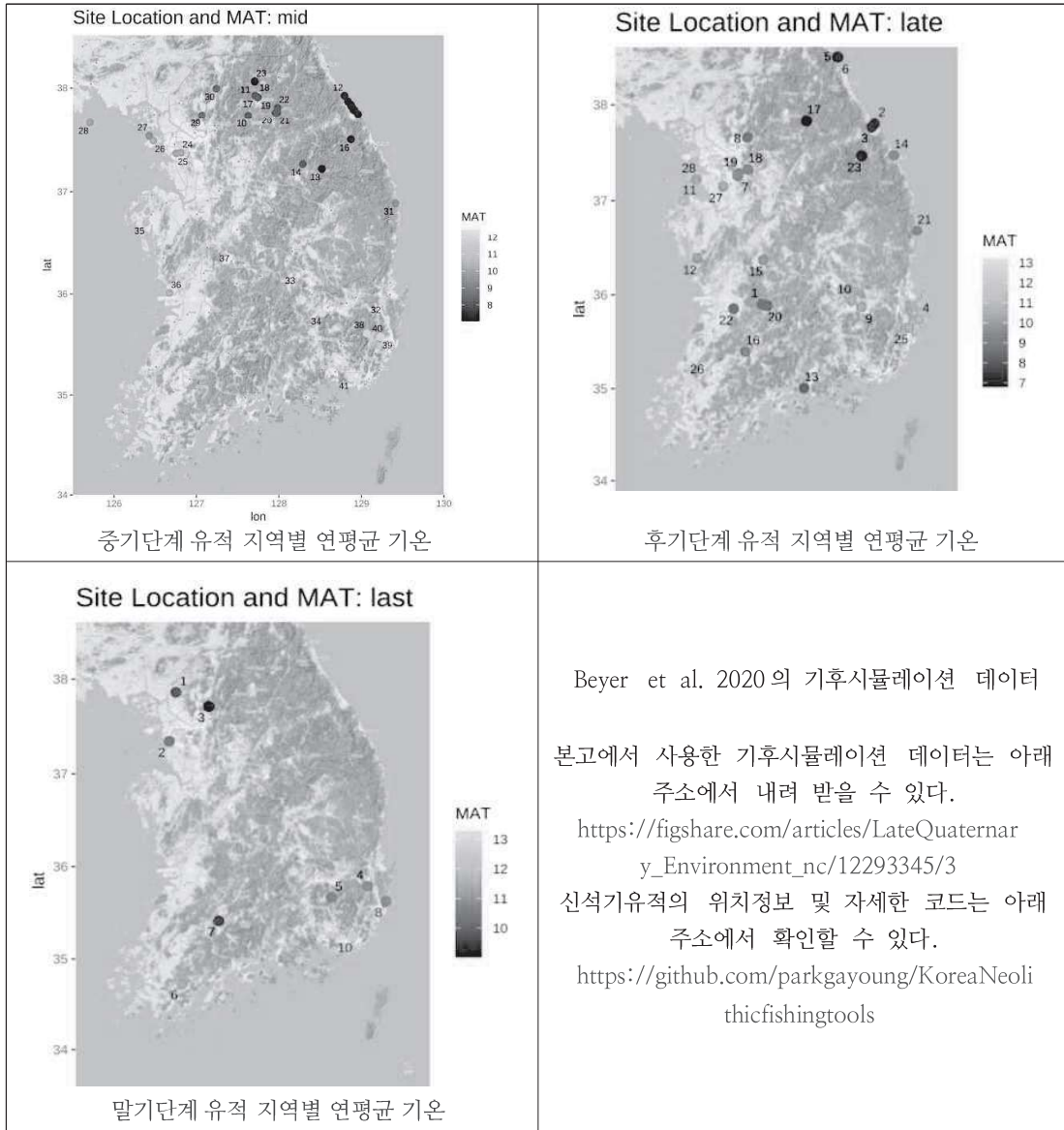
기존 연구상에서 전 지구적 홀로세 기후변화 경향은 대략 10ka BP - 5ka BP에 현재보다 2~3°C 높은 홀로세 기후최적기(Holocene climatic optimum)가 나타나는데, 8.2ka BP에 8.2ka 이벤트가 발생하여 200~400년 간 지속되는 기온의 하락이 있었다고 본다(박정재 2013; 유근배 외 2017). 이후 온난한 기후를 보이다가 4.2ka 이벤트를 전후하여 한랭해졌다가 다시 온난해지는 양상을 보인다(유근배 외 2017).<sup>8)</sup>

한반도의 홀로세 기후변화 양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한반도 대부분은 9-6ka BP 사이, 남해안 일부와 제주도의 경우 약 6ka BP 이후에 홀로세 기후최적기가 도래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박정재 2013; 유근배 외 2017), 위도에 따라 기후최적기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종료되는 시점이 늦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박정재 2013)<sup>9)</sup>한다.



8) 그는 8.2ka 이벤트 이전을 초기, 8.2ka 이벤트~4.2ka 이벤트를 중기, 4.2ka 이벤트 이후를 후기로 구분하고 있다.

9) 그는 화분자료 상의 소나무 및 참나무 비율변화를 통해 기후최적기의 식생변화 시기를 살펴본 있는데, 동해안은 속초 영랑호에서 7,600년 전, 주문진 향호에서 7,500년 전, 강릉 순포개호에서 6,800년 전, 포항에서 6,300년 전, 서해안은 파주에서 7,500년 전, 천리포에서 6,600년 전, 광주에서 5,900년 전에 소나무가 증가하고 참나무는 상대적으로 급감한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도 10> 신석기시대 연평균 기온(Mean Annual Temperature, MAT) 변화  
(이상규 · 박가영 2019 그림 2·4·6·8·10에서 수정재)

또한 신안군 비금도 퇴적물 분석에서 8.2ka 이벤트, 강원도 포매호의 자료에서 4.2ka 이벤트와 관련된 증거가 확보되기도 하였다(박정재 2018).

이상을 볼 때, 일반적으로 8.2ka 이벤트 이후부터 신석기 전기단계까지 홀로세 기후최적기가 존재하는데, 위도에 따라 홀로세 기후최적기의 시기는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석기시대 어로구는 8.2ka 이벤트 이후 동해안 및 남해안에서 본격적으로 유적이 점유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기후 안정화와 더불어 각 지역에 따라 작살 및 결합식낚시와 같은 특징적인 어로구들이 등장하여 어로문화가 성립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전기 홀로세 기후최적기 동안 남해안지역에서는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작살과 결합식낚시를 이용한 어로활동이 활발히 일어난다. 동해안에서는 초기 단계에 남해안지역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지만, 전기 단계는 유적 점유양상과 더불어 어로양상도 뚜렷하지 않다. 기후적인 측면에서는 중부 동해안에서 홀로세 기후최적기가 약 7,500~7,000년 전에 종료된다는 견해(박정재 2013)를 본다면, 초기 말 기후한랭화 경향에 따라 유적점유가 원활하지 않은 정도로 추정 가능하다.

2단계에는 한반도 어로문화에서 획기를 이루게 된다. 이 시기 기후는 기후시물레이션에서 보듯이 조·전기에 비해 기온 폭이 넓게 나타나는데, 이는 위도에 따른 홀로세 기후최적기의 존속시기가 달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후의 한랭화가 상당히 진전되는 와중에 아직 홀로세 기후최적기의 영향 하에서 상대적으로 온난했던 동남해안지역에서 기존 작살·낚시 중심의 어로문화가 존속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후시물레이션 상에서도 중기단계 동남해안 지역은 조·전기에 이어 연평균기온 12°C의 데이터가 얻어지고 있다.<sup>10)</sup>

3단계 기후는 기후 시물레이션 상 후기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후기의 늦은 단계 또는 후·말기 전환기 즈음으로 생각되는 시기에 있었던 4.2ka 이벤트의 존재로 인해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전기에 비해서는 한랭한 기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전반적인 양상은 ‘소규모화 및 간략화(임상택 2006)’로 설명된 바 있다. 이는 어로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로구 출토 수량 및 유적의 감소, 어로도구 조성의 간략화로 나타나 기후적인 측면에서는 4.2ka 이벤트의 영향이 말기에 전반적으로 미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 2) 신석기시대 문화변동과 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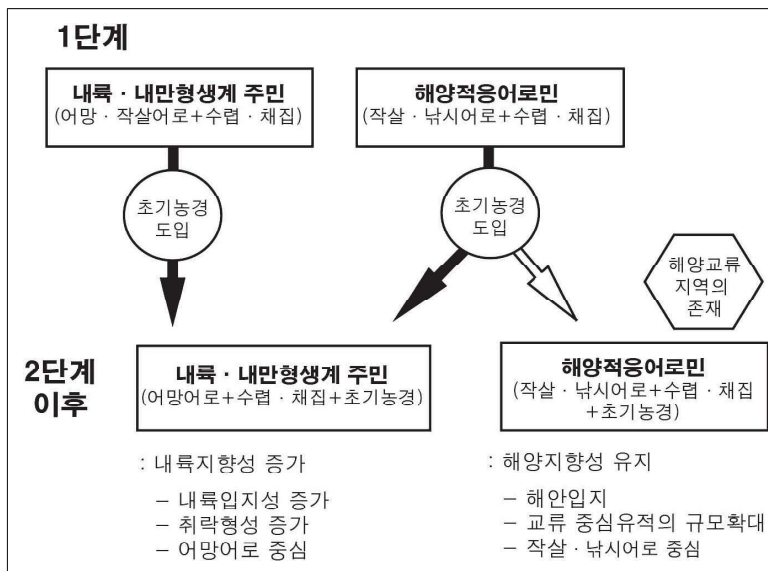
신석기시대 문화양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중기단계로 볼 수 있다. 중기 단계 한반도 내 가장 큰 문화적 변화는 동북아시아 차원의 광역 문화변동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주지하듯이 토기 상에서 남해안 일대는 조기의 용기문 토기와 전기의 자돌·압인문 토기가 각 시기 주체를 점하지만, 중기 이후 토기의 문양이 침선화 한다. 토기문양의 침선화 양상은 비단 한반도 내 양상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양상이다. 大貫靜夫(1988)는 동북아시아 일대의 토기 흐름을 극동평저토기군 전반의 요서·요동지역 연속호선문토기 문화군, 송눈평원-아무르 중류지역 용기선문토기 문화군, 연해주-아무르 하류지역 아무르편목문토기 문화군, 한반도 동북부 일대 보이스만문화가 후반에 이르

---

10) 물론, 중기단계 어로문화변동이 온전히 기후의 영향 때문인 것은 아니며, 어로를 포함한 중기 단계 한반도 내 문화변동양상은 훨씬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이상규 2020 참조).

러 요서지역 홍산 및 소하연문화, 요동지역 소주산 중층 문화군, 아무르 중·하류 보즈네 세노프카문화, 연해주-한반도 동북부지역 자이사노프카로 구분되는 획기와 지역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가 구분한 극동평저토기 전반과 후반의 문화변동은 한반도의 양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宮本一夫(2010)는 3,500BC경 조·수수 농경이 요서지역 갈돌·갈판 및 유엽형 마제석촉으로 대표되는 화북형 농경석기와 함께 즐문토기하는 토기양식이 조합되어 한반도에 확산되며, 연해주 남부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본고의 2단계인 신석기 중기단계는 초기농경의 확산과 더불어 동북아차원의 문화변동이 나타나며, 어로의 양상 또한 이와 연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필자는 이와 관련한 이전 논고(이상규 2020)에서 1단계 동북아시아 동부(한반도 동·남해안 및 연해주)의 화살촉·작살·낚시 중심의 생업도구 조성이 2단계에서는 동북아시아 서부(요서·단동·한반도 중서부)의 어망추와 굴지구, 갈돌·갈판 중심의 생업도구조성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sup>11)</sup> 하지만 2단계 이후에도 동남해안지역은 지속적으로 작살과 낚시류의 어로구가 사용되며, 동삼동과 육지도의 경우 이전 단계보다 유적의 규모도 커지고 어로구의 출토량도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초기농경문화의 확산과정 중에서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동남해안역 뿐아니라 산동반도와 요동반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양 지역은 해양을 통한 교류활동이 활발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도 11> 초기농경 도입에 따른 기존 생업경제의 변화 (이상규 2020 그림 85에서 전재)

## 2. 교류의 변화와 요인

동남해안지역은 지리적으로 주변문화군의 중심에 위치하여 복합적인 양상이 보인다. 동남해안지역은 초기 단계 기후최적기(Climatic optimum)의 도래와 더불어 매우 빠르게 어로문화가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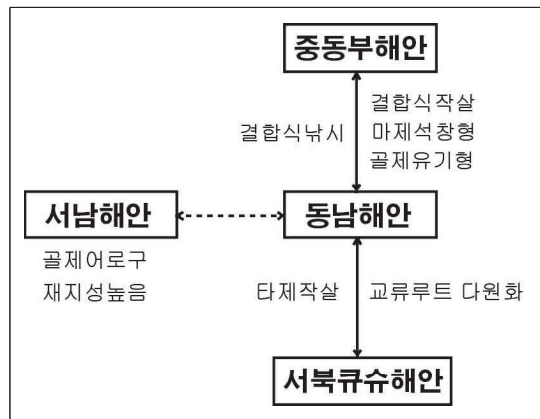
11)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필자의 이전 논고(이상규 2020 참조)

하며, 이 단계에 활발한 교류진출이 나타난다. 1단계 동남해안지역과 중동부해안지역의 교류양상은 마제석창형 작살은 중동부해안과 동남해안에 모두 있지만 타제석창형 작살은 중동부해안지역에서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나, 결합식작살의 시기가 문암리 출토품이 이르다는 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중동부 해안지역의 문화가 동남해안지역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동남해안지역 역시 독자적인 문화가 존재하며, 어로구 상에서는 기본적으로 타제석기에 대한 전통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타제석기 전통은 서북큐슈해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동남해안과 서북큐슈해안지역은 타제석촉형과 타제석창형 같은 매우 유사한 어로문화를 상호 공유한다. 이 단계 동남해안과 서북큐슈해안의 양안지역 내 상호지역의 토기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점 등 교류가 전방위적으로 매우 강하게 나타나며, 특히 큐슈북부해안 지역에 집중하는 있는 점 등에서 흑요석 산지인 고시타카(腰岳)와도 무관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sup>12)</sup>. 서남해안지역은 유적의 입지가 대체로 원도권이며, 특유의 여서도형 작살 등 골제 중심의 어로구 조성을 보이고 있어 현재 자료상으로는 어로구에서 동남해안지역과의 연결성은 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2단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후적으로 한랭화경향이 진전되며, 동북아시아의 큰 틀에서 문화변동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한반도 해안지역에 전반적으로 어로구가 출토되는 유적 수가 감소하여, 한반도 내 해양교류는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이다. 대신 동남해안지역과 서북큐슈해안지역 간의 교류는 유지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이전 단계와는 다르다.

2단계 동남해안과 서북큐슈해안은 어로구의 종류는 석제작살, 결합식 및 단식납시로 비슷하지만, 타제석창형 작살의 두께차이나 결합식납시의 결합방식차이, J자형 단식납시의 유무 등 양 지역 간의 상이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동남해안지역 주변의 중동부해안 및 서남해안과의 해양 및 어로관련 교류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남해안-서북큐슈해안 양안지역 간 상이성의 발현은 이전 단계 큼의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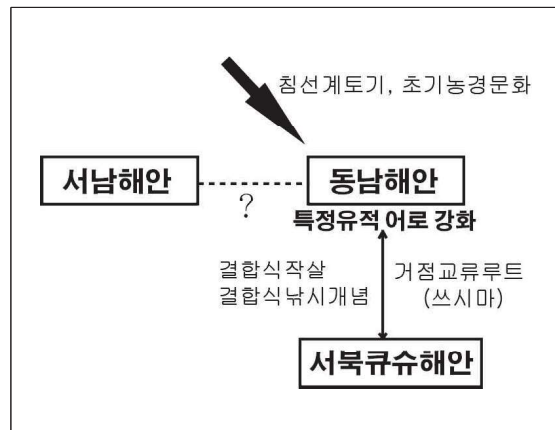
이 단계 교류의 양상은 기존 연구에서 접촉지대가 쓰시마(對馬島)를 중심(宮本一夫 2004; 임상택 2008)으로 이루어지



<도 12> 1단계 교류의 양상

12) 최종혁(2009)은 용기문토기 단계에 흑요석·사누카이트의 구입목적으로 동삼동과 거제도지역에 특정집단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 있어 교류의 루트가 1단계에 비해 단순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서북큐슈지역 내 남해안 토기는 주로 쓰시마에 분포하며, 큐슈에는 신석기후기 단계에 해당하는 파수부호 등 몇 점만 확인된다(하인수 2006c). 하지만 소바타식(曾畑式)토기는 남해안지역 뿐 아니라 남쪽으로 류큐열도까지 확산되고 있어, 기본적으로 서북큐슈의 2단계 조몽인들의 활동범위는 상당히 넓게 나타나기도 한다. 즉, 당시 서북큐슈 쪽에서는 한반도로의 도항이 이전 단계와 큰 변화가 없으나, 한반도의 신석기인들은 서북큐슈로의 도항이 활발하지 않은 것이다. 이 단계 동남해안지역은 전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 중서부지역으로부터 침선문계토기·초기농경·봉상 갈돌 및 말안장형 갈판 등의 새로운 문화가 확산해 온다. 또한 대부분 해안지역 점유 일색이었던 유적 입지도 내륙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어로의 방식도 잘살·낙시어로 중심에서 어망어로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동남해안지역 일대에 커다란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는 시기이다. 기후적으로 한반도 전역의 한랭화 경향 가운데, 최적기의 영향이 남아 있는 동남해안지역에서 일부 잘살·낙시와 같은 어로구가 출토되는 유적이 남아 있기는 하나, 이 시기 남해안 일대의 해양진출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다. 따라서 1단계에 이어 지속적으로 강한 해양성을 가진 동삼동 및 육지도와 같은 유적들을 해양교류 거점으로 삼아 쓰시마지역과 교류루트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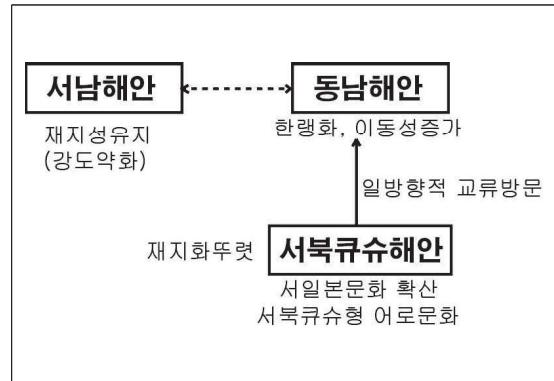
<도 13> 2단계 교류의 양상

3단계는 4.2ka 이벤트 이후 기온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한랭화의 경향이 강하여 신석기 말기 도구의 소규모화 및 간략화, 그리고 이동성 증가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동남해안과 서남해안에서 모두 골제 어로구 중심으로 어로구의 내용도 간략하게 나타난다. 동남해안과 서남해안이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나, 이전 보다 교류의 강도가 강해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전반적인 어로의 쇠퇴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서북큐슈지역의 상황은 한반도 남해안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어로구의 종류와 수량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나 어로구 측면에서는 가장 상이성이 높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영남지역 내 조몽후기의 토기는 동삼동·상노대도·육지도·울막개 등 부산·통영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교류의 공간적범위 자체도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지만, 조몽후기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에서는 토기출토 수량이 이전 시기보다 많고, 형식도 다양하다(하인수 2006b). 이처럼 전체적으로 1~3기로의 시간흐름에 따라 교류의 공간범



위 감소 및 교류 루트의 단순화 경향이 나타나지만, 서북큐슈→영남해안지역으로의 교류빈도는 더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큐슈지역 내 한반도계 토기는 극히 일부만 확인되고 있어 동남해안지역에서 쓰시마나 큐슈본섬으로의 도항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3단계 동남해안-서북큐슈의 해양교류는 서북큐슈 쪽에서 일방적으로 동남해안으로 찾아오는 모습이다.



<도 14> 3단계 교류의 양상

당시 큐슈지역은 서일본 지역으로부터 마소승문(磨消繩文)계 토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등 재지계 보다는 혼슈 쪽으로 부터의 문화가 크게 작용한다(水ノ江和同 2012 참조). 이에 따라 큐슈지역 내 기존 재지문화와 혼슈의 외래문화가 융합하여 큐슈 지역 내 유적과 유물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어로구의 양상도 이와 함께 매우 풍부해지게 된다. 이 시기 교류의 양상도 변화(田中聰一 2001, 宮本一夫 2004, 하인수 2006c, 최종혁 2009, 古澤義久 2014)가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장신구류가 언급되는데, 임상택(2008)은 큐슈 조몽인의 입장에서 경제적 수요 측면의 교류가 사회적 측면의 교류로 성격이 전환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조몽 후기 서북큐슈지역 장신구류의 폭발적 증가양상 등 당시 사회복합성<sup>13)</sup>과 연동하여 쉽게 구할 수 없는 외산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 IV. 맺음말

해안지역의 해양 적응 수렵채집민들의 교류는 서로 유사한 생업방식에 따라 상호 지식과 기술 공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일부 흑요석과 같은 물건의 교환이 전제되는 교류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교환의 개념이 신석기시대 해양교류의 본질은 아닐 것이다. 각 지역은 지식과 기술의 공유 속에서도 기본적인 재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지성의 발현 정도에

13) 한반도 역시 가덕도 장항유적 무덤 내 부장품의 차별성 등에서 조·전기 단계부터 복합수렵채집사회의 성격(임상택 2017, 申鍾煥 2017)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 교류의 강도를와 범위를 가늠할 수 있다. 동남해안 및 주변지역에서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하는 동남해안지역은 주변 중동부해안, 서남해안, 서북큐슈해안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 교류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하지만 각 지역과의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금씩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중동부해안지역과의 관계에서 중동부해안의 마제석창형 작살의 개념이 수용되어 동남해안의 어로구 구성에 포함되며, 상호 교류를 통해 결합식납시의 형태가 변화하는 활발한 교류상을 보인다. 하지만 전기단계 중동부 해안지역 유적점유가 불명확해지면서 결합식납시의 형태가 고정되고, 마제석창형 작살이 재지성이 강한 타제석창형으로 전환된다. 서남해안의 경우 고유의 여서도형 작살이 형태적으로 큰 변화 없이 지속하며, 동남해안지역의 석제어로구 전통이 불투명 한 점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교류 빈도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서북큐슈 해안지역과는 1단계 동남해안과 동일한 타제작살 전통으로 상호교류가 활발한 점을 알 수 있으며, 2 단계에는 동남해안과 유사한 타제작살, 결합식, 회전식 작살 외에 유적의 분포나 동남해안의 정면결합식과는 다른 상하결합식의 납시의 등장 등 재지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후 3단계에는 동남해안의 양상과 완전히 다르고, 유물의 형태적 변화도 크지 않는 등 양 지역 재지성이 뚜렷해져 상호교류의 측면은 상당히 빈약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재지성의 변화는 사회 내부, 그리고 외부요소들에 의해 특징지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중 사회 외적 요소들에 의한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남해안지역은 2단계 이후 사회 외적 요소인 환경적, 문화적 상황의 차이에서도 전개과정이 달라지며, 이 속에서 교류의 온도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단계를 큰 획기로 둔 교류양상의 변화라는 측면을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술한 3단계의 변화상이나 이외 1 단계 교류관계의 성립은 사회 외적인 요소 보다는 내적요소에 의한 설명도 필요하여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가 향후 다른 연구자들의 교류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앞으로 필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삼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박성근, 2013, 「남부지역 신석기시대 석부 연구」, 『韓國考古學報』第86輯, 韓國考古學會
- 박정재, 2013, 「남한지역의 홀로세 중후기 기후변화」, 『기후연구』 8.
- 박정재, 2018, 「한반도 홀로세 기후변화 연구의 최근 성과」, 『동아시아에서의 한국 상고사』, 한국상고사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제48회 학술대회, 한국상고사학회.
- 裴亨坤, 2019, 「한반도 신석기시대 자돌어업(刺突漁業)연구」, 木浦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宋賢景, 2012, 「신석기시대 후·말기 이중구연토기의 전개과정」,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申鍾煥, 2017, 「韓國 新石器時代 社會 文化相 研究」,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유근배·류호상·신영호, 2017, 「한국의 홀로세 기후변화 복원을 위한 과제」, 『국토지리학회지』 51-2.
- 이상규, 2020, 「동북아시아 신석기시대 어로문화 변동과정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규·박가영, 2020, 「신석기시대 기후 변화와 어로변화」, 『기후 변화와 신석기시대 문화변동』, 한국신석기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2020년도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林尙澤, 2008, 「新石器時代 大韓海峽 兩岸地域 交流에 대한 再檢討」, 『嶺南考古學』 47.
- 林尙澤, 2017, 「한반도 신석기시대 복합수렵채집사회 성격 시론」, 『韓國新石器研究』 30.
- 田中聰一, 2001, 「韓國 中·南部地方 新石器時代 土器文化 研」, 東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鄭澈, 2017, 「한반도 남부지역 신석기시대 흑요석제 석기 연구」,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최종혁, 2009, 「한반도 남부지방 신석기 문화」, 『韓·日 新石器時代의 漁撈와 海洋文化』, 製8回 韓·日 新石器時代 共同學術大會 發表資料集, 韓國新石器學會·九州繩文研究會.
- 河仁秀, 2006a, 「嶺南海岸地方의 新石器文化 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河仁秀, 2006b, 「동남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어로구」, 『신석기시대의 어로문화』, 동삼동패총전시관 .
- 河仁秀, 2006c, 「신석기시대 한일 문화교류와 흑요석」, 『한국고고학보』 58.
- 河仁秀, 2020, 『신석기시대 고고학』, 진인진.
- 古澤義久, 2014, 「玄海灘島嶼域を中心にみた繩文時代日韓土器文化交流の性格」, 『東京大學考古學研究室研究記要』 第28号.
- 古澤義久, 2018, 『東北アジア先史文化の変遷と交流』, 六一書房.
- 宮本一夫, 2004, 「北部九州と朝鮮半島南海岸地域の先史時代交流再考」, 『福岡大學考

古學論集-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

宮本一夫, 2010, 「일본열도의 문명기원과 교류」, 『동아시아의 문명 기원과 교류』, 檀國  
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橘昌信, 1979, 「石銛 - 西北九州における縄文時代の石器研究 二」, 『史學論叢』第10号,  
別府大學史學研究會

大貫静夫, 1988, 『東北アジアの考古學』同成社.

福田一志, 1999, 「西北九州における縄文後期遺跡の特性」, 『西海考古』創刊號.

水ノ江和同, 2012, 『九州縄文文化の研究-九州からみた縄文文化の枠組み-』雄山閣.

田中聰一, 2003, 「日韓新石器時代土器編年の併行関係」, 『先史學、考古學論究IV』

川道寛, 2013, 「石銛と鋸齒尖頭器の二者」, 『長崎県埋藏文化財センター研究紀要』第3号

\*유적보고서는 생략함.



# 「신석기시대 동남해안지역 해양교류양상 변화

- 어로구의 양상을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최종혁

경남문화재연구원

발표는 신석기시대 동남해안 지역과 주변 지역(중동부해안·서남해안·서북큐슈해안)과의 교류 양상을 어로구 양상과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논하고 있으며, 특히 서북큐슈해안 지역과의 교류 양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석기시대 시기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하고, 어로구 중 시기적·지역적으로 변화를 보이는 작살류와 낚시류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각 단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단계는 중동부 해안지역과 동남 해안지역이 마제석창형 작살과 결합식 낚시로 교류 관계를 나타내지만, 서남 해안지역은 골각제 어로구가 중심으로 독자성을 나타내는 지역으로, 서북큐슈 해안지역은 타제석촉형과 타제석창형 작살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단계는 전 지역에서 큰 변화를 보여 중동부 해안지역은 어망어로와 남해안 지역의 낚시류가 사용되며, 동남 해안지역은 어로문화가 축소되지만, 특정 유적(동삼동과 옥지도)에서는 어로에 대한 강화를 보인다. 서북큐슈 해안지역은 1단계와 달리 유적 분포범위가 해안 지역까지 확산하며 다양한 어로구가 나타난다.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에서 결합식낚시라는 개념을 수용한 단계로 보고 있다. 3단계의 동남해안 지역은 전반적으로 어로가 쇠퇴하며, 서남 해안지역에서는 2단계에 문화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1단계와 비교해 어로구는 감소하지만 1단계의 전통을 가진 어로구 조성을 보인다. 서북큐슈 해안지역은 어로구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유적 분포도 더 확장되는 단계로 가장 활발한 어로 활동을 보이

는 단계로 보고 있다. 이러한 특징과 변화에 기온변화와 동북아시아의 관점에서 초기농경의 개시 등으로 1단계는 중동부 해안지역과 동남 해안지역, 동남 해안지역과 서북큐슈 해안지역의 교류, 2단계는 동남 해안지역에 침선계토기와 초기농경문화의 유입으로 어로 활동의 소극화와 특정 집단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며 서북큐슈 해안지역과의 사이에 위치한 대마도를 거점교류 루트의 중심지로 보고 있다. 3단계는 동남 해안지역은 한랭화로 인해 이동성이 증가하며 어로 활동이 쇠퇴하는 반면, 서북큐슈 해안지역은 어로 활동이 가장 활발한 단계이며 남해안 일대에서 출토하는 조몬계 토기로 서북큐슈 해안지역에서 동남 해안지역으로의 일방적인 교류 방문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인 교류의 흐름에 대해서는 토론자도 대동소이하지만, 동남 해안지역과 서북큐슈 해안지역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양상(교류 목적·교류 품·사람 이동 등)에 대한 언급이 적어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1. 1단계를 용기문토기와 영선동식 토기, 早期末-轟B式 토기와 西唐津式 토기로 구분하였는데 각 지역에서 두 형식의 토기는 큰 변화를 보인다. 물론 석기나 골각기 등으로 세분하는 것은 현재 곤란하겠지만, 차후 세분해서 보는 것은 어떨지 발표자의 의견을 부탁드린다.

2. 중동부 해안지역과 동남 해안지역의 1단계 교류 문제인데 발표자께서는 마제석창형 작살과 결합식낚시 등으로 중동부 해안지역에서 동남 해안지역으로의 전파 흐름으로 보고 계시는데 결합식낚시(J자형)·조합식작살은 중동부 해안지역에서 남해안식 용기문토기가 출토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전파의 흐름이 동남 해안지역에서 중동부 해안지역으로 보는 것은 어떨지 발표자의 의견을 부탁드린다.

3.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조기에 어로 활동이 생업 활동으로 처음 등장함과 동시에 가장 활발한 외양성 어로 활동이 행해진다. 그러면 대마도 북서쪽에 위치한 유적(越高浜遺跡 A地点·越高浜遺跡 B地点 등)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 용기문토기를 비롯한 신석기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4.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중기, 즉 발표문의 2단계는 발표자도 언급하였듯이 초기농경의 도입으로 생업·유적 입지 등 신석기시대 문화 전반에 큰 변화를 보이는 시기이다. 따라서 교류에도 물품을 비롯해 사람 이동 등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발표에서 언급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인 양상(교류 목적·교류 물품·사람 이동 등)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5. 동남 해안지역과 서북큐슈 해안지역의 사이에 있는 대마도의 경우 두 지역의 교류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발표자께서 대마도를 거점교류루트로 말씀 하셨는데 대마도의 시간과 공간에 따른 양상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6. 보통 교류와 전파로 인해 나타나는 고고학적 형태로는 크게 그대로 받아들여진 반입 품, 전체 또는 부분을 모방한 모방품, 영향에 의해 재지화 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3단계에 동남 해안지역에서 출토한 繩文係 토기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이 있으 시면 부탁드립니다.





2021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

# 가야 선주민의 바닷길과 대외교류

對  
外  
交  
流

주제발표

## 선사시대의 낙동강 중하류부 고지형 변화

김 정 윤 (한국사회과학연구원)



# 선사시대의 낙동강 중하류부 고지형 변화

김정윤  
한국사회과학연구원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낙동강 중하류부의 선사유적 분포 |
| II. 낙동강 중하류부의 지형 및 경관 변화         | V. 요약 및 결론            |
| III. 선사시대 동안 낙동강 중하류부의 고지형 변화 복원 |                       |
- 

## I. 서론

낙동강 중하류부와 남해안 일대에 형성된 선사시대 유적의 입지와 생활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환경을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 선사시대의 지형경관은 현재와 달랐으며, 이는 최성빙기 최성기 이후 해진과 해퇴에 따른 충적평야의 발달과정과 함께 변화되어 왔다. 낙동강 하류부의 충적평야는 해안선이 물러가는 Holocene 후기 동안 이루어진 퇴적작용에 의해 토지이용이 가능해진다.

낙동강 하류부의 경관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Holocene 중기 이후의 해수면 변동 기록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신석기 초기 이후부터 삼한시대까지 이르는 선사고대 시기에 해당된다. 선사고대에 조성되는 유적 및 유구는 해안 및 대하천의 하류부에 주로 존재하며, 최근까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하여 많은 성과와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해수면 변동과 관계 지워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논의한 경우는 드물다.

창녕 비봉리 유적의 경우, 남해로부터 내륙으로 직선거리 약 40km 가량 떨어진 위치에 있지만 유적이 만들어지던 시기에 이 지역은 해안가 였다는 것으로 밝혀졌다(황상일 외, 2013). 이 유적은 Holocene 중기 즉 7,000~6,000 yr. BP를 전후로 한 시기에 형성된 유적

으로 도토리구덩이와 패총, 배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한반도에서 선사시대동안 해수면 변동 기록이 유적의 입지와 유적의 성격을 해석하는데 의미가 있다. 더하여 비봉리 유적의 고환경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로 해수면 변동 기록에 있어 해수면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하였던가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해수면이 도달한 수준에 따라 당시 해안선의 위치가 달라지며, 앞서 논의한 유적들의 입지와 인간 생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수면 변동 기록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 해수면 변동 연구는 최종빙기 최성기 이후 해수면의 상승 패턴, Holocene 동안의 고해면기에 대한 논의 그리고 해수면이 현재수준에 도달한 시기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다. 즉, 해수면이 진동하면서 상승하여 7,000~6,000y. BP 경 거의 현재 수준 또는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미변동을 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였다는 주장(조화룡, 1980; 황상일 외, 1997; 황상일, 1998; 황상일 외, 2009)과 최종빙기 최성기 이후 해수면은 평활하게 상승하여 6,000y. BP 경에는 약 -5.5~-6.0m 정도에 도달한 후 5,000y. BP 경을 경계로 상승속도가 감소하면서 현재 수준에 도달했다는 주장(장진호 외, 1996)이 있다.

최근 해수면 변동 연구 결과는 최종빙기 이후 해진극상기인 약 7,000~6,000y. BP 경까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급격하게 상승하여 현재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후 현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현재 수준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황상일·윤순옥, 2002, 황상일 외, 2009, 2013, 김정윤, 2019, 김정윤 외, 2015). 이들의 연구는 주로 퇴적층에 존재하는 미화석인 규조류를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였는데, 해수면 변동 기록은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으나 전체적인 경향은 대부분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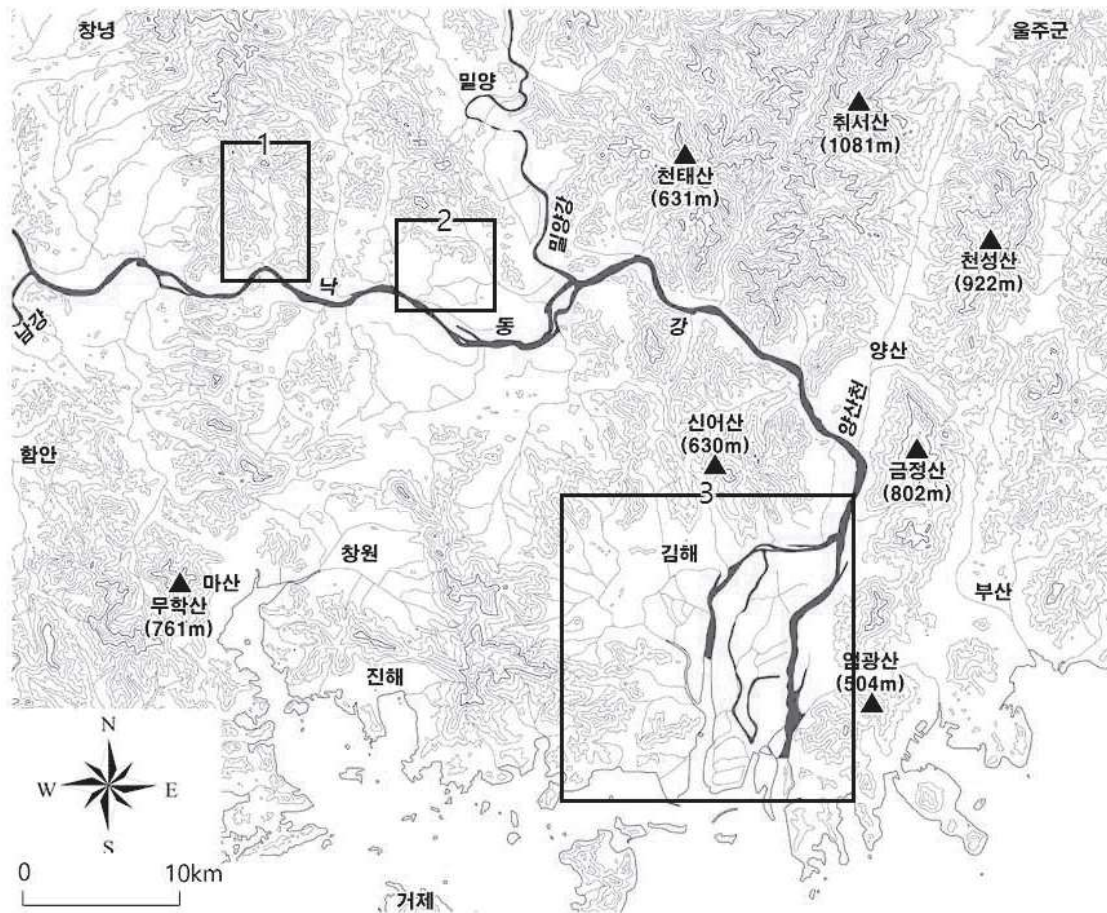
최근 한반도 해수면 변동 연구기록에 의하면 해진극상기 이후 신석기 시대의 고해수면기와 청동기 시대의 해수면 하강 그리고 삼한시대의 상대적 고해수면기에 의해 지형경관이 발달되어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김정윤, 2009, 2019). 이는 당시 선사인들의 유적의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적의 성격을 해석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된다. 앞서 논의했던 해안충적평야가 해수면이 물러나는 시기 이후 농경과 같은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동기시대 이후 해수면하강과 삼한시대에 상대적 고해수면기를 거치면서 홀로세 후기동안의 해수면변동은 농경, 교통 등 다양한 인간생활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정윤 외, 2015).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수면 변동 기록을 기초로 한반도 남해안으로 유입되는 낙동강의 중하류부의 충적평야 지형발달을 논의함으로써 선사 고대 시기동안의 유적의 입지와 인간 생활상을 논의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Ⅱ. 낙동강 중하류부의 지형 및 경관 변화

### 1. 낙동강 중하류부의 지형

낙동강의 중하류부는 전체적으로 북동쪽의 해발고도가 높고 남서쪽으로 해발고도가 낮은 지형 단면을 보인다. 낙동강 중하류부 지역의 북동부는 소백산맥의 능선에 해당되는 취서산, 천성산과 같은 해발고도 1,000m 내외의 산지로 고산지대를 이루고 남쪽과 서쪽 방향으로 낮은 침식 구릉과 낙동강 및 그 지류에 의해 개석됨에 따라 침식분지가 형성되어 있다. 동부지역은 태백산맥의 말단부가 제3기 단층운동에 의해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이어지는 양산단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산지 말단부에는 소규모의 선상지가 발달하며, 구조운동에 의한 하안단구가 2~3단 정도 확인된다. 이는 단층이 형성되는 과정에 의한 지각변동과 그 사이 진행되었던 준평원화 작용의 결과로 형성



<도 1. 낙동강 중하류부 지형경관(한승희, 2007에서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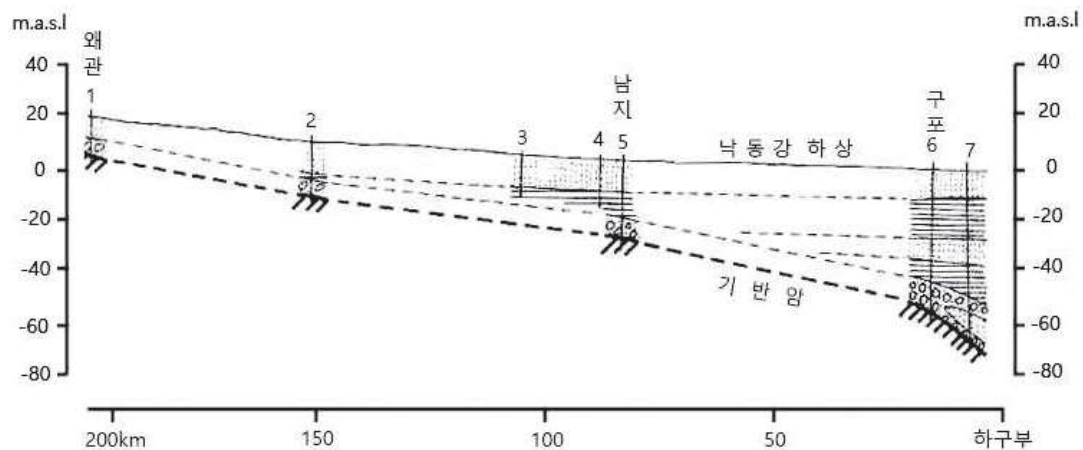
된 지형이다.

낙동강은 경상남도 함안과 창녕군의 경계에서 남강과 합류하여 동쪽으로 흘러 밀양시 삼랑진읍과 김해시 생림면의 경계지점에서 밀양강과 합류한다. 이후 낙동강은 남동류하다가 양산천과 합류하며 남류하며 남해로 흘러들어간다. 낙동강과 주요 지류들과 합류하는 지점에서 남지평야, 하남평야, 대신평야, 밀양평야, 김해평야 등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하고 있다. 이 평야들은 해발고도 10m 내외로 낮아 집중호우 시 범람에 의하여 수해를 자주 입었던 곳이다. 최근에는 다목적댐과 제방, 보 등 수리시설을 정비하면서 수해가 줄어들고 논 혹은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곡창지대로 발전하게 되었다. 낙동강 하굿둑을 건설하기 이전에는 남해의 바닷물이 삼랑진까지 역류하였는데, 1987년 하굿둑의 건설과 낙동강 하류부의 지류하천을 정비하면서 지금과 같은 김해평야가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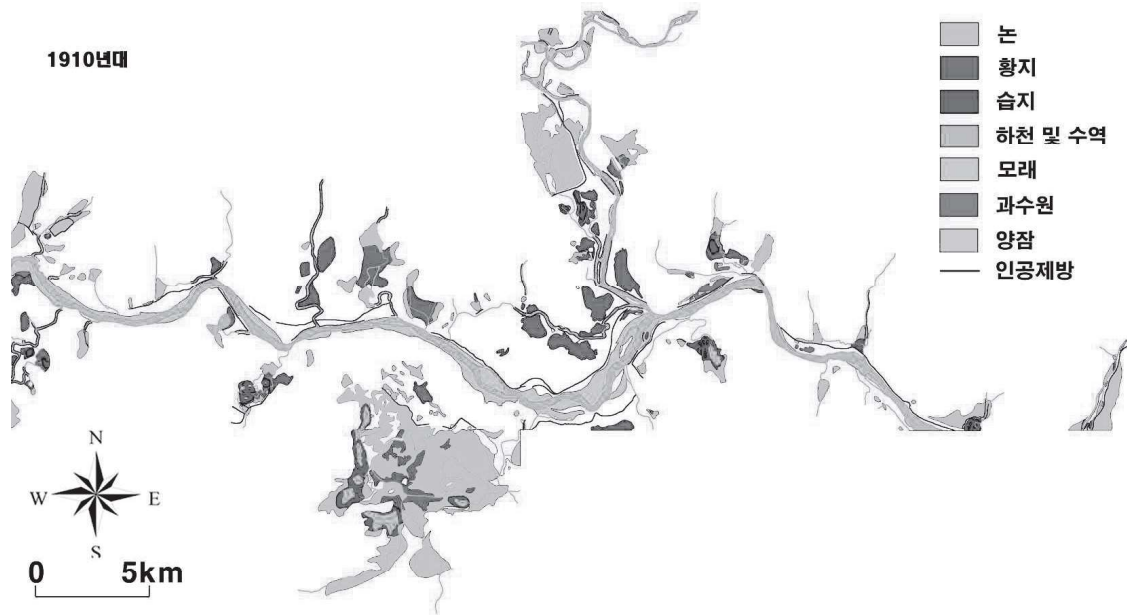
## 2. 낙동강 중하류부의 20C 경관변화와 습지지형 발달

낙동강의 습지는 낙동강 본류와 평행하게 발달하는 습지와 낙동강 지류하천에 발달하고 있는 습지로 구분된다. 낙동강 본류에 의해 하천습지는 주로 낙동강 가장자리의 수위가 낮은 지점에 습지식물이 서식하면서 발달하게 된다. 그에 반해 낙동강 지류하천에 발달하고 있는 습지는 하천습지와 성격이 다르다. 이들은 최종빙기 최성기 이후 해수면 변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습지로 판단된다.

최종빙기 최성기 동안 해수면이 현재보다 120m 가량 낮아지면서 낙동강의 침식기준면이 현저히 낮아져 침식작용이 탁월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낙동강 본류와 지류하천



<도 2. 낙동강 하류부 종단면도(조화룡,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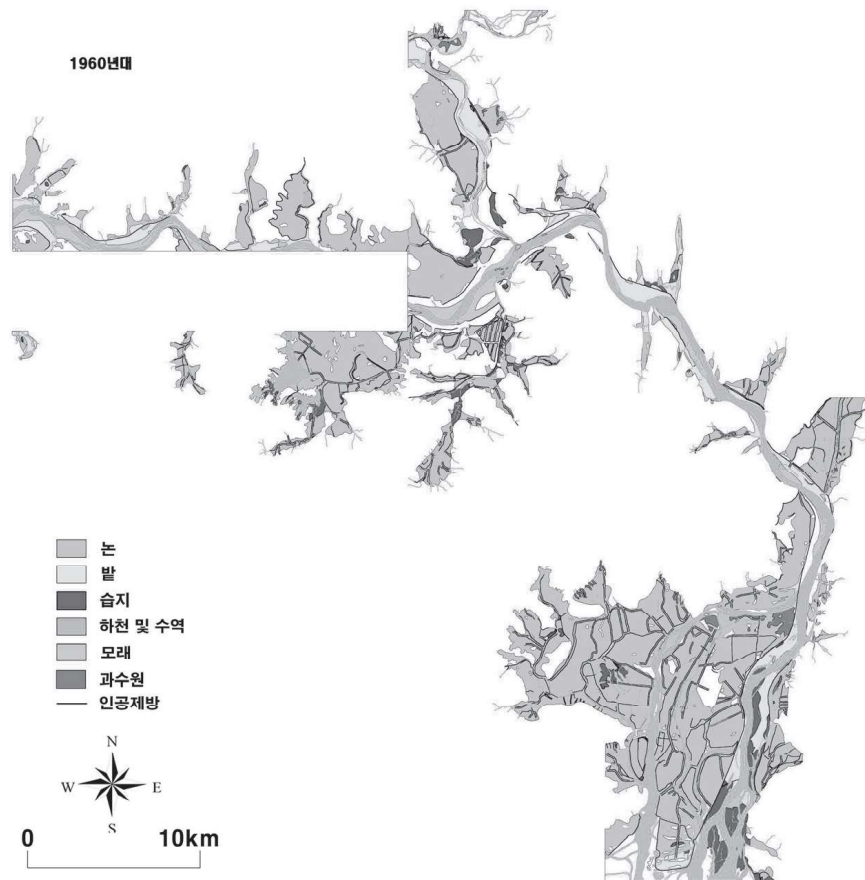
<도 3. 1910년대 낙동강 중류부 토지이용 분포지도(한승희, 2007)>

이 하방침식을 통해 현재보다 깊은 침식곡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의 하천 가운데 낙동강은 한강이나 금강 등 황해로 유입되는 하천에 비하여 익곡의 발달이 탁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해안은 해저 수심이 낮아 대륙붕위를 흘러 바다로 유입되나, 낙동강의 경우 지금의 해안선과 최종빙기 최성기의 해안선과의 이격거리가 짧아 하상 경사가 매우 급했기 때문이다. 이후 Holocene 동안 급격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낙동강 중하류부는 해수의 유입으로 익곡이 되었다. 낙동강 본류를 따라 유입된 바닷물은 Holocene 중기 이후 낙동강으로부터 유입되는 퇴적물에 의하여 매적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낙동강 지류하천 주변지역으로 크고 작은 습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화룡(1985)은 낙동강 종단면을 복원하고 해수면 변동에 의하여 낙동강 충적평야의 발달과정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최종빙기 최성기 동안 당시 낙동강 하상에 퇴적된 기저역층의 존재와 낙동강의 평균 구배의 차이를 통해 논의 되었다. 왜관보다 하류부의 기저역층은 평균 구배가 0.4% 이고, 하류로 갈수록 경사가 급해진다. 현재 낙동강의 하상의 평균 구배는 0.1%인데, 이는 해진극상기 동안 익곡된 침식곡이 매적되면서 평형종단면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도 2).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을 통해 낙동강 충적평야의 매적과 익곡이 반복되었을 것이며,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에 대한 기록은 퇴적암에 포함된 다양한 proxy data를 활용하여 복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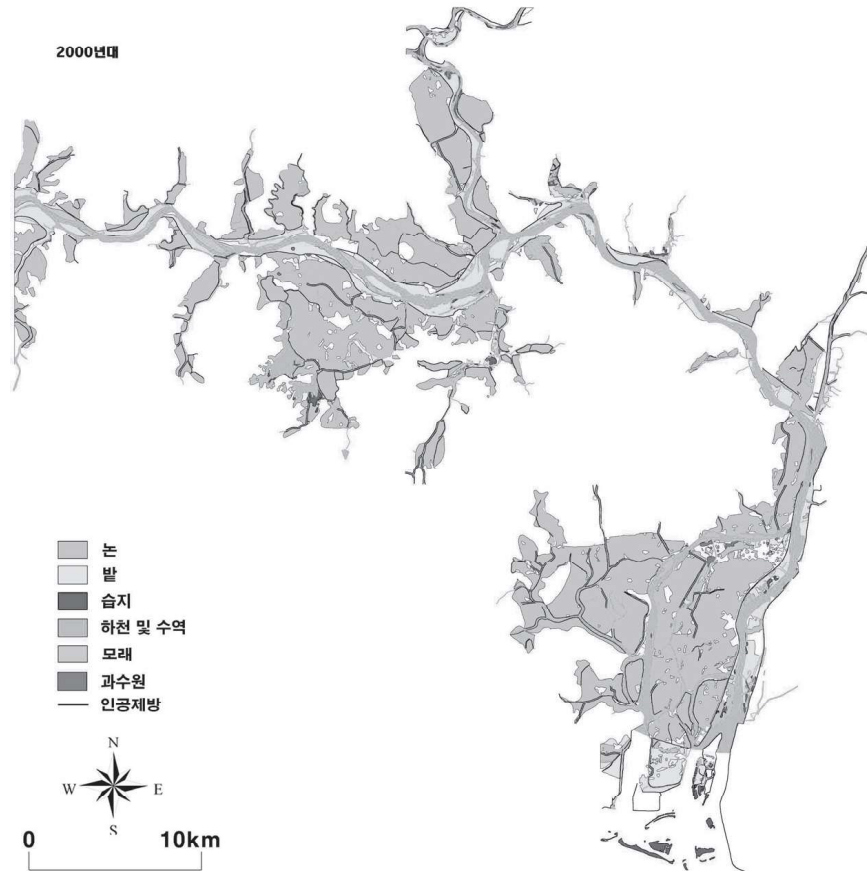
최종빙기 최성기 이후 형성된 낙동강 중하류부의 충적평야는 일제 강점기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1910년대의 토지이용도에는 낙동강 하류부에 대한 정보는 없으



나, 낙동강 중류부의 본류 주변 지류하천과 습지 경관을 확인할 수 있다<도3>. 당시에는 제방 축조 기술이 현재보다 미흡하였으므로 충적평야 가운데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논농사를 지었다. 1960년대 이후 낙동강 본류와 지류하천에 제방을 축조하여 본격적으로 배후습지가 개발되었으며, 습지와 습지 인근의 늪지와 같은 황지의 개간을 통해 논농사가 본격적으로 행해졌다<도4>. 이후 2000년대까지 습지는 지속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과거의 습지는 대부분 소실되었다<도5>. 지금의 지형경관 및 토지이용 환경은 인간활동에 의해 상당히 교란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충적평야와 습지의 공간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910년대 일제 강점기의 토지이용도를 중심으로 일부 추론이 가능하다.



<도 4. 1960년대 낙동강 중류부 토지이용 분포지도(한승희, 2007)>



<도 5. 2000년대 낙동강 중류부 토지이용 분포지도(한승희, 2007)>

### Ⅲ. 선사시대 동안 낙동강 중하류부의 고지형 변화 복원

#### 1. 창녕군 비봉리 지역

##### 1) 창녕군 비봉리 지역 개관

창녕군 비봉리 지역은 신석기시대 패총 유적이 발굴된 곳으로 낙동강의 지류인 청도천 하류부 범람원이 산지와 만나는 곳에 위치한다. 청도천은 경상남도 밀양 청도면 소대리 북서쪽 천루산(618.9m)에서 발원하여 낙동강 하구에서 상류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지점인 학포에서 낙동강으로 유입한다(도1의 1). 청도천 유역분지는 천주산(618.9m), 호



<도 6. 청도천 유역분지(황상일 외, 2013)>

암산(611.6m), 화악산(931.5m) 등과 같은 높은 산지로 이루어진 북쪽 분수계와 천주산, 열왕산(662.5m), 영취산(737.2m), 중앙산(540.0m), 덕암산(544.5m) 등의 서쪽 분수계로 둘러싸여 있다. 높고 험준한 북쪽과 서쪽의 분수계에 비하여 동쪽과 남쪽은 산지의 해발고도가 대부분 300m 내외이며, 특히 하류부에서는 100~150m 정도의 낮은 구릉으로 이어진다(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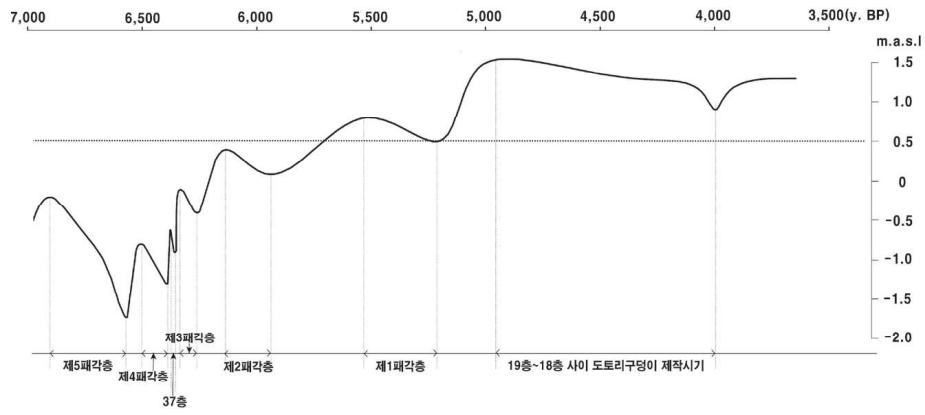
청도천 하류부는 하천의 규모에 비해 범람원의 폭이 매우 넓어서 낙동강에 합류하는 곳에서 비봉리 부근까지 상류쪽으로 약 4km 구간에서 그 폭이 700m~1km에 달하고, 보다 상류 쪽에서는 폭이 250~500m 정도이다. 청도천은 가장 하류부 약 2km 구간에서 자유곡류하는데 지류들이 본류로 유입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평수 위에서는 본류로 유수가 흐르지만 홍수위에서는 지류쪽으로 역류하면서 유수의 흐름이 양 방향으로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만, 하상의 비고차가 크지 않아서 하방침식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의 에너지가 측방침식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형 특성은 비봉리 신석기 유적지가 여전히 낙동강 홍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황상일 외, 2013).

## 2) 창녕군 비봉리 지역 해수면 변동 기록과 지형발달

창녕군 비봉리 지역의 해수면 변동 기록은 <도7>과 같이 복원 된 바 있다(황상일 외, 2013). 이곳의 해수면 변동기록은 퇴적상, 연대측정, 도토리구덩이의 분포 특성, 패층의 범위와 분포 특성 그리고 구조분석을 통해 복원되었다. 이 지역의 복원된 해수면은 해진 극상기인 약 6,800년 BP경 평균 고조위가 현재보다 약 0.5m 정도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6,500년 BP에 현재 수준에 도달하여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5,000년 BP 이후 현재 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약 4,000년 BP경 일시적인 해수면의 하강이 확인된다.

낙동강의 지류에 해당되는 청도천 하류부에 있는 비봉리 지역의 해수면 변동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이 지역의 지형발달과정을 복원하였다(도8). 약 6,800년 전에서 6,100년 전 시기동안 현재 청도천 하류부와 낙동강 일대는 해수가 침입하여 대부분의 충적평야가 바



<도 7. 비봉리 해수면 변동 곡선>



ca. 6,800 y. BP.



ca. 6,100 y. 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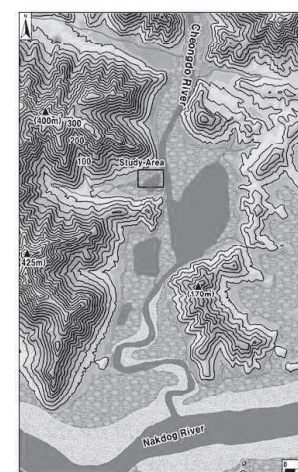
5,000 y. BP.



ca. 3,500 y. BP.



Lagoon around 2,500 y. BP.



Early 20<sup>th</sup> C

<도 8. 청도천 하류부 Holocene 중기~후기 동안 지형발달과정>

다 환경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해진 극상기 동안 대부분의 침식곡이 익곡 된 이후 낙동강으로부터 공급되는 퇴적물과 청도천 상류부에서 유입되는 퇴적물에 의하여 낙동강과 청도천이 만나는 지점과 청도천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부터 퇴적작용이 일어났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간석지와 연안습지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약 5,000년 BP 경에는 해수면이 상승하였으나, 낙동강의 퇴적작용이 우세하고 낙동강의 풍부한 유량으로 인하여 이 지역이 낙동강의 하구부에 해당되는 기수환경으로 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하여 낙동강과 청도천의 합류지점에는 낙동강에서 유입된 모래가 퇴적되어 사주(sand bar)가 발달하였으며, 청도천의 삼각주는 보다 하류부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이후 해수면이 안정되고 낙동강으로부터 유입되는 퇴적물의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청도천과 낙동강의 합류부는 점차 좁아지며, 약 2,500년 BP 경에는 석호의 형태로 발전했으며, 이후 점차 매적되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발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밀양 하남평야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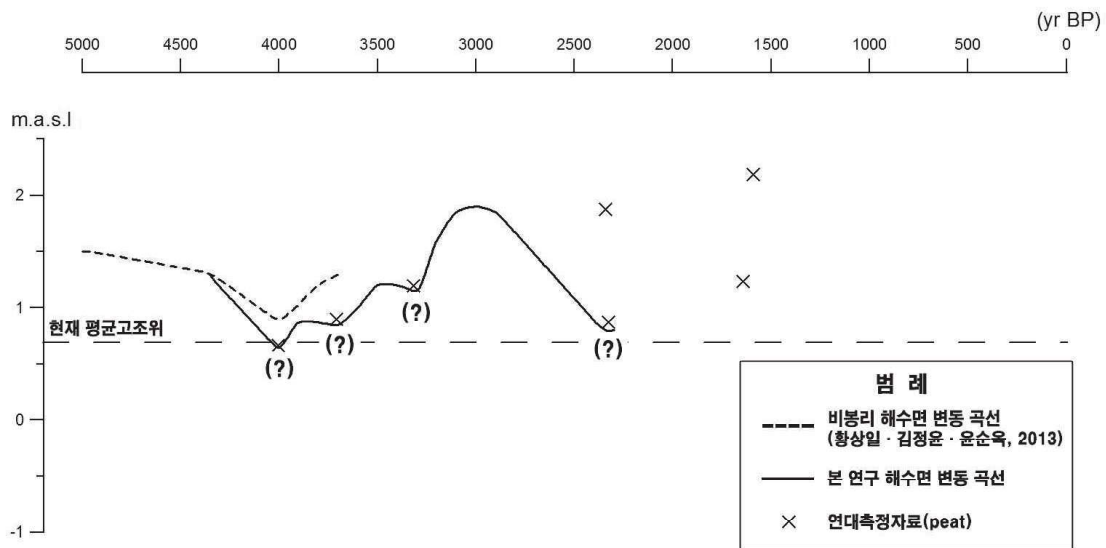
### 1) 밀양 하남평야 일대의 지역 개관



<도 9. 밀양 수산제 일대(정무열, 2015)>

밀양 수산제 일대는 낙동강 하류부에 형성된 충적평야 지형이다.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하여 안동과 대구 일대를 지나 남강과 합류하는 남지 일대까지 지류하천과 합류하면서 소규모의 범람원을 형성한다. 본류 주변의 구릉지와 산지로 인해 넓은 충적평야를 발달시키지 못한 낙동강은 남강을 지나 좁은 곡부를 빠져나오면서 밀양시의 하남평야와 남쪽에 위치한 창원시의 대산평야와 만나게 된다(도9). 산지의 발달이 미약하고 충적평야가 넓은 이 지역은 낙동강으로부터 공급되는 퇴적물이 집중적으로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에서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지점은 주기적인 홍수 피해를 입던 곳이다.

## 2) 밀양 수산제 일대의 해수면 변동과 지형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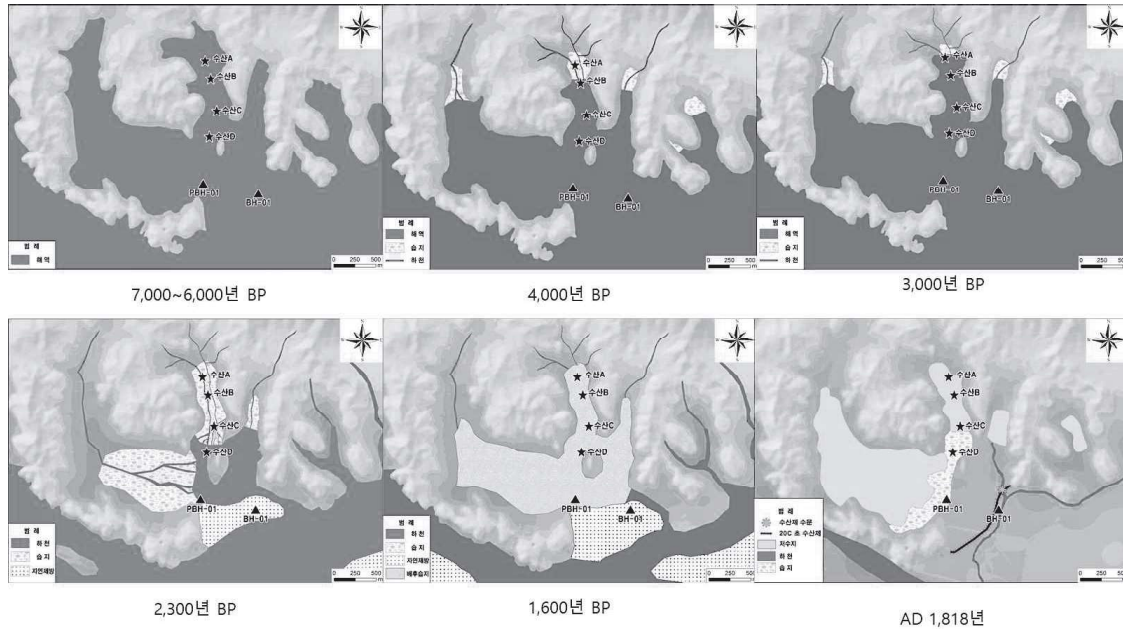


<도 10. 밀양 수산제 일대 해수면 변동 기록(정무열, 2015)>

밀양 수산제 일대에서 퇴적상 분석, 연대측정, 규조분석을 통하여 복원한 해수면 변동 기록은 약 4,500년 전에서 4,000년 전까지 해수면이 하강하다가 다시 소폭 상승하면서 3,000년 전후한 시기에 현재보다 평균고조위가 1m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정무열, 2015). 그 후 약 2,500년 전후한 시기에 해수면이 하강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봉리, 김해 지역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다.

이를 통해 복원한 하남평야 일대의 지형발달 과정은 <도11>과 같다. 해진극상기인 7,000년 BP ~ 6,000년 BP 경 하남평야 일대는 해수의 침입으로 인하여 내만의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해수면이 안정됨에 따라 지류하천으로부터 공급된 퇴적물에 의해 지류하천의 하류부부터 매적이 이루어졌으며, 4,000년 BP 경 일시적으로 하강했던 해수면이 다시 상승함에 따라 지류하천의 하류부로 바닷물이 침입하는 해진(海進)이 발생하였다. 현재 높이보다 약 1m 가량 높은 수준에서 안정되었던 해수면은 2,300년 BP 경에 하

강하였는데, 낙동강 본류를 따라서 사주가 발달하면서 석호의 형태로 발달했다(정무열, 2015). 이후 지속적인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층적평야가 형성되었는데, 일부 지역은 습지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1918년 지도에 의하면 수산제 제방 안쪽에 연못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배후 습지성 호소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도 11. 밀양 하남평야 일대 지형 발달 과정(정무열, 2015)>

### 3. 김해평야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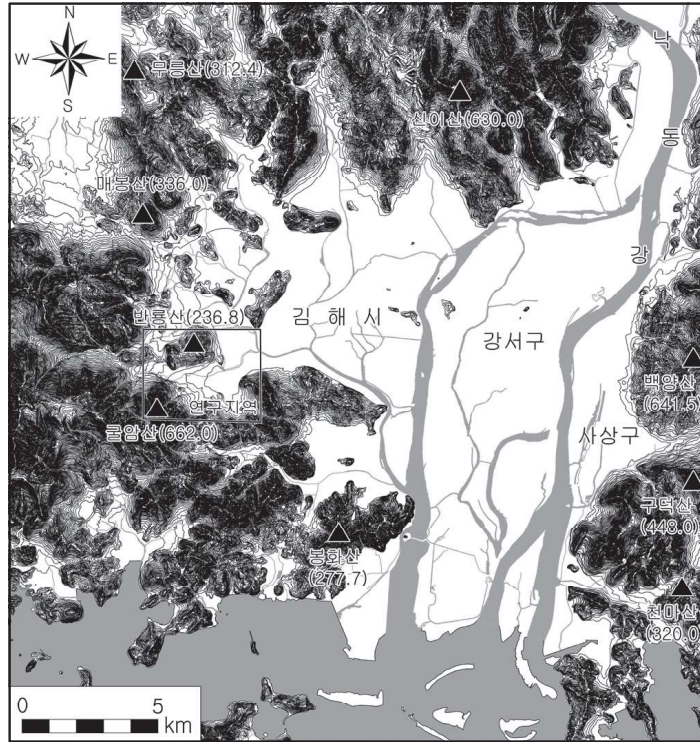
#### 1) 김해평야 일대의 지역 개관

김해평야는 낙동강 하류부 낙동강 삼각주를 지칭한다. 낙동강 삼각주는 낙동강이 구포 상부에서 2갈래로 분류하는 지점에서부터 약 20km 하류의 삼각주 전면에 있는 일련의 사주까지 이어지며 동서 길이는 약 15km 정도이다. 김해평야의 북동쪽은 신어산(630.0m), 오봉산(533.0m), 상학산(638.2m), 백양산(641.5m) 등의 비교적 높은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서남부는 매봉산(336.0m), 반용산(236.8m), 봉화산(277.7m), 천마산(320.0m), 구덕산(448.0m) 등으로 낮은 산지로 둘러 싸여 있으며 낙동강 하구부인 정남쪽은 남해와 연결되어 있다(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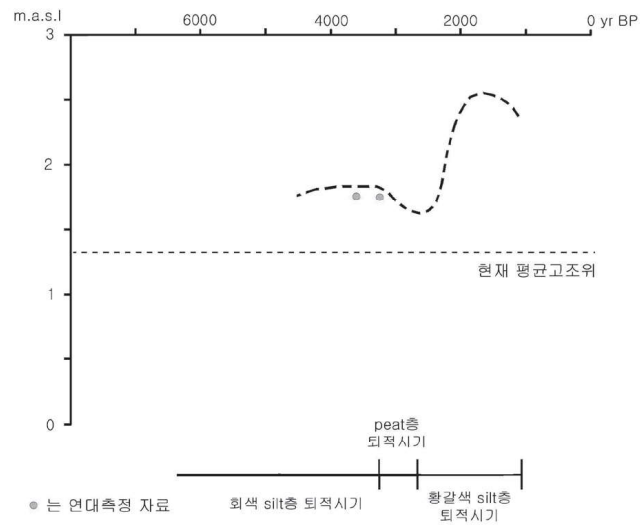
#### 2) 김해평야 일대의 해수면 변동과 지형 발달

해수면 변동 곡선은 김해평야의 북서쪽에 해당하는 율하-관동리 일대 원삼국시대 유적

밭굴지에서 복원하였다. 퇴적상과 연대측정 그리고 구조분석을 통해 복원한 해수면 변동 기록은 (도13)과 같다. 약 4,000년 BP경의 평균 고조위는 현재보다 약 0.5m 가량 높았으며, 2,300년 BP 경 해수면이 일시적으로 하강하였다가 1,800년 BP경 해수면이 다시 상승하여 현재보다 약 1m 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김정윤, 2008). 이러한 해수면 변동기록을 바탕으로 김해만 일대의 고지형을 복원하였다(도14). 해진극상기에서 약 1,800년 전까지 김해 지역은 해수면의 평균고조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기와 낮았던 시기가 존재하나 바다의 범위는 매적작용이 낙동강 중류부보다 활발하지 못하였으므로 대부분 시기동안 해양환경이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대동여지도에 기록되어 있는 김해는 구릉지 말단부에 일부 습지와 충적평야가 발달하게 되었으며, 낙동강 하류부는 담수와 염수가 만나는 기수역이 조성되고 몇 개의 섬으로 구성된 삼각주가 발달하였다. 이후 1983년 낙동강 하구둑을 건설함으로써 조류에 의해 유입되던 바닷물이 차단되고 기수역이었던 하구부는 담수 환경으로 변화되었다. 낙동강으로부터 유입되던 퇴적물이 김해평야지역에 두껍게 쌓이면서 현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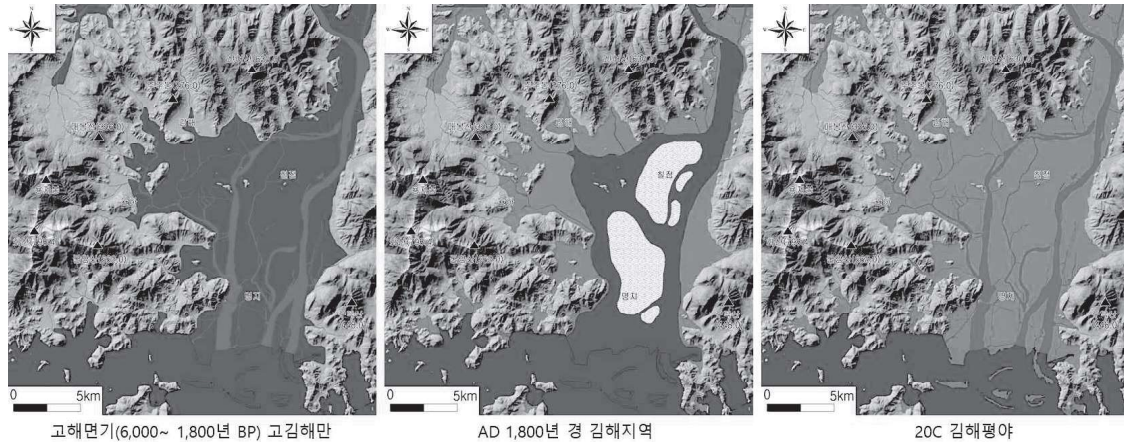
<도 12. 김해평야 일대(김정윤, 2008)>



<도 13. 김해 율하-관동리 지역 해수면 변동곡선(김정윤, 2008)>



같은 해안충적평야가 만들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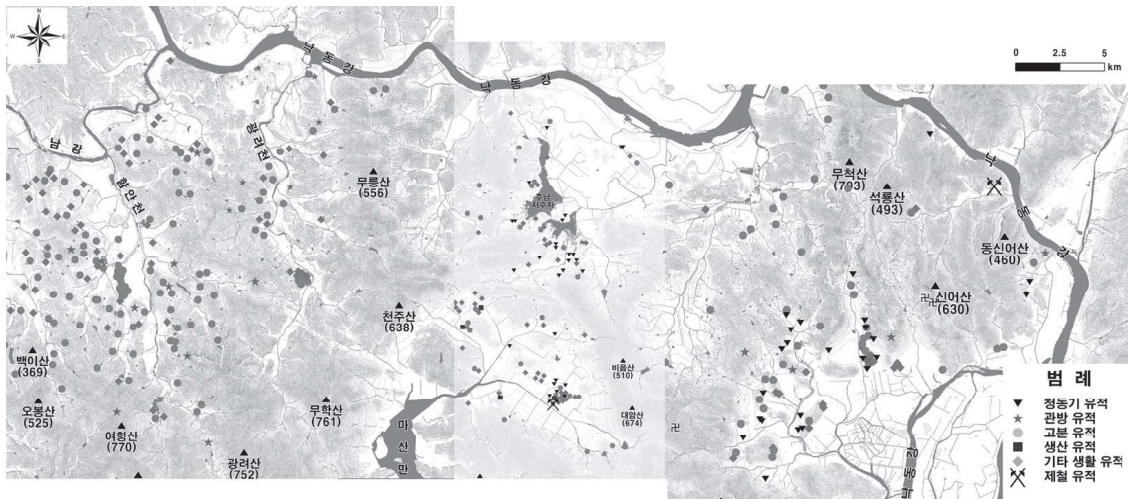
<도 14. 김해평야 발달과정(김정윤, 2008)>

## IV. 낙동강 중하류부의 선사유적 분포

앞서 낙동강 중하류부의 충적평야 발달과정을 살펴본 결과, 해진극상기인 신석기시대 동안 낙동강 중하류부는 바다환경으로 판단된다. 이후 청동기 시대는 해수면이 낮아지는 약 2,300년 BP경이므로 낙동강 중하류부는 대부분 습지환경으로 변화하였으며, 낙동강 본류를 중심으로 자연제방과 넓은 습지환경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원삼국 시대 동안 해수면이 다시 상승하여 바다의 영향이 커지는 시기였다. 그러나 바다의 영향은 낙동강 중류부까지 미치지 못했으며, 낙동강 중류부는 지속적인 매적작용이 활발했을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하류부는 바닷물이 만조 시기에 침입하여 염해를 입히는 등 기수 환경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해지역의 경우 선사고대시기의 대부분 동안 해안 충적평야가 간석지 내지 염습지 환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최하류 지점인 김해지역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까지도 기수역이 김해평야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정도였으므로 상류부로부터 유입되는 퇴적물에 의해 매적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판단된다.

낙동강 중하류부의 지형발달과정은 선사 고대시기 동안 유적의 공간분포 특성을 파악하는데 주요한 단서가 된다. 이들의 공간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충적평야와 구릉지 말단부 사이에 유적이 입지하고 있다. 청동기 시대 유적은 삼국시대 유적보다 해발고도가 다

소 낮은 곳에 입지(해발고도 10m 이내)하기도 하는데, 이는 해수면의 하강으로 홍수와 염해피해가 이전시기보다 줄어들고 습지와 육지의 확장으로 구릉지에서 보다 해발고도가 낮은 곳에 점유하여 생활 한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삼국시대 및 가야시기 동안의 유적은 대부분의 생활유적의 분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이 시기동안의 생활유적은 비교적 해발고도가 높은 구릉지 위와 구릉지 말단부에 분포하는데, 이는 해수면의 일시적 상승과 점진적 하강으로 인하여 홍수 피해가 잦아짐에 따라 층적평야 상에 유적이 입지하지 못하고 구릉지와 구릉지 말단부에서 생활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하여 농업기술이 청동기시대 보다 진보한 상황에서 구릉지의 개간이 용이했을 것이다(황상일·윤순옥, 1999). 당시 수량이 풍부했던 낙동강의 본류를 중심으로 배를 통한 무역과 이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김해 읍하-관동리의 선착장 유구와 같은 유적지를 통해 유추 할 수 있다.



<도 15. 낙동강 중하류부 청동기시대~삼국시대 유적분포>

## V. 요약 및 결론

선사고대시기의 생활상과 유적의 입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최종빙기 최성기 동안 해수면이 현재보다 120m 가량 낮은 상태에서 해진극상기까지 급격하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낙동강 본류를 따라 바닷물이 내륙까지 침입하였으며,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에 따라 지형경관이 변화하였다. 바닷물은 낙동강의 기저역층이 해발고도 0m에 분포하는 왜관과 고령교 사이 지역까지 침입했을 가능성

이 높다. 이후 해수면이 약 1m 가량 높아지면서 낙동강의 중하류부의 본류와 충적평야는 좁은 익곡의 형태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해수면이 안정됨에 따라 낙동강으로부터 유입되는 퇴적물의 매적 작용으로 인하여 낙동강의 본류의 배후습지는 석호형태로 발달하였으며, 이후 담수 공급의 확대와 퇴적작용으로 습지환경으로 변화했을 것이다. 20세기 초에는 낙동강 중하류부의 개발이 활발하지 않았으며, 낙동강의 충적평야는 습지와 호수 그리고 나대지 형태로 존재하였다. 더하여 청동기에서 삼국시대까지 유적분포를 통해 낙동강의 중하류부 지역은 선사고대 시기 동안 충적평야에서 인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풍부한 수량이 유지되는 낙동강 본류를 따라 뱃길이 만들어져 낙동강이 하나의 교통로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뱃길은 조선시대의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보다 수량이 풍부한 고대 시기에도 뱃길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참고문헌

- 국립김해박물관 · 창녕군, 2008, 『비봉리』, 국립김해박물관 학술조사보고 제6책, pp.456.
- 김정윤, 2008, 『고김해만 북서부 Holocene 후기 환경변화와 지형발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윤, 2019, 『규조기반 전이함수를 활용한 한반도 남부 Holocene 해수면 변동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무열, 2015, 『밀양 수산제 일대 Holocene 지형발달과 환경변화』,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화룡 · 황상일 · 이종남, 1985, 「태화강 하류 충적평야의 지형발달」, 지리학연구, 10(0), 785-800.
- 한승희, 2007, 『낙동강 하류부 배후습지의 경관변화 -영산~김해지역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상일, 1998, 「일산충적평야의 홀로세 퇴적환경변화와 해면변동」, 대한지리학회지, 33(2), 143-163.
- 황상일 · 김정윤 · 윤순옥, 2009, 「고김해만 북서지역 Holocene 후기 환경변화와 지형발달」, 한국지형학회지, 18(4), 85-99.
- 황상일 · 김정윤 · 윤순옥, 2013, 「창녕 비봉리 지역의 Holocene 중기 해수면변동」, 대한지리학회지, 48(6), 837-855.
- 황상일 · 조화룡, 1995, 「사포해안충적평야의 Holocene 퇴적환경변화」, 한국지형학회지, 2(1), 1-8.
- 황상일 · 윤순옥, 2001, 『우리나라 화분과 규조의 제4기 생층서와 환경: 박용안, 공우석 (ed.)』, 한국의 제4기 환경, 서울대학교출판부, 73-116.
- 황상일 · 윤순옥, 1999, 「대구분지의 선사 및 고대 인간생활에 미친 Holocene 자연환경변화의 영향」, 한국고고학보, 41, 1-36.
- 장진호 · 박용안 · 한상준, 1996, 「한국 서해안 곰소만 조간대의 제4기 층서와 해수면 변화」, 한국해양학회지, 1(2), 59-72.



# 「선사시대의 낙동강 중하류부 고지형 변화」에

대한 토론문

이 동 주  
동아대학교

## I.

고고학은 기본적으로 인류가 남긴 물질문화 유산을 통해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간의 생업과 이를 둘러싼 환경 등 많은 부분에 걸쳐 자연과학 분야와의 협업을 필요로 한다. 이 분야 학문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선사시대를 중심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매우 고무적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분석 자연과학에 나타나는 분석결과는 종종 고고학적 편년이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물론 분석 자체는 진실을 확인시켜 줄 수 있을 것이지만,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차이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 바탕에는 공통적으로 탄소연대를 연대추정의 근거로 삼기 때문인데, 각 지층에서 사용하는 채취하는 시료에 따라 교란이나 오염 등 다양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시료를 측정하면 각기 다른 연대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하나의 탄소연대를 근거로 한다면 그 오류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보고서에서는 시료에 대하여 자료의 사진이나 채집 상황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탄소연대 결과만 나타낼 뿐, 어떠한 시료를 어떻게 선택한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II.

발표자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첫째, 신석기시대 동안 낙동강 중하류부는 바다환경이었으며, 청동기시대인 2300 BP 경에는 해수면이 낮아져 낙동강 중하류는 대부분 습지환경이 되었고, 이후 원삼국시대 동안 해수면이 다시 상승하여 바다의 영향이 커지는 시기로 보았다.

둘째, 바탕자료는 규조류 분석을 통해 창녕 비봉리유적에서 보고된 7,000 BP~3,500 BP까지의 해수면 변동곡선을 활용하였으며, 밀양 수산제 일대의 규조류 분석을 통해 대략 4,500 BP~2,500 BP까지의 분석 결과, 그리고 김해 율하-관동리지역 분석을 통해 1,000 BP까지의 분석을 종합하여 내려진 결론으로 판단된다.

셋째,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신석기시대 6,800 BP 경 평균 고조위가 현재보다 -0.5m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6,500 BP 경 현재의 수준에 도달하여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여 5,000 BP 경 최고조위에 달한 후(+1m), 4,000 BP 경 일시적 해수면의 하강이 있었지만(+0.4m) 1,000 BP까지 현 해수면보다 낮았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는 내용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최종 빙하기 이후 현 해수면에 도달한 시기는 대략 7,300 BP(前田, 1983), 6,700 BP(Sakauchi, 1985), 6,200 BP(藤, 1984)라는 견해가 있으며, 최고조위에 달한 시기도 6,200 BP(+5m 가량), 5,800 BP(+4.8m 가량), 5,500 BP(+5.1m 가량), 4,500 BP(+7m, , 5500 BP에는 +6m 가량)으로 구분된다. 대체로 현재 해수면에 도달한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가 다시 현해수면 또는 현해수면 이하로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쌍봉형태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정황은 발표자의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고조위가 4,500 BP로 본 藤의 견해는 이런 점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 III.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에 대하여 일반적인 고고학적 관점에 따라 의문이 나타나는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한다.

○ 앞서 살펴본 자료에 따라 6,800 BP 경 평균 고조위가 -0.5m 수준→ 6,500 BP 경 현재의 수준에 도달→ 5,000 BP 경 최고조위(+1m)→ 4,000 BP 경 일시적 해수면의 하강(+0.4m: 수산제 일대 자료에서는 현 해수면 높이)→3,000 BP에 +1m 가량 상승→ 2,500 BP 전후한 시기에 해수면이 하강(IV장에서는 청동기시대인 2,300 BP로 언급)한다고 하였다.

첫째,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지도에 당시 낙동강 수역의 범위를 나타내었는데, 여기에서는 검토한 자료와는 달리 6,800 BP→6,100 BP→ 5,000 BP→ 3,500 BP 순으로 수역의 범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고조위는 5,000 BP(+1m)라 주장하였던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6,800년 전에서 6,100년 전 시기 동안 현재 청도천 하류부와 낙동강 일대는 해수가 침입하여 대부분의 층적평야가 바다환경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비봉리유적 보고서에 따르면, 37층에 형성된 제6패층은 대부분 재첩이며, 그 상부 제5패층~제1패층까지는 재첩과 굴껍질이 혼재되어 출토되고 있다, 섬진강유역을 참고한다면 굴과 재첩의 조합은 기수역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발표자의 규모류에 바탕한 내용과는 차이가 나타난다.

셋째, 부산 범방유적에서는 고해안선이 확인되었다. 이 높이는 해발 +2.5m 지점을 따라 나타나고 있는데, 신석기시대 초기 단계의 집석유구를 침범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 해안선일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그 시기는 발표자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전기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최고조위는 5,000 BP(+1m)라 주장하는 내용과는 1.5m의 고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싶다.



넷째, 부산 가덕도 장항유적은 해안에 접하고 있는 유적이며, 신석기시대 전기 이른 단계로부터 말기 단계까지 거의 신석기시대 전 시기에 걸쳐 형성된 유적이다. 이곳에서는 해발 5m 지점까지 자연모래층 상부에 각 층마다 다양한 유물과 함께 적석유구와 패층들이 층층이 확인되었다. 패각층이나 부석층, 토기류들이 층별로 나타나는 특징상 비봉리유적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발표자의 해수면 상승 최고조기는 전기 단계 +1m 정도라고 보았던 점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신석기시대 만기 단계의 김해 농소리패총의 사례이다(김용기 1971). 이 패총은 신석기시대 말기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중구연을 특징으로 하는 유적이다. 유적은 김해평야의 서쪽 언저리에 해발 -1m 전후한 지점에 퇴적되어 있고, 절대연대는  $3,440 \pm 120$  B.P.로 나타나고 있다(강형태 · 추연식 · 나경임 1993). 신석기시대에 현재의 해수면보다 낮았던 시기가 없었다고 본 발표자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내용에 청동기시대에 해수면이 낮아지는 시기를 2,300 BP라고 하였는데, 이 시기는 초기철기시대 임을 참고하기 바람, 아울러 V장의 요약 및 결론에 “청동기에서 삼국시대까지 유적분포를 통해 낙동강의 중하류부지역은 선사고대 시기 동안 김해의 충적평야에서 인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첨언드리다면, 김해평야의 경우 두 번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발표자의 내용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83년 하구언 축조와 관련되며, 이 목적은 가물때에 염수가 물금취수장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염해와 식수원 보장을 위한 목적이다. 나머지 하나는 1914년 일제의 산미증산계획에 따라 원래 분류였던 서낙동강과 배후 습지를 농경지로 바꾸기 위해 대저수문을 조성하였고 그 결과 현재의 김해평야가 형성되었다. 때문에 청동기시대 김해의 충적평야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

# 가야 선주민의 바닷길과 대외교류

對  
外  
交  
流

주제발표

선사시대 해로를 통한 영남지역의  
대외 교류

천 선 행(전라문화유산연구원)



# 선사시대 해로를 통한 영남지역의 대외 교류

천 선 행  
전라문화유산연구원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II. 병행관계 및 신석기시대 대외 교류 |
| II. 신석기시대 대외교류 연구 성과와 방향성 | IV. 청동기시대 조·전기의 교류 양상   |
|                           | IV. 맺음말                 |
- 

## I. 머리말

한반도는 남북으로 길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학적 특성상, 인접하는 한반도 북부 지역과의 관계, 한반도 남부와 바다 건너 일본열도와의 관계가 고고학적으로도 선명하게 확인된다. 이러한 대외교류 가운데 본 발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춘다.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관계는 구석기시대부터 확인되지만, 바다라는 장벽을 넘어 양 지역 집단 간의 물자 교환이 본격화되는 것은 신석기시대부터이다. 두 지역에서 보이는 어로구나 토기, 흑요석 등의 석재와 도구, 장신구와 같은 특정 재화, 징검다리처럼 대마도와 이키(壑岐)섬이 두 지역을 잇고 있어 원거리 항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 대한해협이라는 공통어장에서 생업활동의 일환으로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관점이 더해지면서 두 지역의 교류 사실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청동기시대에는 한반도 벼농사문화와 각종 도구, 토기, 묘제, 청동기 등이 본격적으로 규슈(九州)지역으로 전해지면서 일본열도는 기존의 수렵채집사회를 벗어나 농경사회로 들어서게 된다. 이때의 한반도로부터 파급된 물질문화와 정신세계는 일본열도의 기존 사회 구조와 틀을 뒤집는 대변혁을 이끌어 내었고, 이후 일본열도는 한반도와의 지엽적 교류가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선진문화와

문물을 갈망하면서 조직화된 원거리 교역을 실시하게 된다.

발표자는 조문(縹文)시대에서 야요이(弥生)시대로의 전환을 이끌어낸 한반도 청동기시대 농경민의 이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고 있다. 초기농경이 확산되는 신석기시대 중기도 그렇지만, 청동기시대 주민들이 농경생활만 영위하였다면, 즉 바다를 통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물때와 해류와 연안류의 흐름에 대한 지식을 망각한 농경민들이 과연 송국리문화 단계에 미지의 바다를 건너 일본열도로 이주가 가능하였을까?

지금까지 축적된 여러 연구를 통해서 보아도 청동기시대는 농경만이 생업 수단이 되었던 것은 아니며, 해양활동을 벌이는 집단도 분명하게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해양활동을 벌이는 집단 간의 교류에는 잔존하는 물질자료 이외에도 다양한 특산물과 정보전달, 인적 교류 등이 내재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동일한 두 지역 집단이라도 각 지역집단이 처해있는 경제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접촉을 통해 토착문화에 수용하는 자료의 종류와 방식이 달랐을 것이고 접촉 방식이나 루트도 다양하게 변화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발표자는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교환체계가 본격화되는 신석기시대를 중심으로 한반도 청동기시대 중기 도작농경민의 이주로 사회변혁이 이루어진 일본 야요이시대 이전<sup>1)</sup>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여, 각 지역 안의 집단과 집단 간 교류로 초점을 옮겨 교류의 추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추론해보고자 한다.

## II. 신석기시대 대외교류 연구 성과와 방향성

신석기시대 교류관계 연구는 교류의 대상물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교류 방식 및 배경에 대한 논의로 진전되어 왔다. 교류관계 연구는 양 지역에서 이질적 토기를 확인하면서부터 출발하였고 당시에는 기원문제와 얽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흑요석 등 교류 대상물이 확인되면서 본격적인 교류연구가 진행되는데, 기존 자료를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다룬 선구적인 연구는 정징원·하인수(1998)의 논문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성과는 물론이고, 한반도와 서일본에서 확인되는 교류증거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집계한 바에 따르면, 한반도 17개소, 서일본 25개소에서 교류 증거가 확인되었다. 교류 자료의 공간적 분포와 시간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① 교류지역이 한반도 동남해안과 서북규슈 및 대마도 서안으로 집중되었고, ② 교류

---

1) 그 시점은 한반도의 경우 청동기시대 전기까지에 해당한다.

주체는 해안지대에 거주하는 어민들이며, ③ 교류는 공통된 생업환경 속에서의 어로활동을 배경으로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정정원·하인수 1998:55). 또한 ④ 신석기 초기~전기에 교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이후 후기까지 간헐적으로 진행되다가 말기에는 규슈지역으로 도향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문화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정정원·하인수 1998:54). 흑요석 입수와 관련하여서는 ⑤ 전시기는 아니더라도 초기에 대마도에 거주하는 즐문계집단이 중개하며 흑요석을 공급하는 공급망이 형성되었으며, 한반도로 반입된 흑요석은 특정 거점집단(동삼동, 범방, 옥지도, 연대도)을 중심으로 우선 공급되고 이후 주변으로 확산된다고 보았다. ⑥ 교류를 통해 양 지역이 오랜 기간 상호 접촉하면서 패천 장착 습속, 토우, 패면 등 문화요소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후 대마도를 중개지로 볼 수 있느냐의 개념적 문제에 대한 비판(임상택 2008:97-98) 등이 있지만, 교류 지역, 주체, 양상, 배경 등의 성과는 여전히 견고하게 한일관계를 이해하는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류에 따른 물질자료의 변형과정(하인수 2006), 교류라는 현상적 측면 외에 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류 필요성과 교류변화의 이유를 집단 내 사회경제적 상황 및 변화에 기초해 검토하고, 동북아시아의 문화변동이라는 거시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연구(임상택 2008), 어로구 양상의 변화를 통해 교류관계 변화를 추구(이상규 2019)하는 등 교류의 실상 및 이유와 배경, 파급효과를 밝히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 가운데, 교류 강도의 변화와 배경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신석기시대 조·전기, 중·후기, 말기로 나누어 검토되고 있다(표1). 신석기시대 한일 교류는 조~전기에 가장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중기부터는 교류 강도가 약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중기부터 교류 지표가 대마도에만 집중하고 규슈 본토에 보이지 않는 이유를 한반도 내 잠곡농경의 확산으로 생업경제와 생계양식이 내륙지향으로 변화한 데서 찾는다(하인수 2008b). 나아가 서기전 3500년 전후 동아시아 일대의 문화변동으로 초기농경이 출현하는 상황과 관련되어 식물성식량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해양에 대한 지향과 관심이 축소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임상택 2008).

이와 같은 양상은 어로활동에서도 나타난다. 공동어장을 공유하는 한반도 동남해안과 서북규슈 집단의 생업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외양성 어로는 바다라는 자연적 장벽을 극복하여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양 지역이 접촉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배경이자 기술적 수단이다. 구체적으로 김건수(2009)에 따르면, 조·전기의 어로활동은 외양성이 강한데, 중기에는 내만성 패총이 조성되고, 후기부터는 내만성과 외양성이 결합된다. 반면, 서북규슈지역은 외만성패총, 내만성패총, 내만성+외양성, 외양성으로 패총이 분류되는데, 조몬 초기~중기까지는 외양성 어로가 활발하고, 후기부터 내만

성 어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신석기시대 중기에 외양성에서 내만성 어로로 변하고, 이 때 교류관계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말기의 양상에 대한 이해는 견해차가 있다. 규슈지역에 이중구연 단사선문토기

표1. 한반도 동남해안지역과 서북규슈의 교류양상 변화

시기		정정원·하인수 1998	임상택 2008		이상규 2019	
남해안	규슈	내용	획기	접촉 지대	내용	획기
조기	조기말~전기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 지역 교류가 초기~전기에 집중</li> <li>■ 규슈지역 본토에 용기문토기 및 영선동식토기 주체</li> <li>■ 대마도와 이키섬에도 조~전기 출문토기 주체 확인</li> </ul>	1기	대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안지역 교류관계의 활성화 시작</li> </ul>	1기
전기	전기 중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중서부 토기문화의 남부 확산 시작</li> <li>■ 남해안 토기문화 규슈 확산, 양안교류 본격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 활발한 교류활동 (흑요석 운반)</li> <li>■ 다원적인 교류네트워크</li> <li>■ 어로구 양상 영남은 성행 서북규슈지역은 발생</li> </ul>	
중기	전기 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류상이 전기 이후 후기까지 간헐적으로 진행</li> <li>■ 대마도, 이키는 중기 이후 출문토기 관련 유적이 규슈보다 증가</li> </ul>	2기	대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서부 토기문화의 남부 확산 본격화</li> <li>■ 남부지역 초기농경, 정착취락, 해안도서 점유 감소</li> <li>■ 양안지역 교환관계 감소?</li> <li>■ 소바타식토기의 전개 확대 (재지적)</li> </ul>	2기
후기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일본 토기문화의 규슈 확산</li> <li>■ 조몬 중기말에 다시 규슈 재지토기화</li> <li>■ 남해안은 취락 소규모화, 해안도서 점유 재확대</li> </ul>	
만기	후기 전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구연 단사선문토기 없음 -&gt; 규슈지역으로 도항하지 않거나 문화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li> <li>■ 서북규슈와의 교류가 소원해지고, 구주 동북부로 지역관계 변화(岡田憲一·河仁秀, 2009)</li> </ul>	3기	남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해안 내부변화 (정착취락 붕괴)</li> <li>■ 규슈에 마소승문 등 동일본적 요소 강하게 들어옴</li> <li>■ 남해안에 조몬토기 출현 빈도 증가</li> </ul>	3기

가 확인되지 않아 한반도 신석기시대인들이 규슈지역으로 도항하지 않았거나 문화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정정원·하인수 1998)되었으나, 이후 자료 증가를 통해 말기에도 양 지역 교류활동이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하인수 2008b). 나아가 한반도 동남해안지역에 조몬계유물이 많아지는 점을 근거로 조몬인의 활동 즉 이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하인수 2008b). 어로구도 남해안지역에서는 쇠퇴하는 데 비해, 서북규슈에서는 유적의 분포범위가 이전보다 확장되며, 어로구 조성도 풍부해지고 서북규슈에서 한반도로 빈번하게 도항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상규 2019). 후·말기에 교류양상이 증가하는 현상을 사회변화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한반도 측에서는 기존의 수렵채집어로+초

기농경 생업체계가 붕괴되면서 취락이 와해되고 이동성이 증가하고, 규슈지역에서는 동일본의 문화 유입으로 장신구, 석봉, 토우 같은 의례 관련 유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경제적 수요에서 사회적 수요로 변화하면서 규슈에서 한반도로의 교류 벡터가 강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임상택 2008). 이뿐만 아니라, 토기의 세밀한 편년체계를 확립하여 말기에 서북규슈와의 교류가 소원해지고, 규슈 동북부로 지역관계가 변화(岡田憲一·河仁秀 2009)하였다고 보기도 한다(표1).

### Ⅲ. 병행관계 및 신석기시대 대외 교류

#### 1. 병행관계

선사시대 한반도와 서일본은 병행관계는 신석기시대 초기 용기문토기와 도도로키B식(甕B식, 조몬 전기), 전기 영선동식토기와 니시카라즈식(西唐津式, 조몬 전기), 중기 태선침선문토기와 소바타식(曾畑式)~후나모토식(船元式, 조몬 전기~중기초), 후기 퇴화침선문과 아타카식(阿高式, 조몬 중기), 말기 이중구연토기와 난부쿠지식(南福寺式)~기타쿠네야마식(北久根山式, 조몬 후기 전반), 청동기시대 전기(공렬문토기)와 구로카와식(黒川式, 조몬 만기중엽), 청동기시대 중기 송국리문화 전반과 야요이시대 초기, 송국리문화 후반과 야요이시대 전기전반, 초기철기시대와 야요이시대 전기후반이 병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고, 양 지역의 상대편년과도 부합하여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신석기 말기~청동기 전기의 병행관계가 반드시 무리 없이 연속한다고도 볼 수 없다. 즉 신석기 말기의 이중구연토기와 조몬 후기전반 난부쿠지식의 병행관계(宮本一夫 2004)와 청동기시대 전기와 구로카와식의 병행관계(片岡宏二 1999, 武末純一 1987) 사이에 병행관계의 공백이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야모토는 청동기 초기를 사이에 설정함으로써 해결하였지만(宮本一夫 2004),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천선행 2009). 이에 따르면, 청동기 초기의 돌대문토기가 신석기 말기와 시간적으로 겹칠 가능성이 있지만(안재호 2006, 천선행 2005·2007), 초기의 시간 폭은 그다지 넓지 않다. 그런데 정작 신석기 말기에는 난부쿠지식에서 기타쿠네야마 I 식의 5형식이, 청동기 전기에 구로카와식의 1형식이 대응되는 데 비해, 시간 폭이 좁은 청동기 초기가 조몬 후기





이중구연토기와 병행하는 조몬토기의 형식이 더 내려오고, 또 하나는 청동기 전기에 병행하는 조몬토기 형식이 상향조정되어 온 것이다. 먼저 전자의 경우, 최근 동삼동패총에서 출토된 조몬토기 가운데 기존의 조몬 후기전반의 기타쿠네야마식보다 늦은 니시비라식(西平式)과 미만다식(三万田式)이 확인되면서 신석기 말기의 하한이 조몬 후기후반 일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岡田憲一·하인수 2009:10-11). 다음으로 청동기 전기의 공렬토기문화가 조몬 만기중엽 구로카와식만 아니라, 조몬 후기후반 일부까지 소급될 수 있으며 하한도 조몬 만기후엽 전반기까지 병행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岡田憲一·千羨幸 2006, 千羨幸 2008b·2009). 그러한 성과를 반영한 병행관계가 <표2>이다.

## 2. 신석기시대 시기별 교류 양상

한반도에서 조몬계유물이 출토되는 유적은 25개소로, 동해안에 가까운 세죽유적부터 서쪽 흑산도까지 남해안 전역에 걸쳐 확인되고, 일본열도에서 즐문계유물이 확인되는 곳은 28개소로, 규슈 서북부 즉 나가사키현, 사가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표3·4). 그러나 시기별로 살펴보면, 분포양상과 교류지표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므로 이 두 요소를 중심으로 교류양상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3. 신석기시대 한반도 출토 조몬계 유물

연번	유적명	시기	조몬토기	석기 및 기타
1	세죽	조기~전기		•흑요석3(석촉3(III-1층 및 2층) <sup>3)</sup> )
2	처용리 21	조기~전기		•흑요석1(3호수혈), 결상이식(1호 매장유구)
3	우봉리	조기		•흑요석박편1
4	신암리	조기~전기	•조몬전기(轟B式계 굴곡형토기 3, 轟B式추정1, 프로토曾畑式(西唐津式) 1) •조몬중기(阿高式1) ※조몬전기(轟B式계 굴곡형토기 3, 野口式유사 연호문 1), 조몬후기초두(南福寺式2) <sup>4)</sup>	•흑요석(석촉3) •鎌崎型스크레이퍼3 •이전2 신암리 2017 •흑요석18(작살5, 결합식작살7, 석촉1, 박편석기5) •사누카이트30(작살10, 결합식작살3, 석촉2, 석부2, 유건석기5, 밀개1, 박편석기5, 미완성석기2) •일괄수습(흑요석5(작살2, 석촉2, 석재1), 사누카이트5(결합식작살1, 박편석기2, 유건석기2), 결상이식1)
5	사랑리 공수C	?		•흑요석박편○ 채집

3) 보고서 외의 문헌에서는 사누카이트 석섬 있는 것으로 나온다.

4) 甲元真之 외2002의 논문에서 확인한 것임.

연번	유적명	시기	조몬토기	석기 및 기타
6	동삼동	신석기 초기~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몬전기(轟B式 3, 曾畑式 2, 프토토曾畑式? 1, 轟B式1(8층, 西川津式1(9층, 산인지역, 보고서에는 轟B式으로 보고))</li> <li>•조몬중기(船元2式 1(5-1층), 里木式1(5-1층))</li> <li>•조몬후기전반(南福寺式5, 坂ノ下式1(교란층))</li> <li>•조몬후기토기5(2층)</li> <li>•조몬후기전반(南福寺式4(2층), 出水式1(2층), 御手洗C式1(4층))</li> <li>•조몬후기후반(西平式 1(중박1차 3층), 三万田式1(2층미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흑요석12(석섬3, 석촉4, 석거?1, 소형첨두기2, 조합식 석검 하위 장착2)</li> <li>•흑요석7(교란층_석거1, 박편석기1, 석촉1, 석추2, 작살1, 원석1(68.7g)) 이전2(교란층)</li> <li>•흑요석1(1호주거_박편석기 1)</li> <li>•흑요석3(2호 주거_석촉 2, 박편석기 1)</li> <li>•흑요석2(4층, 박편석기1, 석촉1), 사누카이트1(4층_작살1), 이전2(4층 2)</li> <li>•흑요석4(5-1층_작살1, 석촉 3), 사누카이트1(5-1층_작살1), 이전4(5-1층 4) •흑요석1(7층_작살1) •흑요석1(8층_첨두기1, 석촉1) •흑요석2(9층_작살1, 석촉1), 사누카이트1(9층_석촉 1) •그 밖에 흑요석 박편○</li> </ul>
7	조도	초기~중기	•조몬초기(압형문2) 조몬토기(연사문1)	•흑요석○
8	다대포	초~전기?		•흑요석박편○
9	수거리	중기~말기		•흑요석박편 1(II층 1-보고서에는 박편석기로 보고)
10	화목동	말기		•흑요석박편3(IV층 9호수혈 3)
11	범방	초기~말기 <sup>5)</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방패총 : 조몬전기(轟B式계통 굴곡형토기 9(13층3, 12층1, 8층3, 6층2), 조몬중기(후나모토Ⅱ식 2(5층1, 羽島下層Ⅱ식1(Hpit 8층), 중기토기편1(6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방패총 13층 3(석촉1/박편2), 8층1(박편) 6층 5(석기1/박편4), 5층1(박편1), 1층 2(박편2), H피트 6층1(박편1), 4층 1(박편)</li> <li>•범방유적 V층(중기, 흑요석 박편석기1), VI층(전기, 흑요석 박편석기2, 흑요석 원석1, 사누카이트제 석추1), 각 층에서 흑요석 박편 다수</li> </ul>
12	북정	초기~전기		•흑요석박편○
13	대항			•흑요석박편○
14	가덕도 장항	초기~전기		•흑요석9(33호 인골 동반 2, 13호수혈2, 9층 5, 8층4, 10층4, 11층3) •결상이식, 수식 등
15	거제도 근포			•흑요석박편○
16	거제도 대포		•조몬전기(轟B式 1) 조몬중기(春日式?) <sup>6)</sup>	•흑요석(굽개, 석핵)
17	진주대촌	말기		•흑요석박편석기○

5) 범방패총 보고서에 따르면, 13-7층 융기문 주체(초기), 6-4층 영선동, 태선, 퇴화침선 혼재(조, 전, 중, 후), H피트 7~1층 태선침선문문(중기), 2층 이중구연(말기)로 나뉘고, 13~7층은 다시 범방1기(13·12층), 범방Ⅱ기층(11-7층)으로 나누어진다. 일부 연구자는 5·6층을 영선동식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6) 甲元真之 외2002의 논문에서 확인한 것임.

연번	유적명	시기	조몬토기	석기 및 기타
18	연대도 <sup>7)</sup>	조기~ 후기 (조기와 전기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몬전기(靄B式계통 굴곡형토기 2(IV a·IVc층), 曾畑式 1(III층))</li> <li>•조몬중기후반(春日式)</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흑요석 14(석섬2, 석촉11, 원석O) •석시2(혼펠스/사누카이트, 첩형석기 그 밖에 사누카이트제 박편 등</li> <li>•흑요석 석촉 38(IVa층_석촉2, IVb층_석촉2, IVc층_석촉6 IVd층_석촉12, IVe층_석촉2, IVd층 1 호무덤 가슴_석촉2, IVd층 1호무덤 주변_석촉1, 교란층_석촉9)</li> <li>•사누카이트 석촉3(IVc층_석촉1, IVd층_석촉1, 교란층_석촉1) •흑요석 굽개류(IVb층1, IV층 7 호무덤 아래1)</li> <li>•사누카이트3(IVc층_석시1, 굽개1, d층_1, 교란층1)</li> <li>•혼펠스 석시(1)</li> </ul>
19	상노대도	조기~ 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몬전기(靄B式계통 굴곡형토기 3, 曾畑式 1(재지)) •조몬후기전반(中津式 3)</li> <li>•난부쿠지식, 조세토기(조흔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흑요석(조합식 작살 석거 3)</li> <li>•鎌崎형 스크레이퍼 1 •서북 규슈형 조침 2</li> </ul>
20	산등	중기·말기		•흑요석2(II층 1, IV층 1) <sup>8)</sup>
21	육지도 <sup>9)</sup>	신석기 초기·중기~말기(중 후기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몬전기(西唐津式 유사1(II층))</li> <li>•조몬후기전반(조흔문토기, 御手洗A式)<sup>10)</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鎌崎형 스크레이퍼 4</li> <li>•흑요석 (I층_석촉1, 굽개1, II층_굽개1, III층_석촉 5, 굽개1, 흐트러진 층_석촉2) •*대부분 현지제작?</li> </ul>
22	여수경도 오복 <sup>11)</sup> 층	전기 후~말기	•조몬후기전반(坂ノ下式 1, 편(교란층))	•흑요석1(교란층)
23	송도	조~전기 후~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흑요석박편 15(IV층 6, III층 9)</li> <li>•*IV층 초기, III층 2호 주거 아래 초기?</li> </ul>
24	안도가	조~전기 말기	•조몬토기4(苦浜式 or 塞ノ神式 or 靄A式1, 조몬토기 3 I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시1(I층), 석거2(I층 1, 표토 1)</li> <li>•흑요석 220여점</li> </ul>
25	흑산도	조기	•조몬전기(西唐津式 유사 또는 曾畑式 신단계 2)	

※ 신석기시대 유적 연번은 그림1·2의 유적번호와 동일함

- 7) A~M피트 IVa층과 IVc층은 각각 P~U피트 II층과 III층에 대응한다. p피트로 보면, III층과 IV층에서 용기문토기가 중심을 이루고, II층은 자돌압인문이 중심을 이룬다.
- 8) 보고서에 따르면, I·II층은 신석기시대 말기 후반, III(후반)·IV(전반)·V·VI층(초)은 중기에 해당한다. 부산수산대학교박물관, 1989, 『山登貝塚』, 부산수산대학교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1집.
- 9) I층 표토층, II층(돌무지시설 I 과 무덤 2기, 조가비층 포함), III층(돌무지시설 II 포함)으로 나뉜다. III층에 용기문의 수량이 많고, 나머지 층에서는 중기~말기 토기가 혼재되어 출토된다고 한다. 각 층별로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I층은 후기 토기가 많고, II은 중기 토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甲元真之 외2002에 따르면 조몬 후기전반의 御手洗A식이 출토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병행관계 상 신석기시대 말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후말기로 파악해 둔다.
- 10) 甲元真之 외2002의 논문에서 확인한 것임.

표4. 규슈지역 출토 빗살무늬토기계 유물

연번	지역	유적명	시기	출문계토기	장신구 등
1	對馬	越高유적	조몬 초기말	•조기(용기문토기 다수, 세침선문, 파수부 호형토기 등 출문인 거주)	
2		越高尾崎유적	조몬 전기	•조기 후반(용기문토기 8, 세침선문토기 3, 채식토기1, 점열문1, 파상구연1)	
3		夫婦石유적	조몬 전기~중기 (曾畑式, 阿高系)	•C구 VI층 압인어골1, 태선침선3 •B구 III층 퇴화침선 6 •B구 채집 영선동식1, 수가리1식 채식 단사집선2, 파수부토기1 •C구 조몬 토기 적음. 출문인 거주 가능성 높음	
4		海神社	조몬	•침선문확인	
5		木板海神社	조몬 중기	•침선문+阿高系 공반	
6		吉田(패총11)	조몬 중기말~후기초	•20점(봉계리식1, 이중구연4, 이중구연 단계 3, 파수부토기1, 무문편11) +船元式, 里木II式, 阿高式系의 南福寺式 중심, 阿高式, 中津式 공반	
7		佐賀(패총)	후기 鐘崎式、北久根山식 중심+중기	•수가리I식 단사집선문1+阿高系, 北久根山式, 鐘崎式 공반	•패천113(투박조개제○, 흰삿갓조개제패천, 빨럭 지삿갓조개제패천)3, 고라니 상악견치1, 오산리식 조침 축부1
8		ヌカシ유적	조몬 중기~후기	•阿高式문화층(영선동식1, 퇴화침선문1, 파수부토기1)+南福寺式 공반 •그밖에 이중구연토기1, 출문토기1, 퇴화침선문1	
9		松崎유적	조몬 전기	•수가리1식+曾畑式 공반	
10		つく目の花유적	조몬 초기~중기	•용기문계, 영선동식	
11		神社유적	조몬 전기	•영선동식 6+轟B式, 曾畑式 공반	
12		伊木力유적	조몬 전기	•영선동식 3+曾畑式 공반	•패천 1
13		深堀유적	조몬 전기	•영선동식 7+曾畑式 공반	
14		脇岬유적		•영선동식	
15		一尾(패총)			•패제 결합식조침1쌍
16		大矢유적			•결합식조침 축부
17		野首유적	조몬 전기	•용기문 3, 영선동식6+轟B式, 曾畑式 공반	
18		頭ヶ島白浜	조몬 전기~중기	•최하층 6-7층 용기문계 주칠토기1(조몬 전기 전엽 轟B식토기 공반)	

11) 요시다(吉田)유적은 5개층으로 나뉘고, 5층이 조몬시대 유물 포함층으로 阿高式系토기가 주로 출토된다(宮本一夫編 2004:10)

연번	지역	유적명	시기	즐문계토기	장신구 등
19	佐賀	白蛇山岩陰유적		• 용기문	
20		盜人岩유적		• 영선동식	
21		赤松海岸유적	조몬 조기~후기	• 용기문계 6, 수가리1식 1+ 曾畑式, 船元式, 阿高系, 鐘崎式 北久根山式, 西平式 공반	
22		小川島유적	조몬 전기~만기	• 말기(파수부호형토기1)+ 轟B式, 並木式, 阿高系, 鐘崎式 공반	
23		西唐津海底유적	조몬 전기	• 영선동식토기 다수+曾畑式(西唐津式) 공반	
24		菜畑유적	조몬 전기	• 영선동식3+曾畑式 공반	
25	福岡	天神山패총		• 용기문	• 후기층에서 패천10(투박조개제○)
26		桑原飛櫛패총	조몬 중기~후기	• 후말기?(파수부토기1)+中津式 공반	• 패천62(투박조개제○)
27	熊本	曾畑패총	조몬 전기	• 영선동식 3+曾畑式 공반	
28		轟유적	조몬 조기~전기	• 용기문토기1, 자돌점열문토기1+轟A·B式 공반	• 패천2(비단가리비조개 공반)

※ 유적 연번은 그림1·2의 유적번호와 동일함

## 1) 신석기시대 조 · 전기

신석기시대 조 · 전기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반도와 서일본의 각 지역 어민 집단이 개별적으로 교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신석기시대인들이 대마도 고시타카(越高), 고시타카오자키(越高尾崎)유적에 거주하며 이곳을 중개지로 이용하여 교류가 이루어졌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신석기 조 · 전기의 교류양상이 모두 대마도의 중개지(접촉지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마도를 중개지로 이용할 경우, 해류 흐름을 감안하면 남해안 동부지역 주민과의 관련성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삼동유적 외에도 남해안 중부 안도패총에서 흑요석 220여점이 확인되고, 동삼동 9층에서 조몬 전기전엽의 산인지역 토기형식인 니시카와즈식(西川津式)이 출토되며(岡田憲一·河仁秀, 2009), 고토(五島)열도의 가시라가지마시라하마(頭ヶ島白浜)유적에서 반입토기로 추정되는 용기문계 주칠토기가 출토되었다. 뿐만 아니라, 흑요석 산지를 살펴보면, 신석기 조 · 전기 이른 시기에는 고시타케(腰岳)산 외에도 요도히메(淀姫)산, 하리오(針尾)산 흑요석이 모두 확인되다가 점차 특정 원산지(고시타케산)로 수렴되는 양상으로 보아, 신석기 조 · 전기에 대마도를 접촉지대로 이용한 것 외에도 좀 더 다원적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한반도 남해안 각지와 서일본 각지 특히 서북규슈 각지의 어민간의 교류가 제가끔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1). 이러한 결과

는 영남-서북큐슈 해안지역의 어로구 분포로 보아 양 지역 간에 상당히 넓은 공간적 범위의 교류관계가 형성되었고 양안지역 간 흑요석 운반을 위한 도항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교류 루트도 유적별로 다원적인 교류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결과(이상규 2019: 206)와 부합한다.

다양한 루트의 교류가 가능했던 이유로는 역시 당시의 활발한 어로 활동에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인데, 특히 신석기 조·전기에는 조몬계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곳은 남해안 동부와 중부로 구로시오 해류가 한반도에 가장 근접하는 곳임이 주목된다(김건수 2008).

## 2) 신석기시대 중기

신석기시대 중기가 되면, 기존 연구성과대로 교류 범위와 지표가 대폭 줄어 교류관계가 이전에 비해 소강상태에 접어든다. 그 배경으로는 한반도에서 초기농경의 등장과 확산으로 인한 내륙지향형 생업경제의 구축이 거론된다. 반면, 서일본 양상은 논란이 있다.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조몬 중기 전엽 유적수가 급감하고, 어로 활동이 거의 공백으로 남을 정도로 변하다가 중기 후엽부터 다시 어로활동이 성행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임상택 2008, 中尾 2009). 반대로 신석기 중기와 병행하는 조몬 전기후반부터 작살류와 조침류의 유적 분포범위가 이전 단계에 비해 더욱 확산된다고 보기도 한다(이상규 2019: 209).

어떻든 한반도에서는 신석기 중기의 교류 지표가 확인되는 곳은 동삼동유적과 범방유적, 산등유적으로, 산등유적은 흑요석이 1점 출토될 뿐으로 안정적인 어로활동과 교류양상이 확인되는 곳은 동삼동유적과 범방유적 뿐이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어로구의 분포 범위가 감소하는 대신 특정 유적에서는 어로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이상규 2019:210). 서일본에서는 이 시기의 교류양상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대마도 메오토이시유적, 나가사키현 마츠자키유적, 사가현 아카마츠카이간(赤松海岸)유적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메오토이시유적에서는 교류 지표의 출토량이 어느 정도 있지만, 나머지 유적에서는 매우 미미한 정도이다. 조몬 전기 말 소바타식토기 성립이후 한반도보다는 남쪽 류큐열도로 문화가 확산되어 교류 강도가 약화되었다는 지적(임상택 2008:105)처럼, 이전 시기에 비해 한반도와 교류의 강도와 범위가 매우 축소되어 간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교류 지표가 확인되는 유적의 분포상이다. 부산 동삼동과 범방유적, 그리고 메오토이시유적, 마츠자키유적, 아카마츠카이간유적의 위치는 한반도와 서일본을 잇는 최단거리에 해당하는 유적이다. 한반도에 내륙지향성의 생업경제로 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양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명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대마도를 잇는 최단거리의 교류루트를 창구로 하여 대외교류의 명맥을 이어갔던 것으로 추정된다(그림2).

### 3) 신석기시대 후·말기

중기의 교류양상은 이후에도 지속된다. 물론 신석기시대 후·말기에는 이전보다 주거유적 수가 감소하고 조·전기유적이 점유되었던 곳에 중복 조성되며 패총이 증가한다. 이를 두고 이동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교류 지표가 보이는 유적도 동삼동, 수가리, 화목동, 범방, 진주 대촌, 옥지도?, 산등?, 여수 경도 오복1패총으로 중기에 비해 교류의 범위가 다소 확대된다. 반면, 규슈지역에서는 요시다(吉田)패총, 누까시(ヌカシ)유적, 오가와시마유적, 구와바루히구시(桑原飛櫛)패총으로 이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남해안-대마도-규슈를 잇는 최단거리의 범위에 유적이 조성된다(그림2). 이 결과는 신석기 중·후기에 남해안의 교류지역이 북으로 확대되고, 규슈지역은 가라츠(唐津) 주변까지 확대된다고 보는 견해(広瀬雄一 2005)나, 말기에 양 지역의 접촉지대가 대마도에서 남해안으로 이동한다는 견해(임상택 2008)와 다소 다르다. 즉 한반도 남해안 동부, 서북규슈간의 최단거리에 해당하는 집단 간의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접촉지대를 대마도 혹은 남해안으로 한정시킬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신석기 말기에 전반적인 생업양상의 쇠퇴와 더불어 영남에서 대마도나 규슈로 도항하지 않고, 서북규슈에서 영남으로 좁은 범위에 높은 접촉 빈도를 보인다고 보고(이상규 2019), 조몬 후기 한반도로 빈번하게 도항이 이루어지는 배경으로 장신구와 같은 사회복합성을 띠는 물품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를 들기도 한다(임상택 2008; 이상규 2019). 여기서 전반적인 생업양상의 쇠퇴란 초기농경이 축소되고 다시 이동성이 증가하여 해양지향성 생업구조로 재편되는 것을 뜻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다시 해양으로의 복귀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교류가 재활성화 될 여건이 갖추어진 것이기도 하므로, 단순히 중기와 다른 생업양상을 생업의 쇠퇴로 간주하고 교류양상의 축소로 해석하기는 무리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후·말기에 조몬계토기와 흑요석 출토양상이 주목된다. 조·전기에는 직접적 교류의 표지인 흑요석과 더불어 이에 수반되는 토기가 함께 나타나지만, 후·말기에는 토기는 일부 극히 제한된 유적에서만 보이고, 흑요석만 출토되는 유적 수가 증가하는 상황은 이전과 다른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즉, 후·말기의 양상은 교류 강도의 차이는 물론 흑요석 등의 유통구조의 차이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흑요석이 조·전기에는 원석의 형태로 유통되나 후·말기에는 제품으로 반입된다고 보기도 하지만(甲元真之 외 2002:53), 제품이든 박편이든 현재까지 발견된 후·말기의 흑요석 수량은 조·전기에 비할 바가 못 되고, 동삼동이나 범방에서는 박편도 다수 확인된다. 그리고 조·전기에 비해 교류의 지역범위가 축소되고 흑요석 산지가 한 곳으로 수렴되는 양상으로 볼 때, 중기에는 조·전기에 비해 대외교류의 직접적 주체가 동삼동 및 범방 주민들로 제한되었다가, 후·말기에 들어서면서 해안을 중심으로 유적이 확대되는 양상과 더불어 동삼동 및 범방으로 유입된 흑요석이 주변, 즉 이중구연토기문화권으로 유통





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일본의 양상은 어떠할까? 토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패천이다. 패천은 신석기 초기에 출현하여 중기이후 성행하고 규슈지역에서도 조몬 초기부터 출현하여 만기까지 사용되나 조몬 후기전반기에 가장 성행하는데, 양 지역에서의 출현 시점과 성행시점이 유사하다(甲元真之 외 2002: 53). 실제로 동삼동유적 패천 출토 양상을 보면, 조·전기보다 중기 이후에 패천 완제품이 더욱 많아지고, 대마도 사카(佐賀)패총에서는 그곳에 서식하지 않는 투박조개제(113점 중 95점), 흰삿갓조개제, 빨럭지삿갓조개제 패천이 발견되면서 이러한 논의는 정설화되어 왔다. 여기서 고려할 부분은 패천 출토 유적의 분포상<sup>12)</sup>이다. 규슈지역에서 패천이 출토되는 유적은 대부분 조몬 후기로, 빗살무늬계토기가 집중하는 나가사키, 사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패천의 출토 빈도가 낮고 오히려 그 주변부에서 패천이 출토된다. 투박조개제가 출토되는 유적만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규슈지역에서 출토되는 패천에 이용되는 조개 대부분이 규슈 연안지역에서 채취가 가능하다는 지적(甲元真之 외 2002: 53)처럼, 규슈지역 조몬 후기 유적에서 출토된 모든 패천이 한반도를 통해 유입된 것을 아닐 것이지만, 투박조개제를 비롯한 몇몇 사례들은 한반도를 통해 유통되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투박조개제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사카패총, 구와바루히구시유적(62점)이 한반도와의 최단거리의 루트상에 위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한반도 내 흑요석의 유통과 마찬가지로 특정 집단을 통해 유입된 패천이 다시 주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유통되는 양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IV. 청동기시대 조·전기의 교류 양상

### 1. 토기에 보이는 교류 지표

먼저 청동기시대 전기 이중구연토기와 유사한 형태가 산인지역에서 확인된 바 있다. 시마네현(島根県) 산타다니(三田谷) I 유적과 하라다(原田)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자는 조몬 만기전엽에 해당한다.<sup>13)</sup> 이중구연토기가 발행이고 구연단이 뾰족하며 기벽이 두

12) 甲元真之 외2002의 논문의 도24에 따름.

13) 공반유물과 이중구연 위에 시문된 문양의 유사성으로 볼 때, 岡田憲一편년으로 조몬 만기전엽에 해당하는 시가사토식(滋賀里式)2기에서 3기에 속한다(岡田憲一·千羨幸 2006)

텃고 물손질 정면하는 등 토착 토기문화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이중구연토기의 이중구 연폭(3cm이하), 문양시문 위치와 형태로 보아 청동기시대 전기 한반도 남부에서 확인되는 무문토기와 유사하다. 산인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공렬토기를 매개로 한 한반도 남부와 관련된성을 고려할 때, 서일본의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는 산인지역은 영남지방 가운데 동남해안지역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岡田憲一·千羨幸 2006)(그림3).

서일본의 공렬토기는 산인지역 및 남부규슈지역에 집중분포한다. 양 지역의 공렬토기는 시문 방식의 차가 분명한데, 산인의 공렬토기는 안에서 밖으로 비관통하여 외면을 돌류상으로 만들고, 남부규슈지역의 공렬토기는 밖에서 안으로 비관통하여 외면을 점열상으로 장식한다. 천공방향의 차이는 양 지역 공렬토기의 제작 의도가 다를 것을 의미하고 각각 계보가 서로 다른 가능성을 시사한다(千羨幸 2008b). 산인의 공렬토기는 공렬직경이 4mm 내외로 넓고, 죽관형의 시문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특징인데, 점차 공렬이 구연에 근접하고 돌출도가 감소한다. 이러한 특징과 변화상은 영남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역시 산인지역과의 지리적 관계를 고려하면, 동남해안지역과 관련될 가능성이 많다(千羨幸 2008b). 규슈지역의 공렬토기는 동남규슈에 먼저 정착하여 북부규슈로 전개된다. 동남규슈의 공렬직경은 3~6mm로 외면에서 내면으로 찌른 비관통이 압도적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공렬토기가 제주도 상모리유적에서 확인된다. 상모리유적을 포함하여 한반도 서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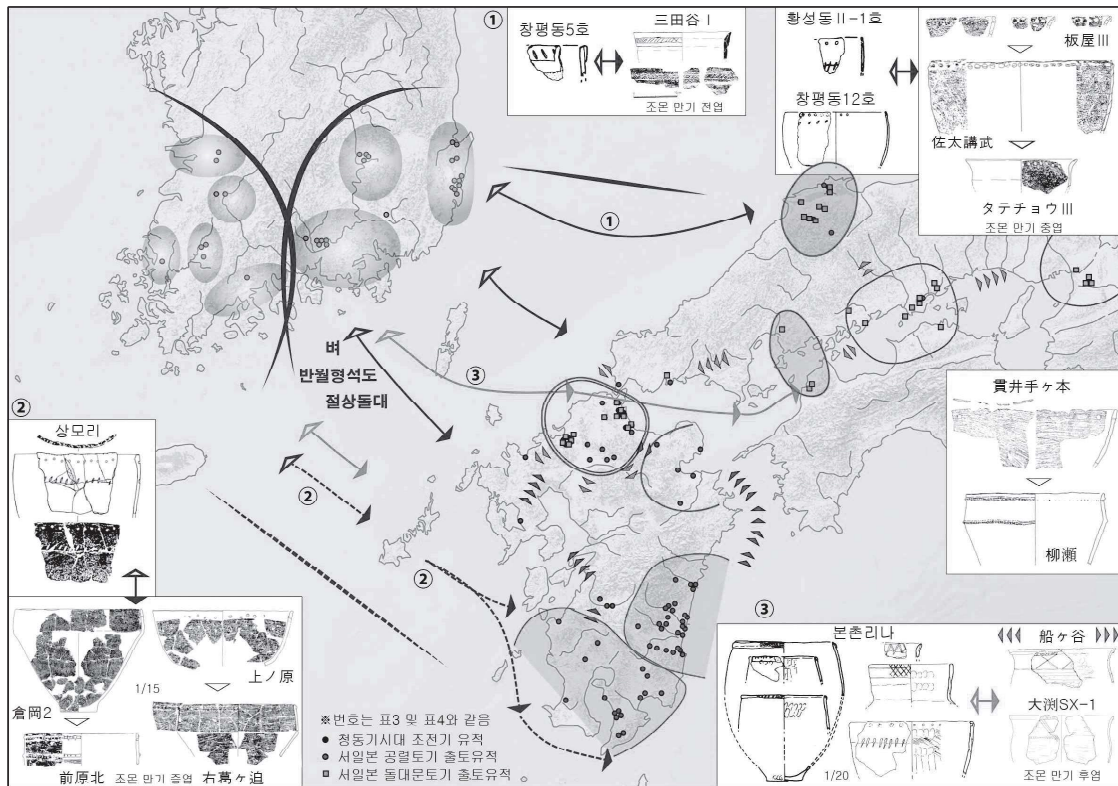


그림3. 청동기시대 조·전기 교류양상

부의 공렬토기가 남부규슈지역으로 파급되고 다시 북부규슈지역으로 확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千羨幸 2008b).

서일본에서 조몬 만기후엽에 출현하는 각목돌대문토기는 일반적으로 천발의 구연에 형성된 돌대가 심발에 전사되고, 다시 구순각목의 각목이 돌대상에 부가되어 출현한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서일본에서 천발에 돌대가 생기는 경향은 인정되지만, 유적 내에서 돌대문토기 심발은 돌대를 가진 천발보다 빨리 출현한다. 게다가 돌대문토기 심발이 이상의 형식학적 발전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인되는 유적은 아직 없고, 실제로 각목돌대라는 완성된 형태로 서일본에서 출현하기 때문에, 돌대문토기의 계보를 서일본 내에서 구하기는 어렵다(千羨幸 2008a). 서일본 돌대문토기의 출현과정을 검토한 연구(千羨幸 2008a)에 따르면, 돌대문토기는 건형구연천발(鍵形口縁淺鉢)과 거의 동시에 중부세토우치(中部瀬戸内)지역에서 출현한다. 또한 「각목돌대」라는 하나의 요소로 인식되어 성립하므로, 거의 동시기에 한반도와 서일본에서 돌대문토기가 존재한다는 점을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물론 기형과 정면기법 등의 상이점도 있지만, 돌대형상, 돌대위치, 각목시문방법, 침선문의 존재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인정된다. 각목돌대문토기 단계에 공반하는 침선문 구성을 감안하면, 남강유역을 비롯한 영남지역 일대의 돌대문토기와 연관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시기적으로 무문토기시대 초기의 돌대문토기와 관련된다고보다는 전기말까지 잔존하는 남강유역의 돌대문토기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千羨幸 2008a).

## 2. 그 밖에 주목되는 교류 지표

앞서 설명한 공렬토기, 이중구연 외에도 조몬 만기전엽부터 중엽에 걸쳐, 구이시바루(礫石原)유적에서는 무문토기시대 전기의 절상돌대문과 유사한 형태가 확인되고, 북규슈시의 누키가와(貫川)유적에서는 반월형석도<sup>14)</sup>가 출토되었다. 그밖에 주목되는 것이 한반도를 통해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벼(볍씨압흔)의 흔적이다.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벼는 일본열도에서 자생하지 않는데, 대체로 조몬 후기부터 서일본 특히 규슈지역을 중심으로 그 흔적이 확인된다. 특히 토기편의 plant-opal분석이 처음 시행(藤原宏志 1981)되어 구마모토현 가나베(上南部)유적 토기편(조몬 만기초두), 오카야마현 미나미미조테(南溝手)유적(조몬 후기), 즈시마(津島)유적(조몬 후기)에서 토기편

---

14) 반월형석도가 출토된 층을 구로카와식단계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지만, 공반유물상으로 볼 때, 조몬 만기전엽에 병행할 가능성도 있다(前田義人·武末純一 1994: 千羨幸 2008).

에서 벼의 규산체가 확인된 바 있다. 이후에도 미야자키현(宮崎県) 구와타(桑田)유적 3층(조몬 만기)의 토양시료에서 벼 규산체가,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죠시(都城市) 구로즈치(黒土)유적 5층(조몬 만기)에서 쌀겨 흔적이 찍힌 토기와 태토 내에 쌀겨가 섞인 토기가 확인된 바 있다(藤原宏志 1998). 이뿐만 아니다. 종자 및 곡상층 압흔이 확인되기도 하는데, 오카야마현 미나미미조테(조몬 후기후반), 후쿠다(福田)폐총(조몬 후기후반), 나가사키현 이카다(笵)유적(조몬 후기후반), 오이타현 오이시(大石)유적(조몬 만기전반), 구마모토현 와쿠도(ワクド)유적(조몬 만기전반), 후쿠오카현 오사유키(長行)유적(조몬 만기후반), 나가사키현 구이시바루유적(조몬 만기후반), 핫카다이(百花台)유적(조몬 만기후반), 시마네현 이타야(板屋)Ⅲ유적(조몬 만기후반), 오야유적, 구와바루히구시유적(조몬 중~후기)에서 벼의 종자압흔이 확인되었다(山崎純男 2005). 그 밖에 구마모토현 우에노하라(上の原)(조몬 만기전반)유적에서 벼 압흔이 확인된 바 있다(甲元真之 외 2002:100).

직접적인 곡물자료 외에도 농공구의 존재를 통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타제석부를 농경의 존재를 시사하는 증거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마제석부, 타제반월형석도, 마반과 마봉의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마제석부는 전, 중, 후기에 각각 증가하는 시기가 있는데, 특히 후기전반의 마제석부는 화전농경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山崎純男 2005). 이와 관련하여 사카패총 출토 마제석부<sup>15)</sup>의 성형과 형태를 검토하여 여기서 생산된 마제석부가 남해안에서 고토열도, 가라쓰지방에 유통되었고 양적으로는 가라쓰 지방에 집중 분포함을 밝힌 연구가 있다. 아울러 사카패총에서 마제석부류는 대마도와 가라쓰지역 간의 마제석부와 흑요석 교역이 이루어지고, 이 흑요석이 한국 남해안 패천과의 교역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板倉有太 2008:108-109). 타제반월형석도는 양 측면에 결입부가 있는데 후기후반에 급작스레 등장한다. 이른 것은 조몬 후기(鐘崎式~北久根山式)에 등장하고 조몬 후기후반 미만다식 이후에는 확실히 존재한다. 초기의 것은 석시(石匙)와 같은 크기이지만, 이후 10cm전후로 대형화한다. 마반과 마봉(안형갈판과 갈돌)은 미야모토(宮本一夫)가 말하는 화북형 농경석기로 조, 수수 농경이 화북에서 한반도로 확산해가는 단계의 표지로 판단한다. 역시 조몬 후기부터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농경을 시사하는 타제반월형석도, 마반과 마봉이 조몬 후기에 출현하고, 후기전반에 마제석부가 증가하는 양상이 보이며, 벼의 압흔이나 플랜트 오판 등의 증거도 조몬 후기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만기이후로 갈수록 출토 빈도가 높아진다. 이 시점은 대체로 신석기시대 말기에서부터 청동기시대 전기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15) 조몬 후기중엽 가네자키식토기에 해당하는 것이 312점(보고서에는 190점), 그 중 미완성품이 152점이다(板倉有太 2008).

시점으로 한반도에 재배되던 벼 곡물이 서일본으로 유입되었다고 추정된다.

### 3. 다양한 대외 전파 루트의 형성

이상으로 청동기시대 조·전기의 무문토기문화와 서일본의 토기문화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이중구연 및 공렬토기에서 한반도 동남해안지역과 산인지역의 관련성을, 돌대문토기에서 남강유역 일대와 중부세토우치지역의 관련성을, 공렬토기에서 한반도 서남부를 포함한 한반도 남부 각지와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신석기시대 후·말기와 또 다른 모습으로 오히려 신석기시대 조·전기의 지역 집단의 개별적 교류방식에 가깝다. 그러나 교류의 지역적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교류 지표가 도구와 같은 특정 재화보다는 특산물로 변화하고 아울러 교류의 결과로 나타나는 토기상에서도 토기 개체 혹은 토기 문양의 수용에 차이가 나타난다. 한반도에서 벼를 교환 대상으로 하여 무엇을 받았는지 현재로서 분명하지 않고, 한반도 측에서는 조문토기 관련 유물의 출토가 전무하다. 이러한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신석기시대처럼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체계보다는 인적 교류, 정보 전달이라는 전파양상이 오히려 청동기시대 조·전기의 교류상을 더욱 분명하게 말해주는지도 모른다.

한편, 다양한 루트에 대한 비판도 있다. 비판의 논점은 한반도 서남부와 일본열도의 교류에 대한 거부감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호남지역과 제주도의 관계성, 서남부와 일본열도 관계를 「원격지 직접 도래」(端野晋平 2010)라고 하여 불가능한 형태로 폄하한다. 그 가운데 이진민 등은 현무암을 근거로 [영남-제주도]의 관련성을 강조하지만, 호남권인 여서도패총에서 현무암이 확인되고, 제주도 송국리유형이 호남지역과의 관련 속에서 등장한다는 연구결과(김경주 2009; 유병록 2009)에 비추어 보아도 호남과 제주도의 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신석기시대 다양한 해양활동에 비추어 볼 때, 호남-제주도-영남 주민들의 교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 영남지역과 북부규슈 외의 대마도, 이키를 징검다리삼아 이루어지는 교류형태도 존재하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마도를 거치지 않고 영남지역과 규슈지역의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 위와 같은 비판과 관점은 지리적으로 근접하는 영남지역과 북부규슈의 교류라는 선입견, 한반도를 비롯한 선진문물은 언제나 북부규슈를 창구로 하여 유입되어 일본열도로 파급된다는 강한 믿음의 결과가 아닌가 한다. 아울러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대외교류를 확인하기 대상물이 북부규슈 지역 자료에 치중되어 왔던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현재까지의 공렬토기, 이중구연요소, 돌대문요소의 일본 내 출현과정 시점을 통해 볼 때, 현재 고고학 물질자료로 남아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동과 교류, 전파가 있었

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현재의 국경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집단 규모, 정보 공유의 범위 등을 감안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소규모의 여러 집단들의 해상을 통해 접촉하고 교류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반도 동남해안지역과 산인지역의 교류는 북상하는 구로시오해류(동한난류)가 한반도를 따라 남하하는 리만해류와 만나 동쪽으로 흐른다. 이러한 해류의 흐름을 통해 선사시대 해상활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마찬가지로 서남부지역과의 교류<sup>16)</sup>도 이러한 해류의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광역적인 해상활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V.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전기 한일 교류의 변화\_ 맷음말을 대신하여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 전기에 이르기까지 통시적으로 한반도와 서일본의 교류상을 검토한 결과, 교류 지표와 교류 지역, 나아가 교류 양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류 지표의 경우, 신석기시대 동안은 특산물 등의 교환도 있었겠지만 주된 목적은 특정 재화인 도구 및 원자재, 장신구를 중심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토기에 대한 교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청동기시대에는 도구나 장신구 등의 재화보다는 벼와 같은 특산물로 교류 지표와 목적이 전환되어 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조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흑요석이 더 이상 한반도와의 관계에서 주된 교류대상물이 되지 않는 데에는 한반도가 이미 청동기시대로 진입하여 흑요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생업경제와 마제석기의 확산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자료로 보는 한, 서일본에서는 토기 문양을 비롯하여, 반월형 석도, 범썩 압흔과 식물규소체 등 한반도와의 교류상을 보여주는 증거가 단편적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그 교환 대상물이 분명하지 않다. 그 이유로는 교류 대상물이 유기질 형태의 특산물이었을 가능성은 물론이고 한반도 농경사회에서 조몬인의 수렵채집 사회의 인식체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양 지역간 관계가 엄

16) 최근, 한반도 서남부지역 세형동검문화(발전기 I 기 말~II기 초, 서기전 2세기 전엽)가 이기 섬을 거쳐 규슈지역으로 파급되었을 가능성을 논한 연구가 발표되어 주목된다(조진선, 2016:63-66). 이 논문에서 조선시대 표착 사례를 분석한 연구성과를 인용하고 있는데, 전라도 배 53건 가운데 90%가 규슈 북서부, 특히 고토열도에 절반이상 표착하고, 경상도 배는 73%이상이 혼슈 북서부에 표착한다고 한다(조진선 2016:64). 특히 남해안 동부와 동남해안 일대에서 표류하는 경우 대체로 규슈지역이 아닌 산인지역에 도달하는 점이 두드러지고, 한반도 서남부에서 표류하는 경우 규슈지역 서북부지역에 집중되는 점이 주목된다.

밀한 형태의 교류보다는 문화 전파나 파급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후자의 경우라도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잇는 다양한 바닷길이 배경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양 지역 간의 교류 지역 및 양상을 살펴보면, 신석기시대 조·전기는 외양성 어로활동이 활발한 시점이다. 이를 토대로 어로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혹은 흑요석 재화를 목적으로 양 지역의 접촉이 이루어진다. 이 때 양 지역의 접촉은 기존연구처럼 대마도를 접촉지대로 이용하였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해안 각 집단과 서북규슈지역 각 집단과의 개별적인 사적 교류관계가 구축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부터는 교류 빈도가 줄어드는데 동삼동, 범방유적을 중심으로 흑요석을 매개로 한 교류관계는 지속화되었고, 이는 서일본도 마찬가지이다. 후기부터 다시 해양지향의 생업형태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말기에는 가속화된다. 이에 따라 조·전기에 점유되었던 패총이 후·말기에 다시 재점유되는데, 중기에 형성되었던 특정 집단과의 교류 창구가 여전히 그 역할을 유지한다. 다만 중기와 다른 점은 특정 재화인 흑요석의 경우, 동삼동이나 범방유적으로 유입된 후 한반도 내 해양집단들에 의해 다시 주변으로 재확산되어 간다는 점이다. 서일본 내 패천도 특정집단을 통해 주변 집단으로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동기시대에 들어서 교류 양상이 일변한다. 청동기시대 조·전기에 다시 한반도 각지와 서일본의 다원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일견 신석기시대 조·전기의 교류 양상에 가까운 듯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석기시대처럼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체계보다는 인적 교류, 정보 전달이라는 전파양상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청동기시대에 들어서 토착 이중구연토기문화권이 해체되고, 지역문화가 형성 전개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로 인해 한반도 각지와 서일본 각지와의 관계들이 복잡하게 형성되고, 나아가 서일본에서 무문토기의 이미지, 시각적 효과(이중구연, 공렬, 각목돌대)만 수용된 형태로 나타난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분명하지 않지만, 새로운 요소를 접하였을 때 보이는 토착 주민의 반응과 선택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생각된다. 동일한 조몬시대 사람들이 끊임없이 한반도 주민과 교류하지만, 신석기 조·전기의 빗살무늬토기에 보인 반응과 적극적으로 문양요소를 조몬토기에 투영시킨 선택, 신석기 중기 및 후·말기에 조몬인들이 객체로서 소량의 빗살무늬토기를 수용하고 패천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선택, 청동기시대 이후 벼라는 곡물 도입에 따른 선택과 문양요소로서 일부지역에서만 토착 토기와 융합시키는 선택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특히 청동기시대 단계에 조몬인의 선택 배경으로는 조몬 후기부터 밀려오는 서일본 문화의 영향, 나아가 조몬 후기후반부터 진행되는 무문화를 통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조몬 본래의 문양소실은 외적인 문양수용의 제약을 약화시키고, 조몬토기의 범주에서 벗어난 장식들을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을 형성시킨다. 나아가 한반도계 문양요소는 한반도와의 교류관계를 긴밀하게 전개될 수 있는 지역보다 그 주변



에서 적극 수용되는 점으로 보아 교류의 상징으로 지역 집단에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 高橋豊·河仁秀·小畑弘己, 2003, 「螢光X線分析에 의한 東三洞·凡方遺蹟 出土 黑曜石 產地推定」, 『한국신석기연구』6.
- 岡田憲一·하인수, 2009, 「한반도 南部 終末期 櫛文土器와 繩文土器의 年代的 병행관계 검토-東三洞貝塚 출토 繩文土器를 중심으로」, 『한국신석기연구』17.
- 김건수, 2008, 「쿠로시오와 신석기문화」, 『남해안지역의 신석기 문화』, 2008년 한국신석기학회 추계 학술대회.
- 김건수, 2009, 「해협(海峽)을 둘러싼 신석기시대 어민(漁民)」, 『韓·日 新石器時代의 漁撈와 海洋文化』, 제8회 韓·日 新石器時代 共同學術大會 發表資料集.
- 김경주, 2009, 「유구와 유물로 본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제3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 広瀬雄一, 2005, 「對馬海峽을 사이에 둔 韓日新石器時代의 交流」, 『韓國新石器研究』9.
- 端野晋平, 2010, 「수작농경 개시 이후 한일교류론의 諸문제-송국리문화와 야요이문화의 형성-」, 『嶺南考古學』52.
- 端野晋平, 2016, 「도작농경 개시전후의 일본열도-한반도간 교류」, 『石堂論叢』64.
- 안재호, 2006, 『靑銅器時代 聚落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병록, 2009, 「慶尙 南海岸의 松菊里文化」,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제3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 이상규, 2019, 「신석기시대 영남-서북규슈 해안지역 교류에 관한 검토- 어로구의 양상을 중심으로 -」, 『영남고고학』83.
- 李眞旼·吉本正典·藤木 聰, 2011, 「한반도 호남지역과 규슈 동남부·남부지역의 교류관계에 대한 일고찰-공렬토기문화를 중심으로-」, 『考古學誌』第17輯(국립중앙박물관).
- 임상택, 2008, 「新石器時代 大韓海峽 兩岸地域 交流에 대한 再檢討」, 『영남고고학』47, 영남고고학회.
- 鄭澄元·河仁秀, 1998, 「南海岸地方과 九州地方의 新石器時代 文化交流 研究」, 『한국민족문화』12.
- 조진선, 2016, 「細形銅劍文化의 日本列島 波及」, 『湖南考古學報』제53집.
- 千羨幸, 2005, 「한반도 돌대문토기의 형성과 전개」, 『韓國考古學報』57.
- 千羨幸, 2007, 「靑銅器時代 早期設定과 時空的範圍」, 『韓國靑銅器學報』창간호.
- 천선행, 2009, 「무문토기시대 한일간 지역관계변천」, 『고문화』73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최종혁, 2009, 「한반도 남부지방 신석기문화」, 『韓·日 新石器時代의 漁撈와 海洋文

- 化』, 제8회 韓·日 新石器時代 共同學術大會 發表資料集.
- 板倉有大, 2008, 「췁몽시대 석기로 본 한일 교류」, 『한일문화교류』, 2008년 부산박물관 국제학술심포지엄.
- 하인수, 2008a, 「韓日 新石器時代 交流樣相과 實態」, 『한일문화교류』, 2008년 부산박물관 국제학술심포지엄.
- 하인수, 2008b, 「남해안지역 중기 즐문토기사회의 동향」, 『남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 2008년 한국신석기학회 추계 학술대회.
- 甲元真之·鄭澄元·河仁秀·小畑弘己·正林 護·田中総一·高野晋司, 2002, 「先史時代の日韓交流試論—九州出土韓国系遺物及び韓国出土縄文系遺物の基礎的研究」, 『靑丘學術論集』20.
- 岡田憲一·千羨幸, 2006, 「二重口縁土器と孔列土器」, 『古文化談叢』55集, 九州古文化研究会.
- 岡田憲一, 2008, 「近畿·中国·四国地方」, 『歴史のものさし』縄文時代の考古学 2.
- 宮本一夫, 2004, 「北部九州と朝鮮半島南か慰安地域の先史時代交流再考」, 『福岡大学考古学論集—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
- 宮本一夫, 2005, 「園耕と縄文農耕」, 『韓日新石器時代の 농경문제』第6回韓日新石器時代共同學術大會發表資料集
- 宮本一夫編, 2004, 对馬吉田遺跡—縄文時代遺跡の発掘調査,
- 渡辺誠, 1984, 先史漁具を通して見た東アジア文化交流 東亜文化22
- 藤原宏志, 1998, 『稻作の起源を探る』岩波新書554
- 武末純一, 1987, 「北九州市長行遺跡の孔列土器」, 『記録』第二三 四冊.
- 山崎純男, 2005, 「西日本縄文農耕論」, 『韓日新石器時代の 농경문제』第6回韓日新石器時代共同學術大會發表資料集.
- 前田義人·武末純一, 1994, 「北九州市貫川遺跡の縄文晩期の石包丁」,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39.
- 千羨幸, 2008a, 「西日本における突帯文土器文化の成立過程」, 『考古学雑誌』第92卷第3号, 日本考古学会(53-88).
- 千羨幸, 2008b, 「西日本の孔列土器」, 『日本考古学』第25号, 日本考古学協会.
- 片岡宏二, 1999, 『弥生時代渡来人と土器·靑銅器』(雄山閣).

# 「선사시대 해로를 통한 영남지역의 대외 교류」에 대한 토론문

양 성 혁  
국립중앙박물관

선사시대 사람들은 집단 내의 부족한 자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했을 것이다. 특히 주변 집단과의 교류는 그중 중요한 해결 방식이었을 것이다. 한반도 영남지역과 규슈를 비롯한 서일본 지역은 대한해협이라는 생업 공간을 공유하고 있어 이른 시기부터 양 지역 주민들의 접촉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접촉 과정에서 부족한 자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원분포나 제작 기술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도 상호 교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천선행 선생의 이번 발표는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 전기까지 한반도 남부, 특히 영남지역과 일본열도 사이의 교류 양상을 교류 지표와 교류 지역 등에 대해 폭넓은 시각으로 조망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발표자는 시대에 따라 교류 주체나 교류 양상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고 보았다. 토론자 역시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한반도와 일본열도 간 선사시대의 교류 양상에 대해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발표자께서는 신석기시대 중기의 양 지역 간 교류 범위와 지표가 대폭 줄어드는 배경으로 한반도에서 초기 농경의 등장과 확산으로 인한 내륙지향성 생업경제의 구축을 거론

하였다. 규슈의 경우,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소바타식 토기 성립 이후 문화 확산 양상이 한반도보다는 남쪽으로 퍼졌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것이지만, 규슈의 경우 그 변화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는 조몬 사회의 경제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일 가능성은 없는지 발표자에게 여쭙고 싶다. 즉 남규슈의 아카호야 폭발로 규슈 전체가 화산재로 덮여버려 기존 조몬 사회의 경제 시스템의 붕괴되고, 한반도 남부와 관련된 소바타식 토기문화가 성립된 이후 확산되는 과정 동안 양안 간 교류시스템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사회 경제 시스템이 회복된 조몬 후기 이후 양안 간 교류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2.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교류는 집단 내 부족한 자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분명한 목적 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표류와 표착은 목적을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우연에 의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표류와 표착을 교류로 볼 수 있을까? 토론자는 표류와 표착이 지속적인 행위는 아닐지라도 인적 접촉에 따른 정보 교환 등이 사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교류의 한 형태로 생각한다. 발표자도 언급했듯이 조선시대에도 많은 한반도 주민이 일본열도로 표류해 갔다. 조선시대에는 정부 차원에서 표착민에 대한 송환시스템을 갖췄기에 그들이 남긴 물질문화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선사시대의 경우 표착민의 경우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보다는 표착 지역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남긴 물질문화는 분명의 원주민의 것과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토기나 석기 제작에 있어 새로운 요소가 확인된다거나, 어느 한 지역에서만 다른 지역의 문화요소가 보이는 등, 즉 쌍방향이라 아니라 일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그리고 발표에 제시한 사례에서 혹시 표류와 표착에 따른 교류로 추정될 수 있는 경우는 있는지 여쭙고 싶다.

# 「선사시대 해로를 통한 영남지역의 대외 교류」에 대한 토론문

이 제 현  
국립김해박물관

천선행 선생님은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시기별로 해로를 통한 한·일간의 교류를 여러 고고자료의 분포 양상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였다. 신석기시대 초기에는 외양성 어로를 기반으로 한·일간 교류가 활발하였으며, 이를 주도한 주체는 각 지역 어민 집단으로 파악하였다. 중기에는 교류가 축소하였으나, 흑요석이 집중하는 동삼동이나 범방유적을 중심으로 교류의 명맥이 이어졌다고 하였다. 후·말기에는 해안을 중심으로 유적이 확대되며, 이전과는 다른 교류 양상이 보인다고 하였다. 이후 청동기시대에는 신석기시대와 같은 물품의 교환이 아닌 인적 교류, 정보 전달이라는 전파 양상에 가깝다고 보았다. 아마도 농경문화의 확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러한 전파 양상은 돌대문토기, 공렬토기의 분포 양상을 볼 때, 특정 창구를 통한 것이 아닌 한반도 남부 각지와 일본열도 사이에 다양한 루트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시기에 따라 한·일 간의 교류 양상의 변화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논의되었던 바이며, 토론자도 특별히 다른 의견이 있지는 않다.

부끄럽게도 토론자가 신석기시대 토기의 편년과 한·일간의 병행관계 등에 대해 공부가 부족하여 편년, 토기 출토 양상 등과 같이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기에는 한계를 절감한다. 그렇지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발표 가운데 몇 가지 의문점과 발표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오늘 발표 주제인 “가야 선주민의 바닷길과 대외 교류” 측면에 집중하여 추가적인 사항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발표자께서는 신석기시대 조·전기 교류 양상에 대해 어민 집단의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형태였고, 중기 이후에는 동삼동·범방 주민으로 교류 주체가 제한된다고 하였다. 중기에는 기본적으로 교류 자체의 감소로 인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발

표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후·말기에는 특정 집단이 흑요석을 독점적으로 유입하고, 주변 이증구연토기문화권으로 유통한다고 했을 때, 이미 중기부터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재화 교류의 독점과 장악이 이루어졌다고 볼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동기시대 조기의 양상은 다시금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일본 열도와와의 교류가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렇다면 신석기 후·말기에서 청동기시대 초기 사이에 또 다른 교류 주체의 변동 내지는 교류 양상의 변동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위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후·말기에 교역에 대한 일종의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집단의 성격과 그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의문이 든다. 이를 위계의 세습성이나 제도화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집단 중심적, 협동 중심적 지도자(임상택, 2015: 53)로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후·말기 사회복합성을 띠는 물품의 사회적 요구 증대라는 것 또한 이런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영남지역 수장의 등장을 청동기시대 후기 묘역식 지석묘의 등장으로 보는 견해를 차치하고라도 청동기시대 지석묘 사회를 계층사회가 아닌,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사회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신석기시대 후·말기의 사회복합성의 강화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신석기시대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체계에서 청동기시대에는 인적교류 정보전달이라는 전파양상으로 변화된다고 보았다. 반월형석도, 마제석부, 벼 등의 존재를 통해 농경이라는 정보 전달 요인이 크게 작동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보 전달이 주민 이주와 단순 인적 교류를 통한 요인이 모두 작동했겠으나, 그럼에도 중심적인 방식을 이주로 보시는지, 아니면 교류를 통한 정보 전달로 보는지 궁금하다. 또한 송국리단계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일본계 유물들이 늦은 시기 마산 망곡리, 김해 회현리, 김해 구산동 등에서 확인된다. 이전과는 달리 이 시기부터 야요이계토기가 한반도 남부 등지에서 확인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4. 발표자께서는 청동기시대 조-전기 각목돌대문토기와 공렬토기를 통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가는 교역 루트를 크게 3가지, 동남해안에서 서일본 산인지역으로 직접 가는 루트(구로시오 해류), 제주도에서 규슈 남부로 가는 루트, 동남해안에서 특히 남강유역에서 북부 규슈로의 루트로 상정하였다. 각지에서 일본 열도로의 직접적인 교역 루트가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지석묘나 적색마연호를 통해 남강유역이 중요한 기원지로 이야기되기도 하고(배진성, 2020), 야요이계토기의 출토 양상과 빈도를 통해 김해지역이 중요한 중심지였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조진선, 2016). 혹시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가

장 핵심적인 교류 루트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발표문에서는 해로를 통한 교류였기에 한·일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해상을 통한 영남지역 대외 교류의 중심이 일본 열도였겠지만 중국과의 교류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과의 해상 교류가 존재했다면 중국과 영남지역의 일대일 직접 교류였을지 중간 매개자를 통한 교류였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직접 교류이든 중간 매개자를 통한 것이든 해로를 통한 교류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발표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선사시대 중국과의 해상 교역루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해로를 상정할 경우,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왔으며, 그 과정에서 확인된 중간 기착지로서의 유적 등에 대해서 확인하신 내용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문헌

- 조진선, 2016, 「前近代의 韓日航路와 細形銅劍文化의 波及 經路」, 『한국상고사학보』 105, 한국상고사학회.
- 배진성, 2020, 「분묘 출토 적색마연호에서 본 한일교류」, 『고고광장』26, 부산고고학회.
- 임상택, 2015, 「한반도 신석기시대 복합수렵채집 사회 성격 시론」, 『韓國新石器研究』 30, 한국신석기학회.



2021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


# 가야 선주민의 바닷길과 대외교류

2021년 8월 17일 印刷

2021년 8월 20일 發行

발행 : 국립김해박물관

50911 경남 김해시 가야의길 190 (구산동 232)  
T. 055-320-6800 F. 055-325-9334  
www.gimhae.museum.go.kr

인쇄 : 도서출판 용 

50622 경남 양산시 중앙우회로 7(남부동)  
T. 055-366-6416 F. 055-366-6417

©국립김해박물관 2021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김해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모든 내용 및 자료는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

# 가야 선주민의 바닷길과 대외교류



621-900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 | Tel : 055-320-6800 Fax : 055)325-9334

<http://gimhae.museum.go.kr>

Facebook : /gnm999 | Twitter : @gnm888 | Instagram : @gimhaenm

Kakaostory : gimhaenm | Blog : <http://blog.naver.com/gnm999>